

국립국어원 2008-01-63

|                      |
|----------------------|
| 발간등록번호               |
| 11-1371028-000043-01 |

#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임 영 철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 지원으로 수행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8 년 11 월 29 일

연구책임자 : 임영철(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연구책임자 임영철

공동연구원 이길용

연구보조원 윤사연 황혜선

## 목 차

|                                    |    |
|------------------------------------|----|
| 제1부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조사의 디자인 .....     | 1  |
| 제1장 연구의 위치 설정 .....                | 1  |
| 1.1 연구의 목적 .....                   | 1  |
| 1.2 선행연구 개관 및 본 연구의 위치설정 .....     | 1  |
| 1.2.1 장애의 정의와 분류 기준 .....          | 1  |
| 1.2.2 등록장애인 현황 .....               | 2  |
| 1.2.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 .....         | 3  |
| 1.2.4 언론에 비친 장애인에 대한 편향적 이미지 ..... | 4  |
| 1.2.5 일본에서의 장애인 차별어 연구현황 .....     | 5  |
| 1.2.6 본 연구의 위치설정 .....             | 7  |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 9  |
| 2.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및 해소 방안 .....   | 9  |
| 2.1.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         | 9  |
| 2.1.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대적 변화 과정 .....  | 11 |
| 2.1.3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방안 .....       | 13 |
| 2.2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시대적 변화 과정 .....   | 14 |
| 2.2.1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중요성 .....       | 14 |
| 2.2.2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종류와 변천 .....    | 15 |
| 2.3 법률에 나타난 사례 .....               | 17 |
| 2.3.1 개선된 사례 .....                 | 17 |
| 2.3.2 개선되지 않은 사례 .....             | 20 |
| 제3장 실태조사의 디자인 .....                | 22 |
| 3.1 차별어 선정 .....                   | 22 |
| 3.1.1 설문지 조사용 언어항목 선정 절차 .....     | 22 |
| 3.1.2 설문지 조사표의 구성 .....            | 24 |
| 3.1.3 설문지 조사의 실시 과정 .....          | 25 |
| 3.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       | 25 |
| 3.3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 27 |

|                                                |    |
|------------------------------------------------|----|
| 제2부 장애인 차별어의 실태 .....                          | 28 |
| 제4장 이미지 속 장애인과 장애인 배려의식 .....                  | 28 |
| 4.1 장애인 이미지 .....                              | 28 |
| 4.2 매스컴 공공언어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의식 .....               | 30 |
| 4.2.1 매체별 배려 정도 비교 .....                       | 30 |
| 4.2.2 신문에서의 배려 정도 .....                        | 31 |
| 4.2.3 텔레비전에서의 배려 정도 .....                      | 33 |
| 4.2.4 라디오에서의 배려 정도 .....                       | 34 |
| 4.2.5 인터넷에서의 배려 정도 .....                       | 36 |
| 4.3 비장애인의 태도 및 언어 순화의식 .....                   | 37 |
| 4.3.1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                   | 37 |
| 4.3.2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어적 배려 .....               | 38 |
| 4.3.3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 | 39 |
| 4.3.4 언어표현과 의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 39 |
| 제5장 장애인 차별어 평가의식 .....                         | 41 |
| 5.1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관한 의식 .....                   | 41 |
| 5.1.1 전체적인 경향 .....                            | 41 |
| 5.1.2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비교 .....                      | 42 |
| 5.1.3 개별 항목 검토 .....                           | 44 |
| 5.2 문맥 속의 차별어 표현에 관한 의식 .....                  | 46 |
| 5.2.1 전체적인 경향 .....                            | 47 |
| 5.2.2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                     | 48 |
| 5.3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에 관한 평가 .....                  | 50 |
| 5.3.1 차별의식의 전체적인 경향 .....                      | 50 |
| 5.3.2 차별의식의 연령별 경향 .....                       | 51 |
| 5.3.3 차별의식의 남녀별 경향 .....                       | 52 |
| 5.3.4 도와 준 경험 유무에 따른 차별의식의 경향 .....            | 52 |
| 5.3.5 의식개선 의견에 따른 차별의식 경향성 .....               | 53 |
| 5.3.6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평가 이유 .....                 | 54 |
| 5.3.7 정리 .....                                 | 56 |
| 제6장 차별어에 대한 상황별 평가 의식 .....                    | 58 |
| 6.1 상황별 평가 의식 .....                            | 58 |
| 6.1.1 평가 방법 .....                              | 58 |



|                                  |    |
|----------------------------------|----|
| 6.1.2 상황별 평가의 전체적인 경향 .....      | 59 |
| 6.2 제시문에 따른 문맥형과 속담형의 평가 .....   | 60 |
| 6.2.1 ‘병어리’에 대한 평가 .....         | 60 |
| 6.2.2 ‘장님’에 대한 평가 .....          | 61 |
| 6.2.3 ‘절름발이’에 대한 평가 .....        | 62 |
| 6.3 상황별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 .....        | 63 |
| 제3부 장애인 차별어의 대안표현 .....          | 65 |
| 제7장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표현 .....          | 65 |
| 7.1 대안 표현의 유형 .....              | 65 |
| 7.2 전체적인 경향 .....                | 65 |
| 7.2.1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 표현 선호도 .....   | 65 |
| 7.2.2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 표현 .....       | 67 |
| 7.3 대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        | 69 |
| 7.3.1 대학생과 일반인의 대안 표현의 특징 .....  | 69 |
| 7.3.2 개별적 대안 표현의 비교 .....        | 70 |
| 7.4 독립적 단어형 대안 표현의 특징 .....      | 72 |
| 제8장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        | 73 |
| 8.1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유형 .....     | 73 |
| 8.2 전체적인 경향 .....                | 73 |
| 8.2.1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선호도 .....  | 73 |
| 8.2.2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      | 75 |
| 8.3 대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        | 77 |
| 8.4 단어형 대안표현의 연령별 분석 .....       | 78 |
| 8.5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특징 .....     | 81 |
| 제9장 장애인 차별어의 특징과 앞으로의 개선방향 ..... | 82 |
| 9.1 장애인 차별어의 특징 .....            | 82 |
| 9.2 대안 표현의 개선 방향 .....           | 83 |
| 참고문헌 .....                       | 85 |
| 부록 .....                         | 87 |

## 표 목 차

|      |                                     |    |
|------|-------------------------------------|----|
| 표1-1 | 장애의 분류.....                         | 2  |
| 표1-2 | 일본어의 장애인 차별어와 대안 표현.....            | 5  |
| 표3-1 | KINDS에서 상위에 있는 언어항목(최종 선정 항목) ..... | 23 |
| 표3-2 | 설문조사 .....                          | 25 |
| 표3-3 | 조사 대상자 .....                        | 25 |
| 표3-4 | 인터뷰조사 내용 .....                      | 26 |
| 표4-1 | 장애 분류표 .....                        | 28 |
| 표4-2 | 응답자의 실제 사용표현 .....                  | 30 |
| 표4-3 | 신문에서의 배려 정도 .....                   | 32 |
| 표4-4 | 텔레비전에서의 배려 정도 .....                 | 33 |
| 표4-5 | 라디오에서의 배려 정도 .....                  | 35 |
| 표4-6 | 인터넷에서의 배려 정도 .....                  | 36 |
| 표5-1 |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의 차별성 정도 .....           | 41 |
| 표5-2 | 문맥 속의 차별어 표현에 관한 의식 분석 .....        | 47 |
| 표5-3 |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 .....             | 50 |
| 표5-4 | 기타 의견 분류 .....                      | 56 |
| 표6-1 | 조사 유형 및 조사 내용 .....                 | 58 |
| 표6-2 |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의 조사 유형 .....          | 59 |
| 표6-3 | 병어리에 대한 평가 정도 .....                 | 60 |
| 표6-4 | 병어리의 제시문 .....                      | 60 |
| 표6-5 | 병어리에 대한 평가 정도 .....                 | 61 |
| 표6-6 | 장님의 제시문 .....                       | 62 |
| 표6-7 | 절름발이에 대한 평가 정도 .....                | 62 |
| 표6-8 | 절름발이의 제시문 .....                     | 62 |
| 표7-1 | 단어별 대안 표현의 선택 비율 .....              | 66 |
| 표7-2 | 단어별 대안 표현 .....                     | 67 |
| 표7-3 | 그룹별 대안 표현의 내용 .....                 | 70 |
| 표8-1 |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선택 비율 .....         | 75 |
| 표8-2 | 단어별 대안 표현 .....                     | 76 |
| 표8-3 |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의 연령별 선호 경향 .....       | 78 |

## 그 림 목 차

|        |                                           |    |
|--------|-------------------------------------------|----|
| 그림1-1  |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등록장애인(유형) 현황 .....       | 3  |
| 그림1-2  | 차별어에 대한 협의의 차별 의식에서 광의의 차별 의식으로의 전환 ..... | 8  |
| 그림4-1  | 장애인 이미지 .....                             | 29 |
| 그림4-2  | 매체별 배려 정도 비교 .....                        | 31 |
| 그림4-3  | 신문 지면별 배려 정도 .....                        | 32 |
| 그림4-4  | 텔레비전 프로그램별 배려 정도 .....                    | 34 |
| 그림4-5  | 라디오 방송별 배려 정도 .....                       | 35 |
| 그림4-6  | 인터넷 사이트별 배려 정도 .....                      | 36 |
| 그림4-7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                    | 37 |
| 그림4-8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어 배려 .....                 | 38 |
| 그림4-9  | 차별적인 언어 사용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          | 39 |
| 그림4-10 | 언어표현과 의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 40 |
| 그림5-1  | 학생과 일반인의 차별성 의식 차이 .....                  | 43 |
| 그림5-2  | 장애자 .....                                 | 44 |
| 그림5-3  | 무너아 .....                                 | 44 |
| 그림5-4  | 정상인 .....                                 | 45 |
| 그림5-5  | 저능아 .....                                 | 45 |
| 그림5-6  | 장님 .....                                  | 45 |
| 그림5-7  | 외눈박이 .....                                | 46 |
| 그림5-8  | 맹인 .....                                  | 46 |
| 그림5-9  | 학생과 일반인의 차별성 의식 차이 .....                  | 49 |
| 그림5-10 | 속담 및 표현형 차별의식의 연령별 경향 .....               | 51 |
| 그림5-11 | 성별 차별의식 .....                             | 52 |
| 그림5-12 | 도움경험여부와 차별의식 .....                        | 53 |
| 그림5-13 | 의식개선 동의여부와 차별의식 .....                     | 53 |
| 그림5-14 | 속담 및 표현형 사용에 대한 평가 .....                  | 54 |
| 그림5-15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의 세부항목 .....               | 55 |
| 그림5-16 | ‘사용해도 무방하다’의 세부항목 .....                   | 55 |
| 그림6-1  |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의 상황별 평가 .....           | 59 |
| 그림6-2  | 상황별 평가 정도 .....                           | 64 |

|       |                           |    |
|-------|---------------------------|----|
| 그림7-1 | 전체 단어형 차별어 대안 표현 경향 ..... | 69 |
| 그림7-2 | 그룹별 대안 표현의 경향 .....       | 69 |
| 그림7-3 | ‘애꾸눈’의 대안 표현 비교 .....     | 71 |
| 그림7-4 | ‘난쟁이’의 대안표현 비교 .....      | 71 |
| 그림7-5 | ‘정신박약자’의 대안표현 비교 .....    | 72 |
| 그림8-1 | 문맥 속 단어별 대안 표현 .....      | 77 |
| 그림8-2 | 그룹별 대안 표현의 경향 .....       | 77 |
| 그림8-3 | ‘병신’의 대안 표현의 비교 .....     | 80 |
| 그림8-4 | ‘정신박약자’의 대안 표현의 비교 .....  | 80 |
| 그림8-5 | ‘장애자’의 대안 표현의 비교 .....    | 80 |

## 제1부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조사의 디자인

### 제 1 장 연구의 위치 설정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장애·장애자에 대한 현황, 연구 방향 및 본 연구의 위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현대인들의 차별 의식과 대중매체를 통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차별 의식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및 대안적인 표현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 (1)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평가와 현행 장애인 용어에 대한 대안 표현으로의 기능 검토
- (2)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 사례의 의식 분석
- (3)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대한 대안적인 표현 및 개선 방향 제시

#### 1.2 선행연구 개관 및 본 연구의 위치설정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관한 연구의 전체상을 개관하고, 장애인 차별 언어에 대한 대중매체의 대응, 특히 일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본 연구의 위치를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 1.2.1 장애의 정의와 분류 기준

선천성 질병,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치료가 곤란한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UN 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 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89 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그때까지 주로 신체적 장애 중 외부적 신체기능 장애에 국한되어 왔던 장애범주를 정신적 장애와 기관의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였다.

“장애인복지법(1999 년 1 월 개정)”에 규정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제 2 조 제 1 항). 장애분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 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따라 다음 표 1-1

과 같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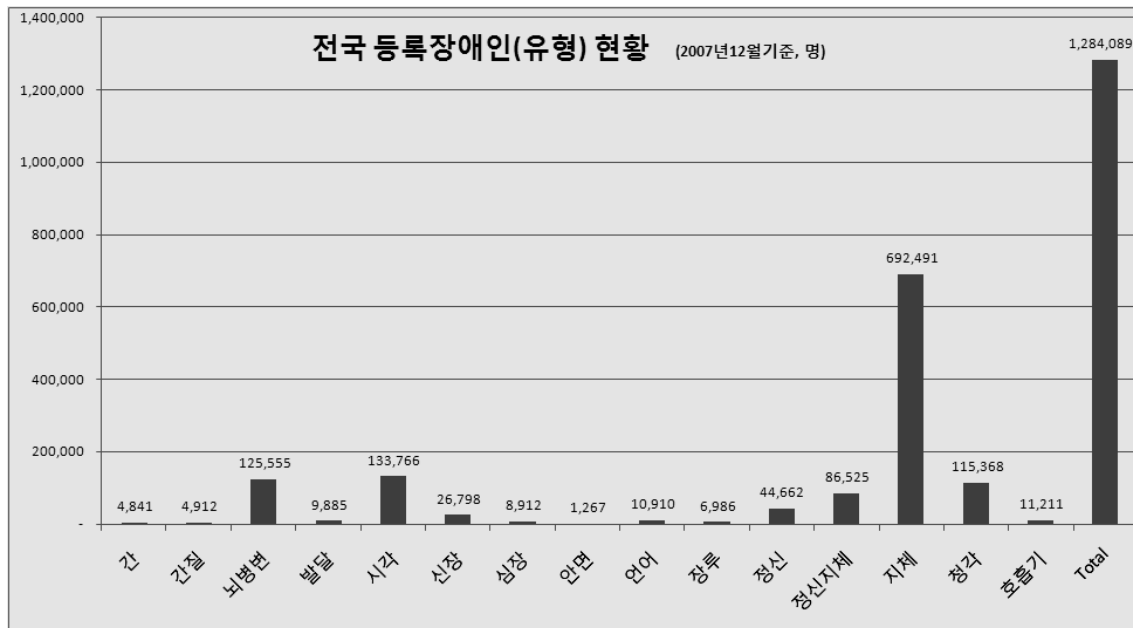
표 1-1 장애의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
| 신체적<br>장애 | 외부 신체<br>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br>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br>장애 | 지적장애            |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정신장애            |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br>반복성 우울장애 |
|           | 자폐성 장애          |         |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1.2.2 등록장애인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 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총 장애인 수를 2,148,700 명으로, 그 중 장애인의 79.4%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 년도 12 월 말 현재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1,284,089 명으로 장애유형 별 인구는 그림 1-1 과 같다. 이에 따르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순이다. 이들 장애유형 중에 ‘정신지체’가 ‘지적 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로 2008 년 3 월에 개정되었다.

그림 1-1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등록장애인(유형) 현황



### 1.2.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인복지에 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 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2001)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매우 부정적’이 7.3%, ‘부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46.0%로 절반이 넘는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국갤럽(2001:33)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46.0%)는 의견보다 많았다. 한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자유응답식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가 2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동등한 대우’(18.6%), ‘배려’(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1997:42)의 ‘장애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비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86.4%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12.5%)보다 훨씬 우세했다.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는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언론매체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편견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문제는 자신과 관계 없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적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갤럽(2001:22) 등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의 어느 누구도 미래의 잠재적인 장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1.2.4 언론에 비친 장애인에 대한 편향적 이미지

6 개 중앙일간지의 사회면과 오피니언면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 총 504 건을 수집하여 장애인 문제와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성수(2002:50)는 기사의 질적 균형에 있어서 지체장애(41.1%)와 시각장애(23.9%) 등 특정한 장애유형에 치중되어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특정 장애조차 기사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장애의 다양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장애에 대한 편협한 시각 및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김성수(2002)는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가 2000 년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모니터 분석 결과보고서(2001)에 따르면 중앙일간지의 장애 관련 보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관련 기사가 아직도 온정적인 경향이 많다. 신문의 기획·연재, 사설, 칼럼 등 이전보다는 많이 보도되었으나 양적인 면에서 너무나 적은 양이었다.

둘째, 사람 자체보다는 장애를 부각시키고 있다. 장애인의 행동이나 표정, 수행하는 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휠체어나 목발, 검은 안경, 수화하는 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손상된 부분을 강조하고 잔존능력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을 별개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있다. 어린이 집단에서 장애아동이 제외되고 체육인 집단에서 장애인 체육선수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 집단을 그 어느 곳에도 소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의 행동에 장애인을 비유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사전지식 없이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1995)에서는 ‘정부차원의 장애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교육(39.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언론에 비친 장애인의 이미지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



즉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장애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1.2.5 일본에서의 장애인 차별어 연구현황

여기에서 한국보다 먼저 차별어 순화문제에 착수한 일본의 장애인 차별어 연구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의 절정에 있었던 1960년대 말이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차별어에 관하여 이슈화되고 되어 온 것을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쳤던 ‘피노키오 논쟁’이 장애인 해방 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피노키오 논쟁’이란 일본 나고야시에 사는 한 시민이 동화 ‘피노키오’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피노키오’를 전부 회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출판사는 이를 거부하지만, 나고야시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동화 ‘피노키오’의 도서관 열람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반발한 도서관문제연구회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일본 사회전체로 논의가 확산되어 ‘장애인 해방’과 ‘반차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언어적 차별의 개선 노력의 하나로 ‘NHK 言い換え集’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모멸 언어로 다음의 표 1-2 와 같은 차별어를 제시하고 있다.

표 1-2 일본어의 장애인 차별어와 대안 표현

|             |               |
|-------------|---------------|
| めくら         | 視力障害者・目の不自由な人 |
| つんぼ         | 耳の不自由な人       |
| あきめくら       | 字の読めない人・文盲    |
| おし          | 口の不自由な人・聾者    |
| どもり         | 言語障害者・吃音      |
| びっこ・ちんば・いざり | 足の悪い人・足の不自由な人 |
| かたわ         | 身体障害者         |
| がちゃ目・ロンパリ   | 斜視            |

또한 일본에서의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여러 자료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대처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p.85 참고문헌 참조).

- (1) 차별어 규탄 운동 : 민중운동, 엘리트 운동

- (2) 규탄된 차별어 대신 한자 또는 가타카나 표기의 외국어로 바꿈(중립적, 객관적인 의미 전달)
- (3) 마스크 자체의 자주적인 규칙과 기본 방침을 정해서 ‘言い換え集’, ‘取り決め集’를 만들어 차별표현을 규제하는 계기를 만들
- (4) 법률에서 ‘불쾌용어’ 추방
- (5) 단어를 사용하는 필연성과 정당성을 주장하여 가능한 한 문장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6) 현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시대소설에서의 사용이나 고대문헌에서 인용할 경우는 주석이나 단문 등과 함께 사용할 것.
- (7) 일반인이 들을 때는 상관없지만, 장애인에 대해 사용할 때 차별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에 따라서 주의하여 사용할 것.

한편 NHK 교육 텔레비전, 1999 년에 방영된 청각장애인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에서 그 소녀가 주위로부터 ‘귀머거리’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회상하는 부분에서 ‘귀머거리’를 ‘귀가 잘 안 들리는 아이’라고 미디어가 자기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방송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단어만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면 차별표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여러 단체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일시적인 안이한 대처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차별성보다 먼저 일반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엔도(遠藤, 2003)에 제시된 (시각)장애인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다.

- (1) 언어 자체보다 차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말이 기분 좋게도 불쾌하게도 들릴 수 있다.
- (2) 차별어는 차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말이든 차별적인 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모두 차별 용어가 되는 것이다.
- (3) 차별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자체의 반영이며, 차별하는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락해방동맹 중앙본부 서기국이 1975 년 9 월에 발표한 ‘차별어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언어는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고 차별어는 차별사회가 만들어 내고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차별사회의 변혁과 인민의 의식의 변혁이 실현되어가는 가운데 차별어는 해소될 것이다. (중략) 차별어나 차별 비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규탄 항의를 한다. 단 차별어가 사용되었다고 규탄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 전체 속에서 그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고 차별을 조장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을 판단해서 실시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견지한다’

이러한 일본의 연구 성과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언어만을 바꾸어서 차별어가 없어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바꾸는 데에 급급하기보다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 과연 바뀐 언어가 장애인들의 차별적 의식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1.2.6 본 연구의 위치설정

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연구의 전체상을 개관하고 장애인 차별 언어에 대한 대중매체의 대응, 특히 일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이 장애인을 일컫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왔던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바꾼다고 해도 차별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장애인 차별어가 다른 형태로 특히 부정적인 비유적 표현으로 계속 쓰인다고 한다면, 장애인 차별어 문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회언어학적 조사 수법을 활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어 문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상대방 혹은 화제 속의 인물이 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인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차별어의 문제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순화 용어의 제안 및 사용 등 대책 마련이 되고 있으며 (전남대 조홍중 교수의 올바른 장애용어 <http://www.chohongjoong.com>),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홍보(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명칭 새로 만들기 운동 <http://www.mw.go.kr/>)와 언론 매체 등의 자정적인 노력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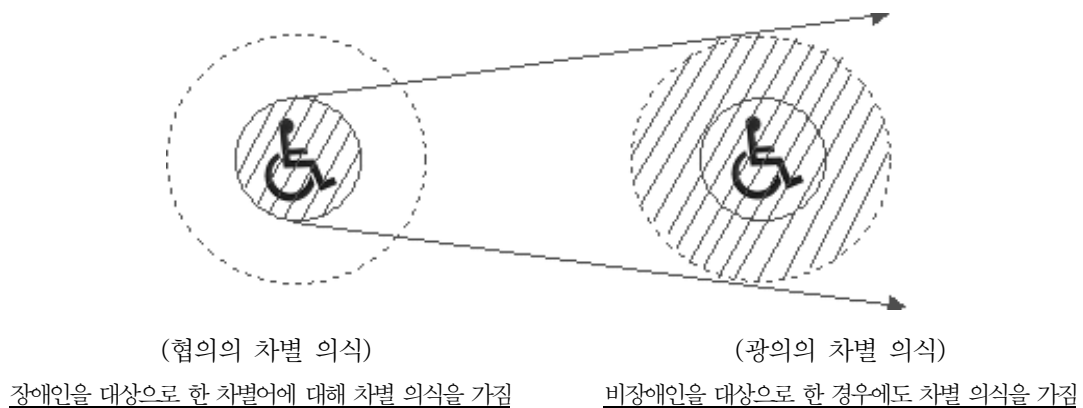
이에 비해 어떠한 사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장애인 차별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시된다. 가령 신문매체, 방송매체 등 공공언론에서 사회 문제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켜 ‘불구 정당’, ‘절름발이 외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론에서 쓰이고 있는 장애인 차별어가 다른 부정적인 대상에 견주어 비유적으로 사용한 실례를 추출하여 이들 표현에 대한 차별어로서의 인식 정도를 규명하고, 대중매체의 향유층인 20대 대학생, 40~50대 일반인들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어에 대한 의식차이 및 대안표현 선호도 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가설을 설정하였다.

- (a)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은 혐의의 차별 의식에서 광의의 차별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1-2 차별어에 대한 혐의의 차별 의식에서 광의의 차별 의식으로의 전환



- (b)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어가 부정적인 비유적 표현으로써 쓰이는 광의의 차별 의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은 부족하다.
- (c) 특히 언론매체의 광의의 차별 의식은 안이하며, 대안 표현에 대한 모색의 노력 없이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어 장애인 차별어 순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를 구체화하였다.

- (1) 선행연구의 장애인 차별적 언어 표현을 개관하고, 여기에 보충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 및 협회의 보고서 등에서 장애인 차별어 수집
- (2) 장애인 차별 언어에 관한 실태 조사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시점을 반영
- (3) 장애인 차별 언어에 관한 의식 조사 : 주된 대중매체의 향유층인 20 대 대학생, 40~50 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
- (4) 대안어 개발 : 장애인 차별적 언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 표현 제안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을 둘러싼 편견의 형성 및 그 원인,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대한 이론과 시대적 추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2.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및 해소 방안

오늘날 장애인은 세계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형성과 그 역사적 변화 과정 및 해소방안에 대해 개설하고자 한다.

#### 2.1.1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장애인들은 예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사회적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다. 장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인간 고유정보다는 장애 상태가 더욱 강조되고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즉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뿌리가 깊게 형성되어 온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져 고찰되어 왔다.

먼저 심리학적 측면에서 Siller(1976)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근본 원인을 7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1) 장애인과의 접촉이 현저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족, (2) 장애인과의 접촉이 적은 만큼 발생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의 결여, (3)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이 결여되면서 점차 사회 안에서의 일반화된 거부감, (4) 본인의 권위주의적 성향, (5) 장애인에 대한 추측에 의한 감정적 영향이 발생, (6) 장애와 불행을 동일시, (7) 장애인에게 전가되어 있는 기능적 한계,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이전의 경험, 혹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원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작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룬 Wright (1960)는 장애인들은 편견과 차별 및 고정관념의 희생자이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살고 있는 약소집단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열등한 지위에 놓여 주류 사회의 문화 행위조차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사회학적 이론에 의한 편견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 (1) ‘원인-결과 (cause - effect)’의 신념이다. 이것은 장애인은 죄를 지은 결과이므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불교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양에서도 인간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으

며, 구약성경의 부분적인 이해로 인해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2) ‘상이성(different and strange)’의 요인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근본적으로 내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인격도 나와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편견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3) ‘유아기의 경험(childhood experience)’의 요인이다. 이것은 상처나 질병에 대한 유아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에 대한 경멸이 지금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4)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의 요인이다. 사람의 사회 문화적인 신념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용성과 희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은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한다. 즉 장애인은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자원을 축내는 비생산적 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또한 Safilios-Rothschild (1970)는 장애인을 약소집단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인 자신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가들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의 성격이 이상하거나 외형적인 모습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장애인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오히려 그릇된 편견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실제로 언론이라는 정보에서 비쳐지는 장애인은 일정한 편향적 이미지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한 그릇된 편견이 유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익섭(1988)은 부정적인 장애인관의 특성을 밝힌 이론으로 상품이론(commodity theory), 편견이론(prejudice theory), 분리이론(isolation theory), 재활이론(rehabilitation theory), 정책부재이론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상품이론은 장애인들은 개인의 능력이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장애인을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소외되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편견이론은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장애인들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선입견에 의해 일반인들에 의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의 편견으로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

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불평등이 또다시 이해의 부족을 낳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분리이론은 장애인이 일반 세계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그들이 갖는 실망이 적고 장애인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주변 일들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느껴야 하는 고통이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가 상호간에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재활이론은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비장애인은 정상이고, 장애인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책부재이론은 장애인 복지가 타복지 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 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런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장애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기보다는 파악하였음에도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심리학적, 정책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편견이 형성되어 왔다.

## 2.1.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대적 변화 과정

장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각 시대,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당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어떻게 비쳐졌는지 살펴보고, 오늘날의 장애인의 편견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1) 고대국가

삼국사기 : 신라 유리왕 때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 없는 이, 늙은이 그리고 병든 이를 자활할 수 있도록 부양하게 하였다.

예기 5 권 : 고독환과(孤獨鰥寡)를 천민지궁이무고자(天民之躬而無告者)라 하여 나라에서 일정한 식료를 지급하고 장애가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재예(才藝)와 기술에 상응하는 직업을 주어 그에 따르는 보수를 주도록 하였다.

### (2) 고려시대

한국의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에 따라 흔히 산야에 버림을 받았거나 일부는 식충이라 하여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맹승이라는 계급이 있어서 길흉을 점복하였으며, 주술을 행하고 가뭄 때에는 임금의 명으로 기우제를 주관하였다. 고려 충렬왕 6년(1280년)의 기록에서 취맹승도우(聚盲僧禱雨)라 하여 이들의 임무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맹인들은 자섬부사(종 5 품)와 시위호군(종 4 품)의 벼슬도 받았다.

### (3)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어 복업이 명과학(命課學)으로 개칭이 되면서 잡학교육도 있었고,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음악관련 직업을 가졌다. 동서활인원은 조선시대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보호의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정조 7년(1783년)에 국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치는 기술과 그물 짜는 일과 같은 직업보도를 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장애인의 자활대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4) 1960년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가 전혀 없는 암흑기였다. 당시의 장애인에 대한 호칭으로 ‘불구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한편, 1966년 한국소아마비아동 특수보육협회가 설립되고, 1967년 소아마비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주목시켰다. 그러나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만 용인하는 수준이었다.

### (5) 1970년대

장애인식의 맹아적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장애라는 이유로 대학입시에 떨어진 장애인의 부모들과 장애인단체가 대학입학 제한조치에 대한 항의 쟁기대회를 열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입학제한 조치가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통수권자의 인도적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깔려 있었다.

### (6) 1980년대

장애인식의 전환기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장애관련 언론의 전성시대였다.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1982년부터 10년간을 ‘세계 장애인 10년’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인의 장애인식에 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이다.

### (7) 199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곰두리의 행진’이라는 장애관련 단원을 수록하여 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항목을 삽입하였다. 또한 서울방송(SBS)의 ‘사랑의 징검다리’, ‘장애인을 가족



처럼'이라는 캠페인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5 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이 주축이 되어 개설한 장애인 전용 방송도 등장하였다.

한편 장애인과 관련한 소문, 즉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은 사실은 장애인이 아니다' 혹은 '앵벌이의 배후에 폭력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호의적으로 전환되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차갑게 변하기도 했다.

## (8) 2000 년대

2000년대 이후는 장애인식의 변혁기로, 장애인 복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객체로 머물러 있던 장애인들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단계이다. 특히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장애를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반국민의 편견적 의식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안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 2.1.3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방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오랜 옛날부터 일반인들의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분리 거주하는 등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에 의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재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발표하고 있다. Thoreson & Kerr(1978), Allport(1954)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지식의 향상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들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교육하고, 계몽이 필요하다.

#### (2) 상호작용의 증진

장애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친밀감은 높아지고 거리감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치원 시기부터 장애인 아동과 비장애인 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3) 행동변화의 강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적인 조

처를 취하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경험하도록 봉사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 (4) 장애에 대한 재인식

장애란 누구나 직면할 수 있고, 또 직면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로 재인식을 시키는 것이다. 나에게도 장애인이 될 확률적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노인이 되면 누구나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현실로서의 수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해소방안은 장애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는 나와 나의 가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재인식의 정립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와 전문기관 측에서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 2.2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시대적 변화 과정

### 2.2.1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중요성

봉사나 장님이라는 말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호칭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이 변천을 거듭하고, 그러한 명칭(호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명칭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어떻게 일컫는가는 곧 그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도 직결된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정상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은 어감상의 불쾌감 때문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고정 관념과 감정적 측면에서의 편견,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즉 인권과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1981년 UN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일본 자료에 대한 번역어로서 ‘장애자’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는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심신이 의미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장애를 포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신을 빼고 장애자로 표기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자에서 놈 ‘자’를 대신하여 사람 ‘인’을 붙인 장애인으로 바꾸

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989 년부터 장애인이란 용어가 공식화 되었다.

## 2.2.2 장애인 관련 언어표현의 종류와 변천

여기에서는 이수성(2000)의 장애인과 관련한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이하, 장애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는 명칭부터 현재 명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애인 관련 명칭과 그 의미 및 기원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2.2.2.1 시각장애인

#### (1) 맹인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명칭이다. ‘맹인’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이다. 이 맹인은 직업에 따라 여러가지로 부르게 되었다. 맹인이 박수무당이면 맹석이라고 했고 승려이면 맹승, 점복을 하면 맹복이라고 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직을 갖고 있는 맹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맹관이라고 했다.

#### (2) 소경

소경은 고려 종사품 벼슬이다. 소경 벼슬을 받은 맹인을 소경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존칭이 빠지고 소경이 시각장애인을 뜻하게 되었다.

#### (3) 봉사

봉사는 조선시대 종팔품 관직 이름이다. 봉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상감의 음양과에 속하여 음양, 길흉, 점복의 명과학을 담당하는 맹인으로 이러한 맹인들을 봉사님이라고 부르던 것이 맹인의 일반적 명칭으로 변화된 것이다.

효녀 심청과 심봉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봉사란 명칭이 널리 보급되었고 그로 인하여 봉사란 단어가 저속한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 (4) 장님

조선 중기 이후 맹인들은 맹청을 설립하고 단체활동을 했다. 이 맹청에서 맹인들 사이에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 중 형으로 보기에 연령이 높고 아저씨로 보기에 연령이 낮은 순위 맹인을 긴 장(長)에 높임말인 님을 써서 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님은 맹청 내에서 존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무당의 장님타령 등으로 인해 경멸하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장님타령은 무당들이 맹인의 눈을 낮게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저속하여 장님이 비하하는 명칭이 되었다.

#### (5) 기타 명칭

그 밖에 고자, 판수, 당주라는 명칭도 있다. 고자는 맹인을 가르키는 말로 조선 초기에 등장한 명칭이다. 판수는 맹인 점목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당주는 나라의 기도를 맡아 보던 맹인으로 벼슬 명칭이다.

시각장애를 가르키는 명칭으로 한쪽 눈이 실명한 애꾸눈, 외눈박이, 오대박이가 있으며, 시력이 약한 사람을 반소경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시안의 경우 사팔뜨기나 사팔이라고 놀림말로 쓰인다.

#### 2.2.2.2 청각 및 언어장애인

고려시대 폐질이라는 질병 속에 청각장애가 포함되어 있었고 조선시대 세조실록에 보면 농아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정조 7 년에 불구 폐질자 범주에 병어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일제 강점기에 농아자라는 용어를 조선총독부 재생원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해방 이후에도 농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1977 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청각장애자라고 불렀고, 다시 1989 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청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머거리라고 하고 구개파열로 인한 언어장애인을 언청이라고 하는데 언청이를 놀리는 말로 언청샌님, 언청이를 얹잡아서 이르는 껌보라는 호칭이 있다.

#### 2.2.2.3 지체장애인

삼국시대에는 장애인을 병자와 마찬가지로 여겼고, 고려시대에는 다소 발전하여, 독질 속에 2 지 절단자, 폐질 속에 1 지를 못쓰는 사람과 난쟁이가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세조 3 년에 건벽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앓은뱅이이다. 그리고 정조 7 년 불구폐질자 속에 절름발이와 꼽추가 포함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불구라고 했으며, 그것을 비하하여 병신이라고 칭했다. 앓은뱅이, 반신불수 등으로 부르다가 지체부자유자,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인 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왔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온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나누어진다. 등뼈와 튀어나온 척추장애인을 가르키는 용어로 굽사등이, 굽사, 꼽추 등이 있다. 그리고 키가 몹시 작은 왜소증 장애인을 난쟁이라고 하고, 얹잡아서 일컫는 말로 땅딸보, 딸보, 땅개, 작다리 등이 있다.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팔이 비틀려 펴지 못하면 곱배팔이, 곱배팔, 곱배라고

하고, 한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은 외팔이, 외팔뚝이라고 하며, 팔이 굽혀지지 않으면 뽕팔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작은 손을 조막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다리를 절면서 걸으면 찌파, 절름발이, 절뚝발이, 절뚝이라고 하며, 다리가 휘어진 경우는 굽장다리, 안짱다리라고 하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으면 뽕장다리라고 한다. 또한 다리 한쪽이 없으면 외다리, 외딴다리 라고 부른다.

#### 2.2.2.4 지적장애인

고려시대의 폐질 속에 백치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 이외에 역사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가리키는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바보, 등신, 칠뜨기, 팔푼이, 팔삭동이, 열간이, 떨떨이 등이다. 저능아를 거쳐 정신박약자로 불리어지다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인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3월 이후 다시 지적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지적장애의 원인에 따라 그 명칭이 세분화되어, 몽고리즘(다운증후군), 정서장애인, 자폐아, 학습장애아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 2.2.2.5 기타 장애인

장애 유형에 따라 얼굴 모양이나 신체가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은 기형장애인이고, 뇌성마비, 척수손상, 척추측만, 절단, 근육병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으면 각각 뇌성마비인, 척수장애인, 척추장애인, 절단장애인, 근육병장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키가 몹시 작은 경우를 왜소증 장애인이라고 한다. 또한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이 교통사고이면 교통장애인이라고 하고, 산업재해이면 산재장애인이라고 일컫는다.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겹친 경우는 복합장애인,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며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선천성 장애인,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장애가 가벼우면 경증장애인, 장애가 심하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1급 장애인 ~ 6급 장애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외에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내부장애인(만성질환환자)도 있다.

### 2.3 법률에 나타난 사례

#### 2.3.1 개선된 사례

장애인 관련법들의 명칭도 거듭 변천해 왔다. 이하는 장애인 관련법의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장애인 관련 명칭이 개선되기 전의 법률상 내용은 표의 위에 나타냈고, 아래에는 명칭이 개선된 현행 법률을 나타내었다.

(1) 장애인복지법

|                             |                                                                                                                                                                                                                                                                                                       |
|-----------------------------|-------------------------------------------------------------------------------------------------------------------------------------------------------------------------------------------------------------------------------------------------------------------------------------------------------|
| 1981.6.5<br><u>심신장애자복지법</u> | 제 1 장 총칙<br>제 2 조(정의) “ <u>심신장애자</u> ”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 <u>심신장애</u> ”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2008.2.29<br><u>장애인복지법</u>  | 제 1 장 총칙<br>제 2 조( <u>장애인의</u>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br>②이 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br>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2) 기초 생활보장법

|                     |                                                                                                                                                                                                                                                    |
|---------------------|----------------------------------------------------------------------------------------------------------------------------------------------------------------------------------------------------------------------------------------------------|
| 1961.12.30<br>생활보호법 | 제 3 조(보호대상의 범위)<br>①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 한한다.<br>1. 연령 65 세 이상의 노쇠자<br>2. 연령 18 세 미만의 아동<br>3. 임산부<br>4. <u>불구</u> , 발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br>5. 기타보호기관이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
| ↓↓↓                 |                                                                                                                                                                                                                                                    |
| 1982.12.31<br>생활보호법 | 제 3 조(보호대상자의 범위)<br>①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1. 65 세 이상의 노쇠자<br>2. 18 세 미만의 아동<br>3. 임산부<br>4. 발병 또는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br>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
| ↓↓↓                |                                                                                                                                                                                                                                                                                                                                                                                                                       |
| 1997.8.22<br>생활보호법 | 제 3 조(보호대상자의 범위)<br>①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65 세 이상의 노쇠자<br>2. 18 세 미만의 아동<br>3. 임산부<br>4.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u>장애</u> 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br>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br>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

1999 년 9 월 7 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대체된 이후로 ‘장애’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의 표현만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3) 사회복지사업법

|                      |                                                                                                                                                                            |
|----------------------|----------------------------------------------------------------------------------------------------------------------------------------------------------------------------|
| 1983.5.21<br>사회복지사업법 | 제 2 조(정의)<br>①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산재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인보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u>나완치자</u>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
|----------------------|----------------------------------------------------------------------------------------------------------------------------------------------------------------------------|

|                              |                                                                                                                                                                                                                                                                                                                                                                                                       |
|------------------------------|-------------------------------------------------------------------------------------------------------------------------------------------------------------------------------------------------------------------------------------------------------------------------------------------------------------------------------------------------------------------------------------------------------|
|                              | <p>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 생활보호법</p> <p>2. 아동복지법</p> <p>3. 노인복지법</p> <p>4. <u>심신장애자</u>복지법</p> <p>5. 윤락행위 등 방지법</p>                                                                                                                                                                                                                                                                       |
| ↓↓↓                          |                                                                                                                                                                                                                                                                                                                                                                                                       |
| <p>1992.12.8<br/>사회복지사업법</p> | <p>제 2 조(정의)</p> <p>①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u>한센병력자</u>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p> <p>나. 아동복지법</p> <p>다. 노인복지법</p> <p>라. <u>장애인</u>복지법</p> <p>마. 한부모가족지원법</p> <p>바. 영유아보육법</p> <p>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후략)</p> |

### 2.3.2 개선되지 않은 사례

오늘날까지도 장애인 관련 명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법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불구자

현행 용어인 ‘장애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
|-----------------------------------------------------------------------------------------------------------------------------------------------------------|
| 형사소송법(2007.5.17)                                                                                                                                          |
| <p>제 471 조 (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



5. 직계존속이 연령 70 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2) 심신장애자

현행 용어인 ‘장애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형법(2005.7.29)

제 10 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신체장애자

현행 용어인 ‘장애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1987.10.29) (현행 헌법)

제 34 조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농아자

현행 용어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형법(2005.7.29)

제 11 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술선수범해야 할 것이며, 법률 등 공공문서에 실린 장애인 관련 명칭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제 3 장 실태조사의 디자인

여기에서는 실태조사에 이르는 차별어 선정 과정 및 조사 개요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조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 3.1 차별어 선정

차별어는 본 조사에서 다루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말하며, 단어와 속담 및 실제 언론매체를 통해 쓰여진 표현을 중심으로 단어형 20 항목, 문맥형 21 항목, 속담 및 표현형 11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인 KINDS 에서 상위에 있는 언어항목(표 3-1)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3.1.1 설문조사용 언어항목 선정 절차

본 연구팀에서는 포괄적 장애, 시각장애, 언어·청각장애,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때문에 차별성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지적 장애 등은 이번 연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 a.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005) ‘인터넷 매체 속의 장애인 이미지’의 모니터 용어 :

정상인, 장애인, 불구자,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 정신박약, 귀머거리

- b. 각종 자료에서 차별어 추출

\*조태린(2006)의 연구 성과 중 장애인에 관한 부분 (전체 22 개 항목)

■8 개 언어표현(별개어 수) : 귀머거리, 농아, 맹인, 병어리, 외눈박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무뇌아

■관용구 등 7 개 표현 : 꿀 먹은 병어리, 눈 먼 돈, 눈 먼 횡포, 병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외눈박이의 시각, 외눈박이 방송, 절름발이 인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http://www.freeget.net/>): 곰배팔이, 또라이, 똥뽕아, 맹자, 멍청아, 미친놈, 반신불구, 배넛병신, 애꾸, 육손이,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자폐, 조막손, 지랄병, 찢뜯이, 폐질자, 그는 장애인이야, 너 (청각) 장애인이야?,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 귀가 먹었어, 눈썹이 멀다, 불구 정당, 병신 육갑 떴다, 지랄한다

- c.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인 KINDS(<http://www.kinds.or.kr/>)에서 2006 년 10 월부터 2008 년 7 월말까지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상위에 랭크된 것 (2006 년 10 월은 조태린(2006)에서 신문분야 조사가 9 월 30 일까지 대상으로 한 것을 이어받은 것임)

표 3-1 KINDS 에서 상위에 있는 언어항목(최종 선정 항목)

|          | 장애인 용어  | 대략적인 수 | 속담 및 표현           |
|----------|---------|--------|-------------------|
| 장애인      | 정상인     | 808    | 병신 육갑 떠다          |
|          | 장애자     | 455    | 장애에도 불구하고         |
|          | 장애우     | 1440   | 정상인 못지않게          |
|          | 병신      | 274    |                   |
|          | 정신박약    | 24     |                   |
|          | 저능아     | 38     |                   |
|          | 무뇌아     | 49     |                   |
| 시각장애인    | 장님      | 67     | 눈 뜬 장님            |
|          | 맹인      | 288    | 장님 코끼리 만지기        |
|          | 외눈박이    | 110    |                   |
|          | 애꾸(눈)   | 48     |                   |
|          | 사팔뜨기    | 23     |                   |
| 언어·청각장애인 | 병어리     | 464    | 병어리 냉가슴 앓다        |
|          | 귀머거리    | 85     | 꿀 먹은 병어리          |
|          | 언청이     | 97     |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
|          | 농아(인/자) | 216    |                   |
| 지체장애인    | 불구자     | 400    | 불구가 되다            |
|          | 절름발이    | 195    | 절름발이 내각/절름발이 지성인  |
|          | 난쟁이     | 321    |                   |
|          | 얕은뱅이    | 195    |                   |

d. 독립적 단어형 항목 최종 선정(20 문항)

정상인, 장애자, 장애우, 병신, 정신박약, 저능아, 무뇌아, 장님,  
맹인, 외눈박이, 애꾸(눈), 사팔뜨기, 병어리, 귀머거리, 언청이,  
농아(인/자), 불구자, 절름발이, 난쟁이, 얕은뱅이

e. 문맥 속 단어형 항목 최종 선정(21 문항): 독립적 단어형 항목과 동일하나, 병어리 항목에  
대한 문맥형 문항수를 2 문항으로 함으로써 21 문항이 됨.

f. 속담 및 표현형 선정(11 항목)

병신 육갑 떠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에 못지않게,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병어리 냉가슴 앓다, 꿀 먹은 병어리,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불구가 되다, 절름발이 내각, 절름발이 지성인

g. 각종 자료에서 차별적 언어표현의 대안 표현을 추출

h. 이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표에 배열

### 3.1.2 설문조사표의 구성

조사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비장애인 설문조사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사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의 실시 후 대안 표현 등에 관한 장애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예비 설문지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2008년 10월 9일(목)에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수정하고, 2008년 10월 29일에 열린 국립국어원의 중간평가에서 조언을 얻어 최종적으로 설문지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별첨 부록2. 참조).

설문조사표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매스컴에 관한 질문 :

각종 매스컴 별(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로 나누어 각각의 접촉 정도와 매스컴의 언어표현에 대한 장애인 배려 정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형 항목

(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에 관한 질문<sup>1</sup> :

장애의 정도, 장애의 원인, 장애의 불편 정도, 일반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와 그에 대한 감상 등에 대한 선택형 항목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관한 질문 :

장애인과와의 접촉 정도, 장애인을 도운 경험 여부와 그에 대한 감상 등의 선택형 항목

(4) 차별어에 대한 평가 :

장애인 차별어에 대해 차별의 정도를 평가하는 독립적 단어형, 문맥 속 단어형, 속담 및 표현형 항목

(i) 독립적 단어형 : 차별어 20 항목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4 지선다의 선택형 항목

(ii) 문맥 속 단어형 :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인 KINDS 에서 차별어 20 항목이 쓰인 신문 기사를 추출하여 기사문과 함께 제시하고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5 단계 선택형 항목

(iii) 속담 및 표현형 : 속담 및 표현형 11 항목에 대해 문맥형과 같은 방식을 취한 항목

(5) 차별어에 대한 대안 표현 :

독립적 단어형과 문맥 속 단어형에서 차별어로 인식하는 경우 적절한 대안 표현을 선별하는 항목

---

<sup>1</sup> 본 조사는 실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실시되었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에 관한 질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1.3 설문조사의 실시 과정

설문조사는 대학교수와 대학생에게 조사를 의뢰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는 설문지 조사표 3부를 배부하여 본인 및 부모님의 설문지 작성을 의뢰한 다음 3일~1주일 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지는 표 3-2 과 같으며, 조사표 회수에 응해 준 조사 대상자는 표 3-3 과 같다.

표3-2 설문조사

|       |                                                            |
|-------|------------------------------------------------------------|
| 조사기간  | 2008 년 11 월 25 일(수) ~ 12 월 15 일                            |
| 조 사 자 | 연구책임자 임영철 / 공동연구원 이길용 / 연구보조원 윤사연, 황혜선<br>기타 박양순, 김종완, 김인우 |
| 조 사 지 | C 대학교, S 여자대학교, Y 대학교                                      |

표3-3 조사 대상자

| 구분     | 대학생 (평균 만21세) | 일반인 (평균 만 50세)               |         |
|--------|---------------|------------------------------|---------|
|        |               | 대학 교수                        | 대학생 학부모 |
| 조사대상자수 | 247명          | 111명 (대학 교수 25명/대학생 학부모 86명) |         |
| 합계     |               | 358명                         |         |

조사 대상자 대학생 중 한 명이 장애인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교수와 대학생 학부모는 이들 조사자수를 합친 111명을 일반인 조사대상자로 한다.

### 3.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인터뷰조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앞서 장애인 의견 수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에서는 우선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기초 설문 조사를 한 후 후반부에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장애인 차별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조사는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 및 조사상황 등은 아래 표 3-4 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3-4 인터뷰조사 내용

| 제 1 차 인터뷰조사 |                                                                                                                                                                                     |
|-------------|-------------------------------------------------------------------------------------------------------------------------------------------------------------------------------------|
| 조사기간        | 2008. 10. 1(수)                                                                                                                                                                      |
| 조 사 자       | 공동연구원 이길용 / 연구보조원-윤사연, 황혜선, 김인우 (총 4 명)                                                                                                                                             |
| 조 사 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복지관’                                                                                                                                                                 |
| 조사인원        | 7 명                                                                                                                                                                                 |
| 조사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 그룹으로 나뉘서 개별 인터뷰조사를 실시 (A 그룹:2 명, B 그룹:2 명, C 그룹:3 명)</li> <li>- A, B 그룹은 조사정황 녹음함 / C 그룹은 녹음하지 않음</li> <li>- 총 1 시간 3 분 정도 소요</li> </ul> |

제 2 차 인터뷰조사

|       |                                                                                                                                                                                                              |
|-------|--------------------------------------------------------------------------------------------------------------------------------------------------------------------------------------------------------------|
| 조사기간  | 2008. 10. 3(금) ~ 2008. 10. 4(토)                                                                                                                                                                              |
| 조 사 자 | 공동연구원 이길용 / 연구보조원-윤사연, 황혜선, 김인우 (총 4 명)                                                                                                                                                                      |
| 조 사 지 | 경기도 가평군 ‘○○○○’                                                                                                                                                                                               |
| 조사인원  | 2 명                                                                                                                                                                                                          |
| 조사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녀님, ○○수녀님 인터뷰</li> <li>- 조사정황 녹음함</li> <li>- 총 1 시간 10 분 정도 소요</li> <li>- 차별어 관련 인터뷰 외에도 수녀님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의식과 개선해야 할 점, 경험, 한국의 장애인 의식 변화 시점 등에 대하여 담화</li> </ul> |

사진 3-1 ○○복지관 조사 장면



사진 3-2 ○○○○ 조사 장면



이 인터뷰조사는 직접 장애인에게 언어적 차별에 관한 의견을 듣는 것 자체에 조사 목적을 두었으나, 조사 내용은 설문조사의 예비조사로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보충해야 할 사항들을 설문지 조사에 반영, 개선하였다.

### 3.3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평가 및 언론매체에 통해 언급된 장애인 차별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 차별어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무분별적인 장애인 차별어의 사용이 지적된 사례가 있을 뿐(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2006), 언론매체에 언급된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개별적인 의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 및 분석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조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나,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조사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차별어에 대한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조사 내용에서 다룬 장애인 차별어는 단어형(20개 항목), 문맥형(21개 항목), 속담 및 표현형(11항목)으로 장애인 차별어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다.

셋째, 언론매체 특히 문자를 통한 장애인 차별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이므로 방송매체 등 다른 언론매체와 일상 언어에서 쓰이는 장애인 차별어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 제2부 장애인 차별어의 실태

### 제 4 장 이미지 속 장애인과 장애인 배려의식

#### 4.1 장애인 이미지

비장애인(일반인)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장애인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 [C-1“귀하는 ‘장애인’하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을 떠올리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제 3 순위까지 복수응답을 받았다. 질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의 종류’를 표 4-1 장애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기입한 데이터에는 장애인 표현이 다양하게 기입되어 있었는데, 분석 시에는 편의상 표 4-1 장애 분류표의 소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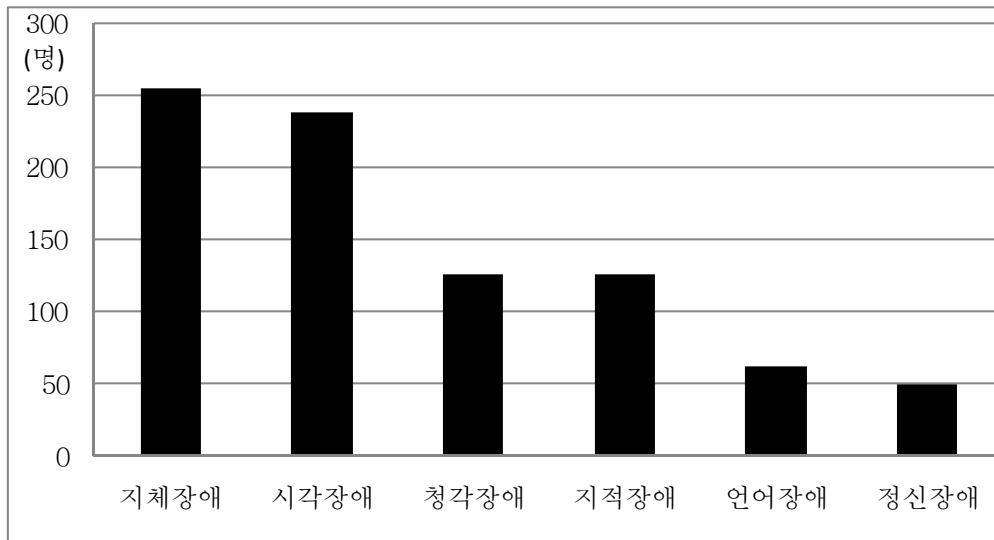
표 4-1 장애 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
| 신체적<br>장애 | 외부 신체<br>기능의<br>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br>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br>장애 | 지적장애               |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정신장애               |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 자폐성장애              |         |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애인 이미지의 순위는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은 응답 자료의 제 1 순위에서 제 3 순위까지를 통합한 것이다.

그림 4-1 장애인 이미지



장애인의 이미지는 제 1 순위가 지체장애인(256 명), 제 2 순위가 시각장애인(239 명), 제 3 순위가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126 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비장애인(일반인)들은 장애인의 이미지 판단을 외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인들에게 장애로 인지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었다. 이 장애들은 표 4-1 장애 분류표에서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된 항목들인데,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등으로 이러한 장애를 거론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비장애인(일반인)들이 내부적인 질환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장애의 종류에 대한 조사항목은 자유 기입식으로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장애 종류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분석에서는 표 4-1 장애 분류표상의 용어로 대치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비장애인(일반인)들의 장애인 관련 용어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표 4-2 응답자의 실제 사용표현

| 현행 장애인 용어 | 실제 사용표현                               |
|-----------|---------------------------------------|
| 지체장애인     | 불구자, 신체불구자, 전신마비, 신체 한 부위가 없거나 불편한 사람 |
| 시각장애인     | 봉사, 장님, 맹인, 보이지 않는 사람                 |
| 기 타       | 자폐아, 정박아, 정신박약,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성격장애     |

표 4-2를 통해 현행 장애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불구자’, ‘미숙아’, ‘신체불구’, ‘치매’, ‘장님’, ‘맹인’과 같은 표현들이다. 또한 ‘저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빈곤’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 나타낸 표현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본 조사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적인 언어 사용은 좋지 않다’고 느끼고(C-15 조사항목), ‘표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C-16 조사항목) 실제로는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장애인에 대한 용어들이 비장애인(일반인)들에게 아직 인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4.2 에서 매스컴의 공공언어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의식을 알아보고, §4.3 에서 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언어순화 의식에 대하여 정리할 것이다.

## 4.2 매스컴 공공언어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의식

여기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컴의 공공언어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컴의 각 장르별 (본 절의 표 4-3~표 4-6 을 참조) 장애인 배려 정도를 다음의 5 단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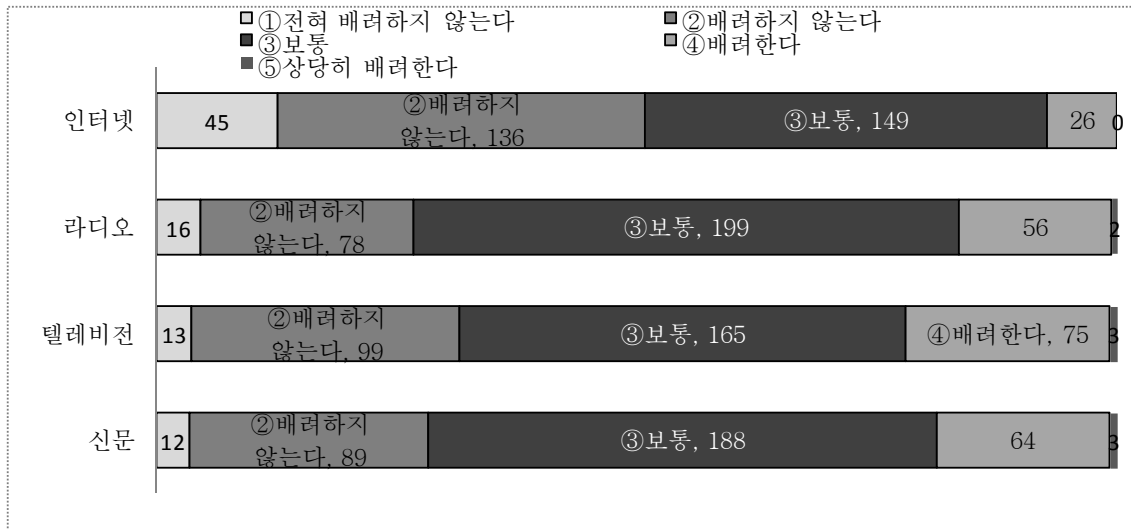
- ①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 ② 배려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배려한다
- ⑤ 상당히 배려한다

이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각 매스컴 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 4.2.1 매체별 배려 정도 비교

각 매스컴에서의 배려 정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그림4-2이다.

그림4-2 매체별 배려 정도 비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배려 정도를 분석해 보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에서는 배려 정도가 ③‘보통’이라는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인터넷에서도 배려 정도가 ③‘보통’이라는 사람이 14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②‘배려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136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에서 비장애인(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매스컴에서 어느 정도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약간의 차별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에서 ②‘배려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중이 ④‘배려한다’는 사람의 비중보다 높았다. 즉, 인터넷에서는 그 차별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터넷에서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배려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이하 각 매스컴에서의 배려 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 4.2.2 신문에서의 배려 정도

다음의 표4-3과 그림4-3은 신문에서의 배려 정도와 신문 지면별의 배려 정도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4-3 신문에서의 배려 정도

|           |    | 1    | 2    | 3    | 4    | 5   | N   | 합계  |
|-----------|----|------|------|------|------|-----|-----|-----|
| 정치·경제     | 실수 | 2    | 18   | 35   | 32   | 3   | -   | 90  |
|           | %  | 2.2  | 20.0 | 38.9 | 35.6 | 3.3 |     |     |
| 사회        | 실수 | 1    | 27   | 42   | 9    | -   | 2   | 81  |
|           | %  | 1.2  | 33.3 | 51.9 | 11.1 |     | 2.5 |     |
| 스포츠       | 실수 | 1    | 10   | 16   | 6    | -   | -   | 33  |
|           | %  | 3.0  | 30.3 | 48.5 | 18.2 |     |     |     |
| 문화·방송·연예  | 실수 | 1    | 22   | 62   | 10   | -   | -   | 95  |
|           | %  | 1.1  | 23.2 | 65.3 | 10.5 |     |     |     |
| 거의 보지 않는다 | 실수 | 5    | 6    | 20   | 3    | -   | -   | 34  |
|           | %  | 14.7 | 17.6 | 58.8 | 8.8  |     |     |     |
| 기타        | 실수 | 2    | 6    | 13   | 4    | -   | -   | 25  |
|           | %  | 8.0  | 24.0 | 52.0 | 16.0 |     |     |     |
| 합계        | 실수 | 12   | 89   | 188  | 64   | 3   | 2   | 358 |
|           | %  | 3.4  | 24.9 | 52.5 | 17.9 | 0.8 | 0.6 |     |

그림4-3 신문 지면별 배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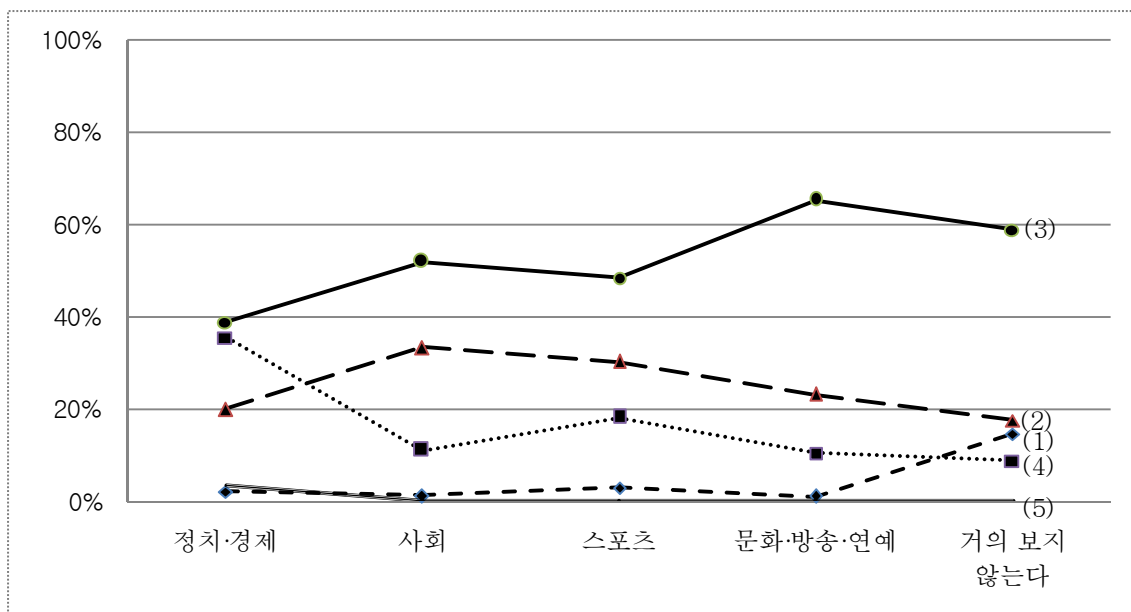


표4-3을 보면 전체적으로 ③‘보통’이 52.5%, ②‘배려하지 않는다’가 2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면, 스포츠면, 문화·방송·연예 면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경제면을 자주 본다고 응답한 사람은 ③‘보통’이 38.9%, ④‘배려한다’가 35.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정치·경제면에서는 장애인이 등장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과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일지라도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①‘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14.7%). 이는 비장애인(일반인)들의 이미지 속에 신문이라는 미디어는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스테레오 타입적 인식이 존재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 4.2.3 텔레비전에서의 배려 정도

다음은 텔레비전 각 장르의 배려 정도를 표4-4와 그림4-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4-4 텔레비전에서의 배려 정도

|              |    | 1   | 2    | 3    | 4    | 5   | N   | 합계  |
|--------------|----|-----|------|------|------|-----|-----|-----|
| 뉴스·시사<br>관련  | 실수 | 2   | 17   | 27   | 27   | 2   | 1   | 76  |
|              | %  | 2.6 | 22.4 | 35.5 | 35.5 | 2.6 | 1.3 |     |
| 다큐멘터리        | 실수 | 1   | 7    | 17   | 5    | -   | -   | 30  |
|              | %  | 3.3 | 23.3 | 56.7 | 16.7 |     |     |     |
| 스포츠          | 실수 | -   | 2    | 9    | 3    | -   | -   | 14  |
|              | %  |     | 14.3 | 64.3 | 21.4 |     |     |     |
| 연예·오락·<br>노래 | 실수 | 4   | 39   | 48   | 19   | 1   | -   | 111 |
|              | %  | 3.6 | 35.1 | 43.2 | 17.1 | 0.9 |     |     |
| 드라마          | 실수 | 1   | 10   | 34   | 8    | -   | -   | 53  |
|              | %  | 1.9 | 18.9 | 64.2 | 15.1 |     |     |     |
| 거의 보지<br>않는다 | 실수 | 3   | 17   | 15   | 5    | -   | -   | 40  |
|              | %  | 7.5 | 42.5 | 37.5 | 12.5 |     |     |     |
| 기타           | 실수 | 2   | 7    | 15   | 8    | -   | 2   | 34  |
|              | %  | 5.9 | 20.6 | 44.1 | 23.5 |     | 5.9 |     |
| 합계           | 실수 | 13  | 99   | 165  | 75   | 3   | 3   | 358 |
|              | %  | 3.6 | 27.7 | 46.1 | 20.9 | 0.8 | 0.8 |     |

그림4-4 텔레비전 프로그램별 배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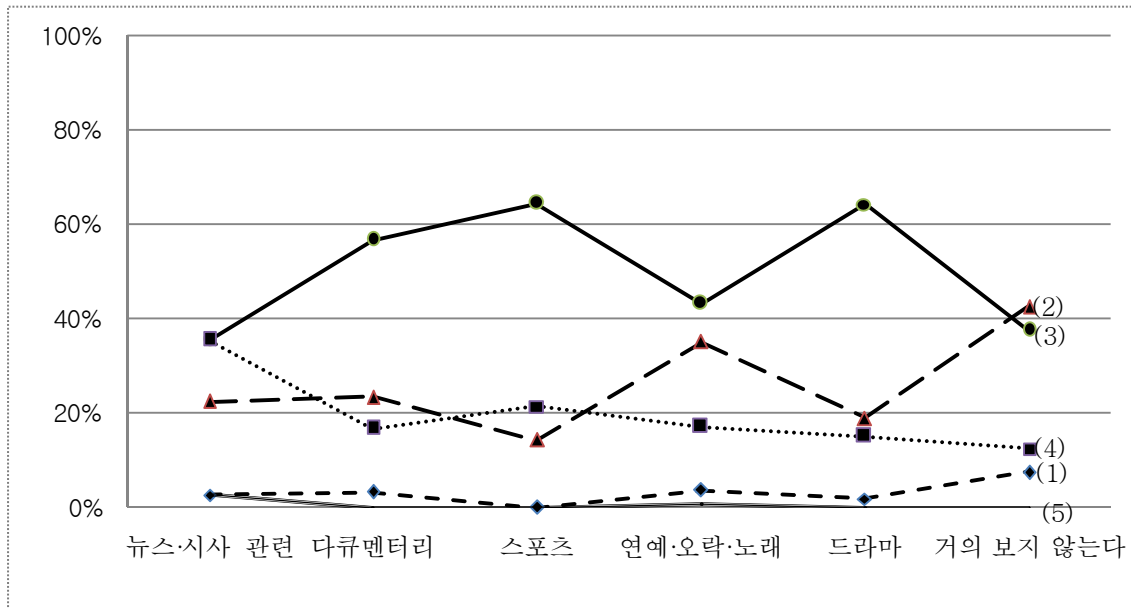


표4-4의 결과를 보면, 텔레비전 방송 역시 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③‘보통’이 46.1%, ②‘배려하지 않는다’가 27.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별로 나누어 보면, 뉴스·시사 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배려 정도는 ④‘배려한다’가 35.5%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예·오락·노래 프로그램에서의 배려 정도는 ②‘배려하지 않는다’가 35.1%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점은 그림4-3의 연예·오락·노래 프로그램에서 ③‘보통’(43.2%)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결과는 신문의 경우와도 비슷하나,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①‘전혀 배려하지 않는다’(7.5%)와 ②‘배려하지 않는다’(42.5%)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은 역시 비장애인(일반인)들의 이미지 속에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도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스테레오 타입적 인식의 존재를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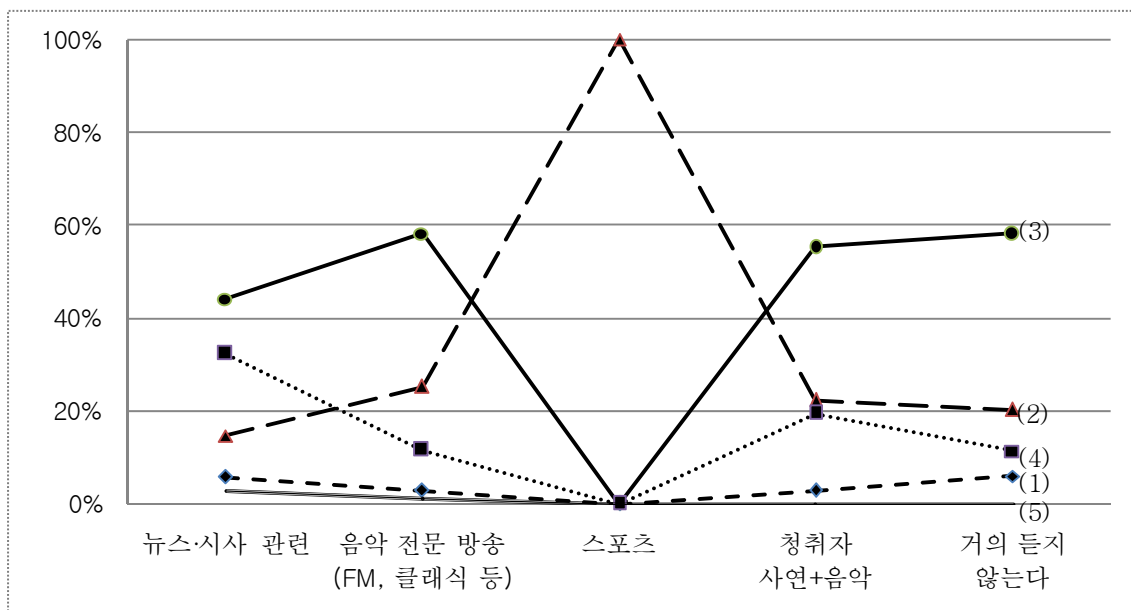
#### 4.2.4 라디오에서의 배려 정도

다음 표4-5 및 그림4-5는 라디오에서의 배려 정도와 라디오 방송별 배려 정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4-5 라디오에서의 배려 정도

|                            |    | 1   | 2    | 3    | 4    | 5   | N   | 합계  |
|----------------------------|----|-----|------|------|------|-----|-----|-----|
| 뉴스·시사<br>관련                | 실수 | 2   | 5    | 15   | 11   | 1   | -   | 34  |
|                            | %  | 5.9 | 14.7 | 44.1 | 32.4 | 2.9 |     |     |
| 음악 전문<br>방송 (FM,<br>클래식 등) | 실수 | 3   | 26   | 60   | 12   | 1   | 1   | 103 |
|                            | %  | 2.9 | 25.2 | 58.3 | 11.7 | 1.0 | 1.0 |     |
| 스포츠                        | 실수 | -   | 1    | -    | -    | -   | -   | 1   |
|                            | %  |     | 100  |      |      |     |     |     |
| 청취자<br>사연+ 음악              | 실수 | 2   | 15   | 37   | 13   | -   | -   | 67  |
|                            | %  | 3.0 | 22.4 | 55.2 | 19.4 |     |     |     |
| 거의 듣지<br>않는다               | 실수 | 9   | 30   | 86   | 17   | -   | 6   | 148 |
|                            | %  | 6.1 | 20.3 | 58.1 | 11.5 |     | 4.1 |     |
| 기타                         | 실수 | -   | 1    | 1    | 3    | -   | -   | 5   |
|                            | %  |     | 20.0 | 20.0 | 60.0 |     |     |     |
| 합계                         | 실수 | 16  | 78   | 199  | 56   | 2   | 7   | 358 |
|                            | %  | 4.5 | 21.8 | 55.6 | 15.6 | 0.6 | 2.0 |     |

그림4-5 라디오 방송별 배려 정도



라디오 역시 전체적으로 ③‘보통(55.6%)’ 정도 배려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라디오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보면, 뉴스·시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④‘배려한다(32.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4-5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②‘배려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처럼 보이거나 라디오로 스포츠를 청취한다는 사람이 1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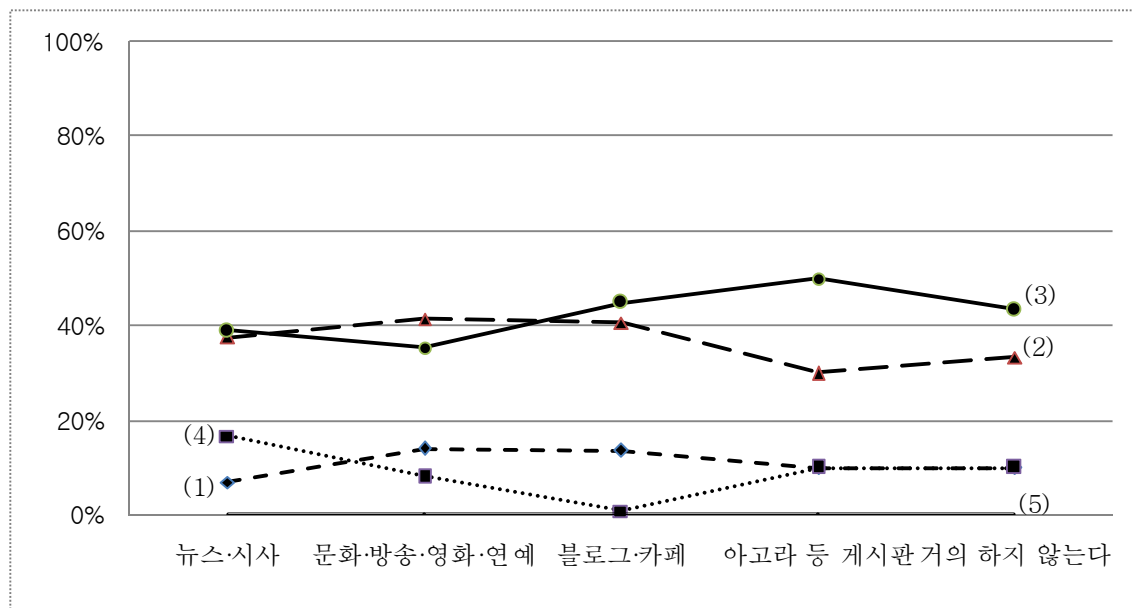
#### 4.2.5 인터넷에서의 배려 정도

다음 표4-6 및 그림4-6은 인터넷에서의 각 장르별 배려 정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4-6 인터넷에서의 배려 정도

|             |    | 1    | 2    | 3    | 4    | 5 | N   | 합계  |
|-------------|----|------|------|------|------|---|-----|-----|
| 뉴스·시사       | 실수 | 5    | 27   | 28   | 12   | - | -   | 72  |
|             | %  | 6.9  | 37.5 | 38.9 | 16.7 |   |     |     |
| 문화·방송·영화·연예 | 실수 | 14   | 41   | 35   | 8    | - | 1   | 99  |
|             | %  | 14.1 | 41.4 | 35.4 | 8.1  |   | 1.0 |     |
| 블로그·카페      | 실수 | 16   | 48   | 53   | 1    | - | -   | 118 |
|             | %  | 13.6 | 40.7 | 44.9 | 0.8  |   |     |     |
| 아고라 등 게시판   | 실수 | 1    | 3    | 5    | 1    | - | -   | 10  |
|             | %  | 10.0 | 30.0 | 50.0 | 10.0 |   |     |     |
| 거의 하지 않는다   | 실수 | 3    | 10   | 13   | 3    | - | 1   | 30  |
|             | %  | 10.0 | 33.3 | 43.3 | 10.0 |   | 3.3 |     |
| 기타          | 실수 | 6    | 7    | 15   | 1    | - | -   | 29  |
|             | %  | 20.7 | 24.1 | 51.7 | 3.4  |   |     |     |
| 합계          | 실수 | 45   | 136  | 149  | 26   | - | 2   | 358 |
|             | %  | 12.6 | 38.0 | 41.6 | 7.3  |   | 0.6 |     |

그림4-6 인터넷 사이트별 배려 정도





인터넷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와는 달리 ③‘보통’과 ②‘배려하지 않는다’의 정도의 차이가 적다. 또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 보면 ①‘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인터넷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인 배려 정도는 다른 미디어보다 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문화·방송·영화·연예는 ③‘보통(35.4%)’ 보다 ②‘배려하지 않는다(41.4%)’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영화나 연예와 관련된 보도 등에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언어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또 배우나 연예인들에게 장애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차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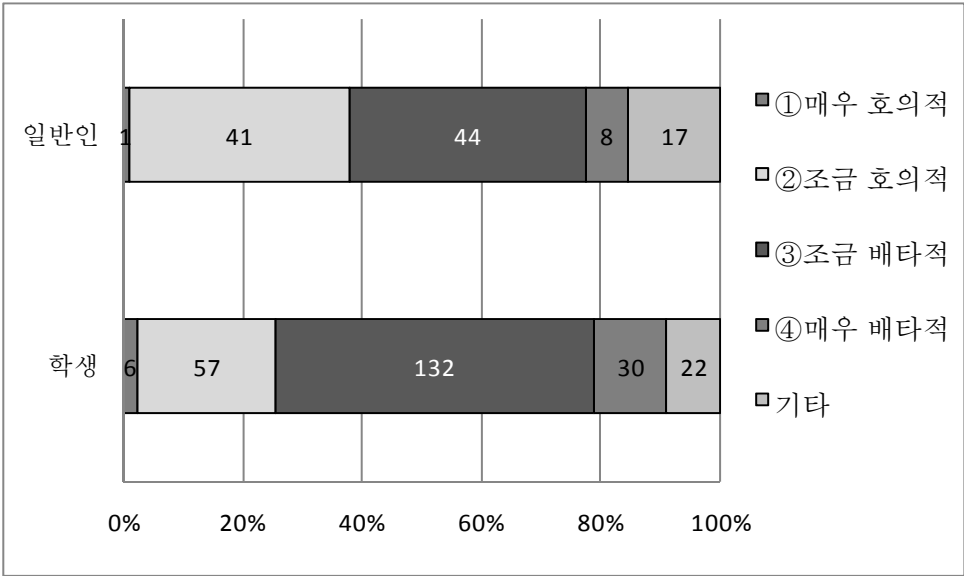
①‘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문화·방송·영화·연예’ 뿐만 아니라 ‘블로그·카페’, ‘아고라 등 게시판’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의적인 댓글’로 대표되는 네티즌 간의 의견 대립 등에서 장애 관련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언어 순화 및 장애인 배려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3 비장애인의 태도 및 언어 순화의식

#### 4.3.1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여기에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언어순화 의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7은 설문지조사 중 [C-13 귀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조사항목에 대하여 ①매우 호의적이다, ②조금 호의적이다, ③조금 배타적이다, ④매우 배타적이다 이라는 4단계로 판단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4-7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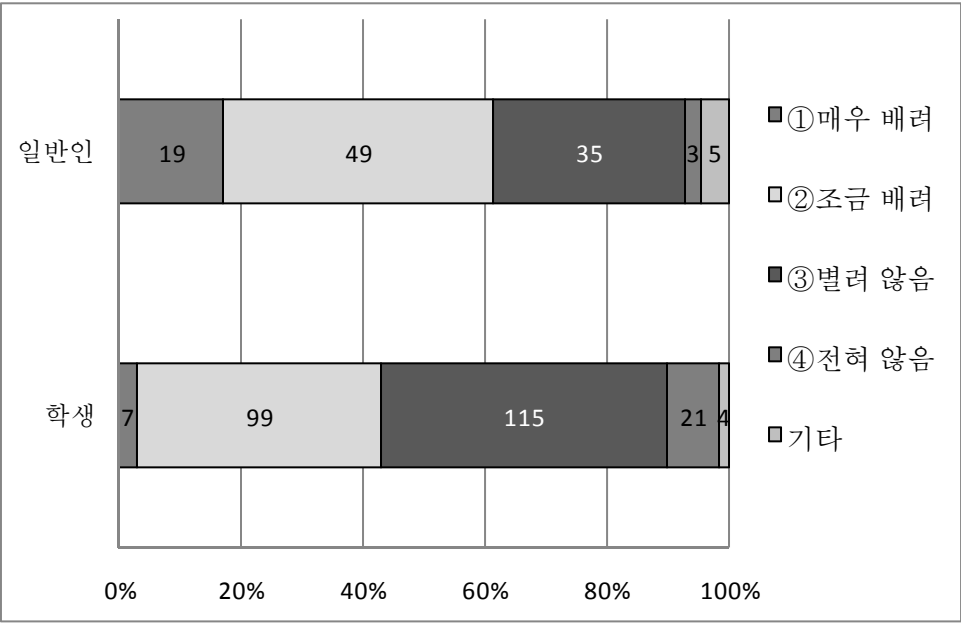


먼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 보면, 일반인과 학생 모두 호의적인 태도에 비해 배타적인 태도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이 강했는데, ③‘조금 배타적이다’가 53.7%, ②‘조금 호의적이다’가 23.2%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인들은 ③‘조금 배타적이다’가 39.6%, ②‘조금 호의적이다’가 36.9%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태도가 차별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2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어적 배려

다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어적 배려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4-8은 설문지조사의 조사항목 [C-14 귀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①‘매우 배려한다’, ②‘조금 배려한다’, ③‘별로 배려하지 않는다’, ④‘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4-8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언어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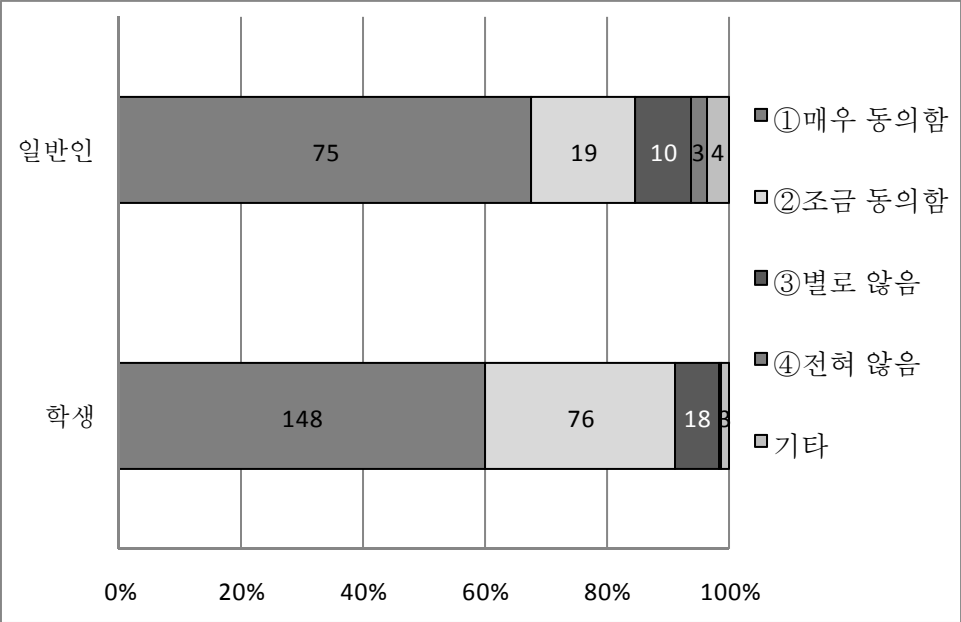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언어적 배려 정도를 나타낸 그림4-8을 살펴보면, 일반인은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장애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 ①‘매우 배려한다(17.1%)’, ②‘조금 배려한다(44.1%)’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①, ②의 ‘배려한다’는 쪽의 의견(43%)보다 ③‘별로 배려하지 않는다(46.7%)’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비장애인의 언어적 행위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4.2.5에서 고찰했듯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언어문화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4.3.3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 그림4-9는 조사항목 [C-15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로 ①‘매우 동의한다’, ②‘조금 동의한다’, ③‘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4-9 차별적인 언어 사용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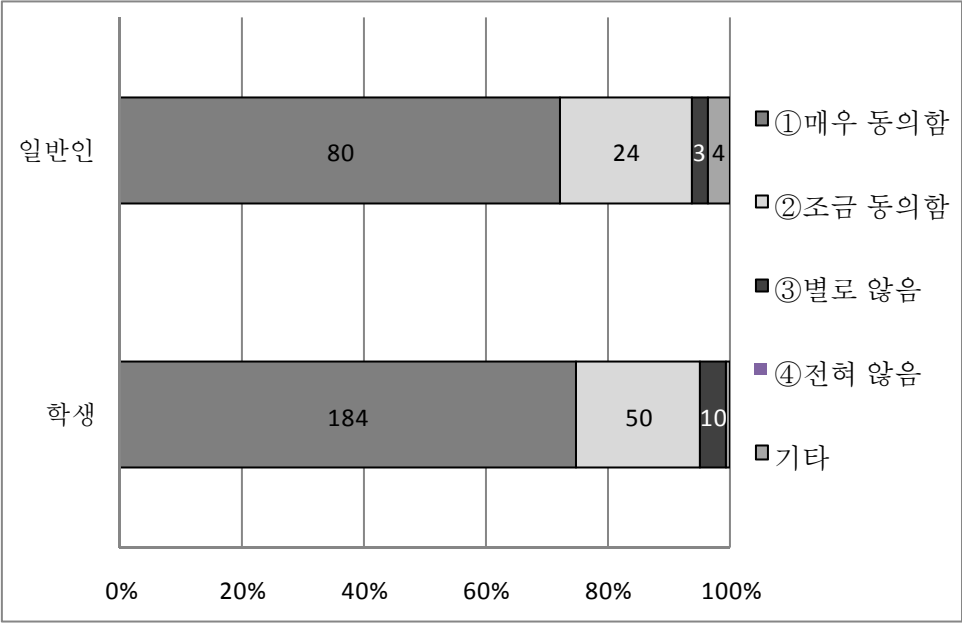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일반인과 학생 모두 ①‘매우 동의한다’거나 ②‘조금 동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85%를 넘는다. 위의 §4.3.2에서 알 수 있듯이 비장애인들이 언어적 배려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으나, 언어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학생들 중, ②‘조금 동의한다’에 대한 응답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한 답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 4.3.4 언어표현과 의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은 [C-16 “다음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적인 언어를 순화한다고

해도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문제이다. 표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①‘매우 동의한다’, ②‘조금 동의한다’, ③‘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4-10 언어표현과 의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언어표현과 의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반인과 학생 모두 ①‘매우 동의한다’거나 ②‘조금 동의한다’에 대한 응답이 93%가 넘는다. 이 의견에 대하여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무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어에 대해서 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 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5 장 장애인 차별어 평가의식

### 5.1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관한 의식

본 절에서는 비장애인(일반인)의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적 단어형’이란 구체적인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단어형 차별어를 말한다. 먼저 비장애인(일반인)의 독립적 단어형에 대한 차별성 의식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 5.1.1 전체적인 경향

20개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대한 차별성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는 표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차별성은 4단계 스케일로 측정된 것이며, 4가 차별성이 높고, 1이 차별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표5-1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의 차별성 정도

|       | 전체   | 학생   | 일반인  |
|-------|------|------|------|
| 병신    | 3.68 | 3.69 | 3.66 |
| 저능아   | 3.53 | 3.59 | 3.40 |
| 애꾸눈   | 3.47 | 3.49 | 3.43 |
| 무너아   | 3.34 | 3.44 | 3.12 |
| 얇은뺨이  | 3.33 | 3.34 | 3.31 |
| 불구자   | 3.32 | 3.35 | 3.24 |
| 난쟁이   | 3.16 | 3.14 | 3.21 |
| 귀머거리  | 3.16 | 3.18 | 3.11 |
| 절름발이  | 3.16 | 3.14 | 3.22 |
| 외눈박이  | 3.12 | 3.07 | 3.26 |
| 사팔뜨기  | 3.11 | 3.11 | 3.14 |
| 병어리   | 3.10 | 3.08 | 3.14 |
| 언청이   | 3.08 | 3.12 | 2.99 |
| 정신박약자 | 3.07 | 3.05 | 3.12 |
| 장님    | 2.97 | 2.93 | 3.07 |
| 장애자   | 2.85 | 2.98 | 2.54 |
| 농아인   | 2.83 | 2.82 | 2.84 |
| 정상인   | 2.76 | 2.85 | 2.54 |

|     |      |      |      |
|-----|------|------|------|
| 맹인  | 2.52 | 2.47 | 2.66 |
| 장애우 | 2.34 | 2.33 | 2.38 |

표5-1에서 알 수 있듯이, 20개 단어에서 차별성이 가장 강한 것이 병신(3.68)이고, 다음으로 ‘저능아’(3.53), ‘애꾸눈’(3.47) 순이다. 한편 ‘장애우’(2.34), ‘맹인’(2.52), ‘정상인’(2.76), ‘농아인’(2.83), ‘장애자’(2.85), ‘장님’(2.97)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낮았다.

전체 단어형 차별어 20개를 차별성이 강한 그룹(병신, 저능아, 애꾸눈, 무뇌아, 앓은뱅이, 불구자), 차별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그룹(난쟁이, 귀머거리, 절름발이, 외눈박이, 사팔뜨기, 병어리, 언청이, 정신박약자),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룹(장님, 장애자, 농아인, 정상인, 맹인, 장애우)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룹 별로 살펴보면, 차별성이 강한 그룹의 단어들은 대체로 욕설에 쓰일 수 있는 어휘들이 많고, 인간의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어로 알아보기 쉬운 어휘라는 점도 차별성을 많이 느끼게 하는 듯하다. 그와는 반대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룹의 단어들은 그 대부분이 비속어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차별어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의 어휘들은 대부분 속담 표현에 사용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5-1의 일부 어휘들은 학생과 일반인 사이에 차별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5-1의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를 살펴 보면, 20개 단어 중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성이 가장 강한 것이 ‘병신’이고, ‘저능아’, ‘애꾸눈’ 순이었다. 한편 일반인들에게 차별성이 강한 것은 ‘병신’, ‘애꾸눈’, ‘저능아’ 순이었다.

다음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5.1.2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비교

표5-1의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5-1과 같다.

그림5-1 학생과 일반인의 차별성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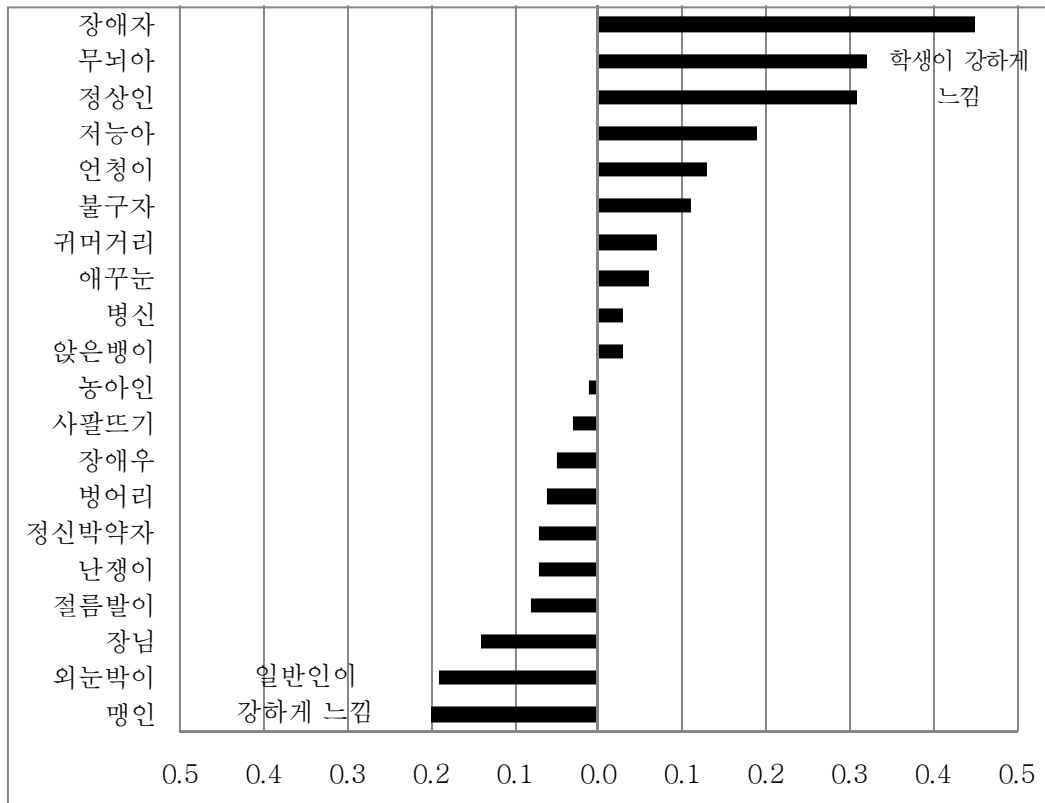


표5-1에서 학생들과 일반인이 각 어휘에 대한 차별성 정도를 순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병신’이란 단어의 차별성 정도가 가장 강하고 ‘장애우’의 차별성 정도가 가장 약하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차별성 순위 및 어휘 별로 분석해 보면 학생과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5-1에서 우측 그래프는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고 좌측 그래프는 일반인들이 학생들보다 차별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자’, ‘무뇌아’, ‘정상인’, ‘저능아’, ‘언청이’ 등 10개 단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반인들보다 차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맹인’, ‘외눈박이’, ‘장님’ 등 10개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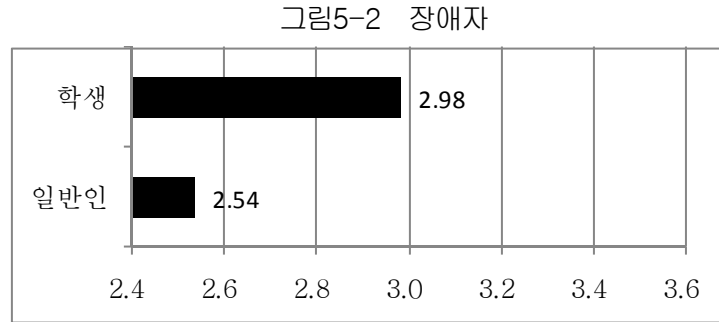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우측 그래프에 주목하면 저능아, 무뇌아, 불구자 등 차별성이 강한 그룹에 속한 어휘가 눈에 띈다. 반면에 일반인이 학생보다 차별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좌측 그래프에는 ‘맹인’, ‘장님’ 등 차별성이 약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즉 비속어로 사용 가능하고 인간의 능력에 관계되는 특징을 가진 차별성이 강한 그룹의 어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강하게 느끼며,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룹은 일반인이 차별성을 느낀다(학생들은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하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가 특징적인 어휘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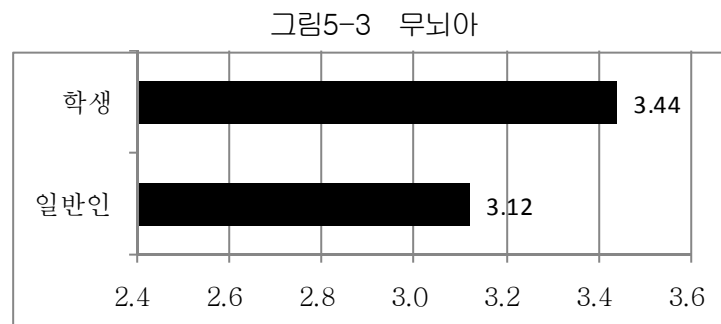
### 5.1.3 개별 항목 검토

#### 5.1.3.1 장애인



‘장애인’은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2.98)로 일반인이 평가하는 차별성 평균치(2.54)보다 0.45 높았으며,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현행 용어로 규정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장애인’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이에 익숙한 일반인은 차별적이라는 의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은 학교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현행 용어인 ‘장애인’에 대한 접촉도가 높아서 ‘장애인’라는 표현에 일반인보다는 더 강한 차별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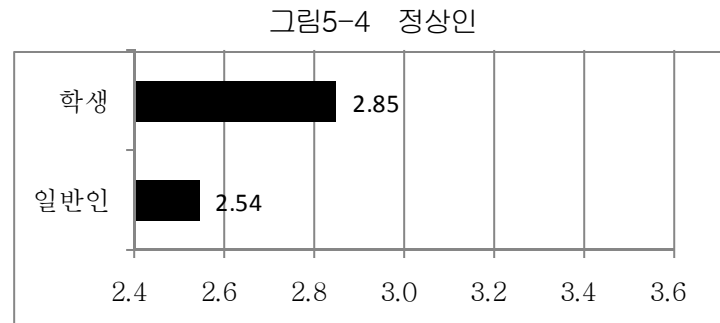
#### 5.1.3.2 무뇌아



‘무뇌아’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3.44이고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3.12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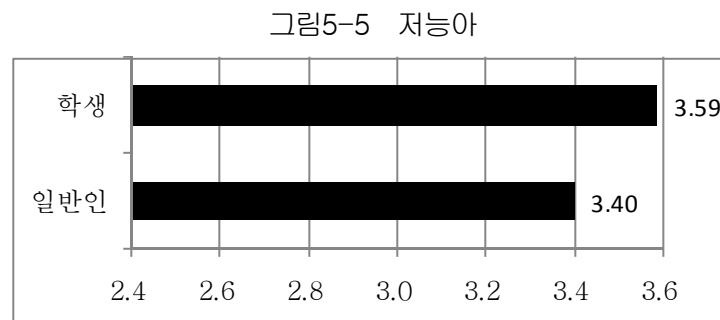


#### 5.1.3.3 정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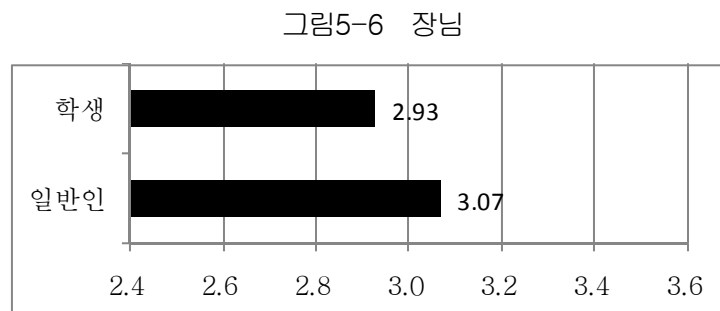
‘정상인’은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2.85이고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2.54로 역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1.3.4 저능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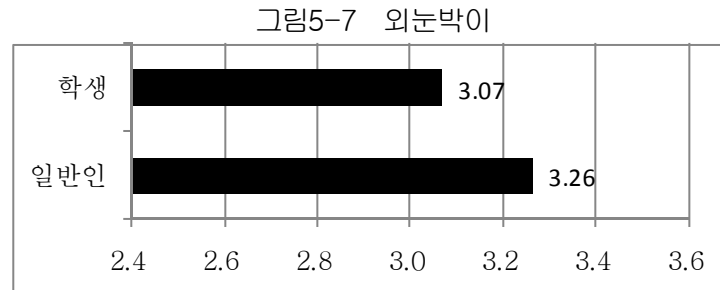
‘저능아’는 일반인 보다 학생들이 더욱 강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차별성의 평균치가 3.59이고 일반인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3.40이다.

#### 5.1.3.5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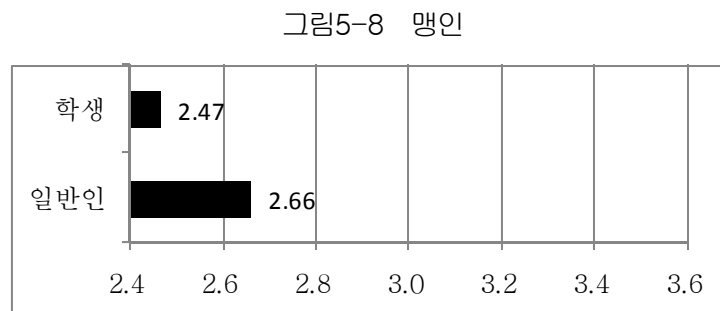
‘장님’은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는 2.93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의 평균치는 3.07로 차별성이 더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 5.1.3.6 외눈박이



‘외눈박이’는 역시 학생보다 일반인들이 차별성을 더 느끼고 있으며, 그 평균치는 3.26이고,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는 3.07이다.

#### 5.1.3.7 맹인



‘맹인’은 일반인이 학생보다 차별성이 더 강하다고 평가한 단어들 중 의식차이가 가장 높은 단어이다. 일반인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가 2.66이고 학생들이 평가하는 차별성의 평균치는 2.47로 나타났다.

### 5.2 문맥 속의 차별어 표현에 관한 의식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어 중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별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종합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기사에서 쓰인 장애인 차별어로 인식되어 온 외눈박이, 정신박약자, 애꾸눈 등 총 21개의 단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일반인의 의식 조사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어의 언어 순화와 장애인에 대한 의식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비장애인(일반

인)의 문맥 속 단어형에 대한 차별성 의식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5.2.1 전체적인 경향

21개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에 대한 차별성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5-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차별성은 5단계 스के일로 측정된 것이며, 5가 차별성이 강하고 1이 차별성이 약함을 나타낸다.

표5-2 문맥 속의 차별어 표현에 관한 의식 분석

|       | 전체   | 학생   | 일반인  |
|-------|------|------|------|
| 병신    | 3.56 | 3.56 | 3.54 |
| 저능아   | 3.44 | 3.52 | 3.25 |
| 언청이   | 3.31 | 3.39 | 3.14 |
| 불구자   | 3.26 | 3.31 | 3.14 |
| 무뇌아   | 3.23 | 3.34 | 2.97 |
| 사팔뜨기  | 3.18 | 3.18 | 3.17 |
| 병어리   | 3.16 | 3.12 | 3.25 |
| 정신박약자 | 3.13 | 3.23 | 2.9  |
| 애꾸눈   | 3.1  | 3.11 | 3.09 |
| 농아인   | 3.06 | 3.14 | 2.87 |
| 얕은뱅이  | 3.06 | 3.11 | 2.95 |
| 절름발이  | 3.04 | 3.01 | 3.11 |
| 장애자   | 2.99 | 3.11 | 2.72 |
| 정상인   | 2.98 | 3.09 | 2.74 |
| 난쟁이   | 2.97 | 2.94 | 3.04 |
| 장님    | 2.9  | 2.87 | 2.97 |
| 외눈박이  | 2.81 | 2.81 | 2.81 |
| 귀머거리  | 2.81 | 2.77 | 2.9  |
| 맹인    | 2.79 | 2.83 | 2.72 |
| 병어리   | 2.73 | 2.65 | 2.9  |
| 장애우   | 2.47 | 2.47 | 2.47 |

표5-2를 보면 21개 어휘 중 차별성이 가장 높은 것이 병신이고(3.56), 그 다음이 저능아(3.44), 그리고 언청이(3.31), 불구자(3.26), 무뇌아(3.23) 순이다. 한편 장애우(2.47), 병어리(2.73), 맹인(2.79) 등은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낮았다.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에 대해서도 차별성이 높은 그룹(병신, 저능아, 언청이, 불구자, 무뇌아), 차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룹(사팔뜨기, 병어리, 정신박약자, 애꾸눈, 농아인, 앓은뱅이, 절름발이),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장애자, 정상인, 난쟁이, 장님, 외눈박이, 귀머거리, 맹인, 병어리, 장애우) 등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룹 별로 살펴 보면, 독립적 단어형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강한 차별성 그룹의 단어들은 대체로 욕설에 쓰일 수 있는 어휘들이 많고, 인간의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어로 알아보기 쉬운 어휘라는 점도 차별성을 많이 느끼게 한다. 그와는 반대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단어들은 그 대부분이 비속어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차별어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의 어휘들은 대부분 속담, 표현형에 사용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5-9의 일부 어휘들에 있어서 학생과 일반인 사이에 차별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5-2의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를 살펴 보면, 21개 단어 중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성이 가장 높은 것이 병신이고, 저능아, 언청이 순이었다. 한편 일반인들에게 차별성이 높은 것은 병신, 저능아, 병어리 순이었다. 다음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5.2.2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그림5-9는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5-9 학생과 일반인의 차별성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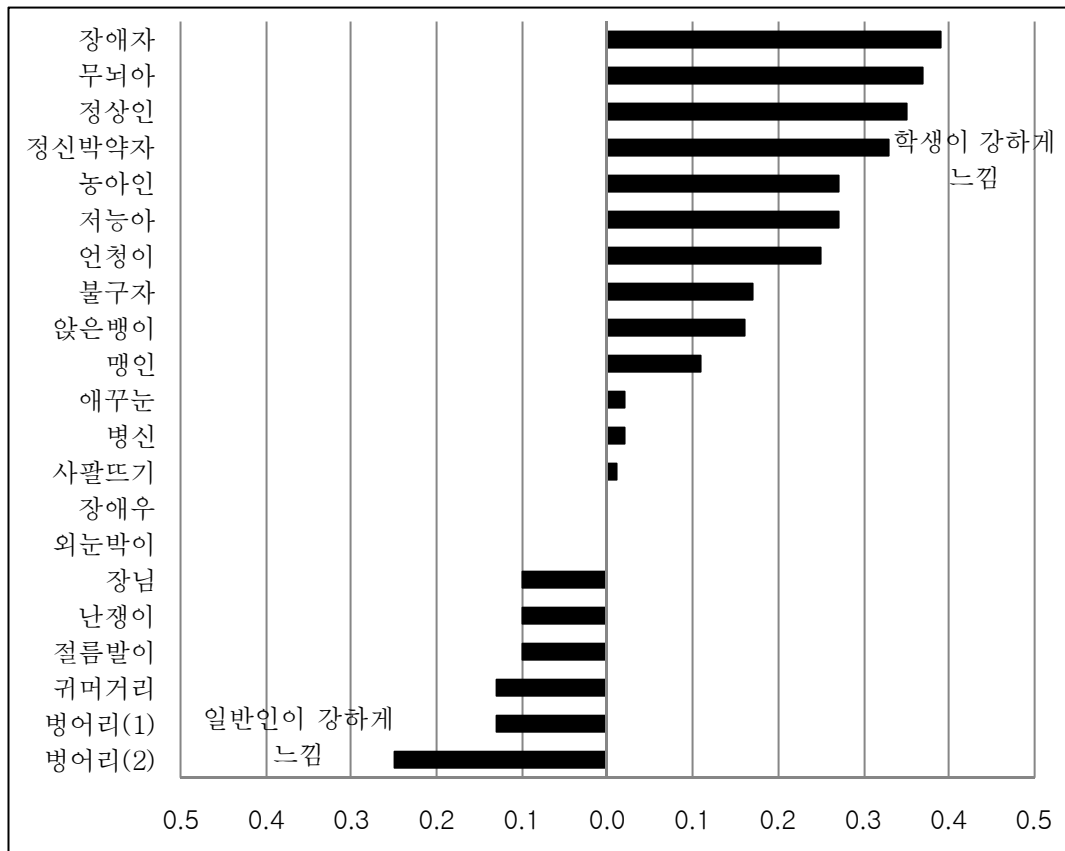


표5-2에서 학생들과 일반인이 각 어휘에 대한 차별성 정도를 순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병신’이란 단어의 차별성 정도가 가장 높았고 ‘장애우’의 차별성 정도가 가장 낮다는 같은 점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차별성 순위 및 어휘 별로 분석해 보면 학생과 일반인의 의식에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5-9에서 우측 그래프는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이고 좌측 그래프는 일반인들이 학생들보다 차별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자, 무뇌아, 정상인, 정신박약자, 농아인, 저능아 등 13개 단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반인들보다 차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어리(2), 병어리(1), 귀머거리 등 6개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차별성을 더 높게 느끼는 우측 그래프에 주목하면 무뇌아, 저능아, 불구자 등 차별성이 높은 그룹에 속한 어휘가 눈에 띈다. 반면에 일반인이 학생보다 차별성을 더 높게 느끼는 좌측 그래프에는 병어리, 귀머거리, 난쟁이, 장님 등 차별성이 낮은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즉 비속어로 사용 가능하고 인간의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라는 특징을 가진 차별성이 높은 그룹의 어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성을 강하게 느끼며, 그렇지 못한 차별어로서 인식되기 어렵고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은

일반인이 차별성을 느낀다(학생들은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 5.3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에 관한 평가

§5.1 과 §5.2 에서는 독립적 단어형 및 문맥 속 단어형의 차별어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차별성이 강한 그룹의 단어들은 대체로 비속어로 쓰이는 어휘들과 인간의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 많다는 것,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은 대부분 속담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단어형 차별어가 속담 또는 관용적인 표현형으로 쓰인 표현들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먼저 비장애인(일반인)의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성 의식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학생과 일반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5.3.1 차별의식의 전체적인 경향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 정도는 5 단계로 평가한 것이며 5 가 차별 정도가 높은 것이고 1 이 차별 정도가 낮은 것이다. 차별 정도는 표 5-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5-3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 |      |      |      |
|-------------------------|------|------|------|
|                         | 전체   | 학생   | 일반인  |
| 병신 육갑한다                 | 3.36 | 3.35 | 3.39 |
| 정상인 못지않게                | 3.20 | 3.40 | 2.78 |
| 절름발이 지성인                | 2.90 | 2.97 | 2.74 |
| 절름발이 내각                 | 2.88 | 2.92 | 2.80 |
| 귀머거리 삼 년                | 2.77 | 2.83 | 2.63 |
| 불구가 되다                  | 2.72 | 2.80 | 2.53 |
| 병어리 냉가슴 앓다              | 2.71 | 2.78 | 2.57 |
| 눈 뜬 장님                  | 2.65 | 2.64 | 2.67 |
| 장님 코끼리 만지기              | 2.64 | 2.64 | 2.63 |
| 장애에도 불구하고               | 2.44 | 2.46 | 2.39 |
| 꿀 먹은 병어리                | 2.43 | 2.36 | 2.58 |

표 5-3 에서는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하여 느끼는 차별의식 정도의 평균값을 위에서부터 차별의식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표 5-3 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의식이 가장 큰 표현은 ‘병신 육갑한다(3.36)’이고, 가장 작은 것은 ‘꿀 먹은 병어리(2.43)’이다. 최고치와 최

저치가 약 0.97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차별성이 강한 표현(‘병신 욱잡한다’, ‘정상인 못지않게’)과 약한 표현(‘장애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병어리’)이 있었다.

비교적 차별성이 강한 표현 중 ‘정상인 못지않게(3.20)’는 독립적 단어형(18 위)과 문맥 속 단어형(14 위)과는 달리 차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속성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보면, ‘정상인 못지않게’의 차별 의식이 학생들에게서 제 1 순위(3.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인은 ‘병신 욱잡한다’, ‘절름발이 내 각’에 이어 제 3 순위로 밀려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학생들이 ‘정상인 못지않게’라는 표현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하고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다문화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증거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꿀 먹은 병어리’ 등 차별성이 약한 표현에 관해서는 §5.3.6(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평가 이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음에는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 경향성을 연령별, 남녀별, 장애인 지인의 존재여부(C-2), 도와준 경험여부(C-10), 언어적 배려 필요여부(C-15), 의식개선 필요여부(C-16)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 5.3.2 차별의식의 연령별 경향

먼저 §5.3.1 에서 속담 및 표현형에서의 차별의식 경향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연령별로 살펴 보면 그림 5-10 과 같다. 그림 5-10 은 학생과 일반인의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의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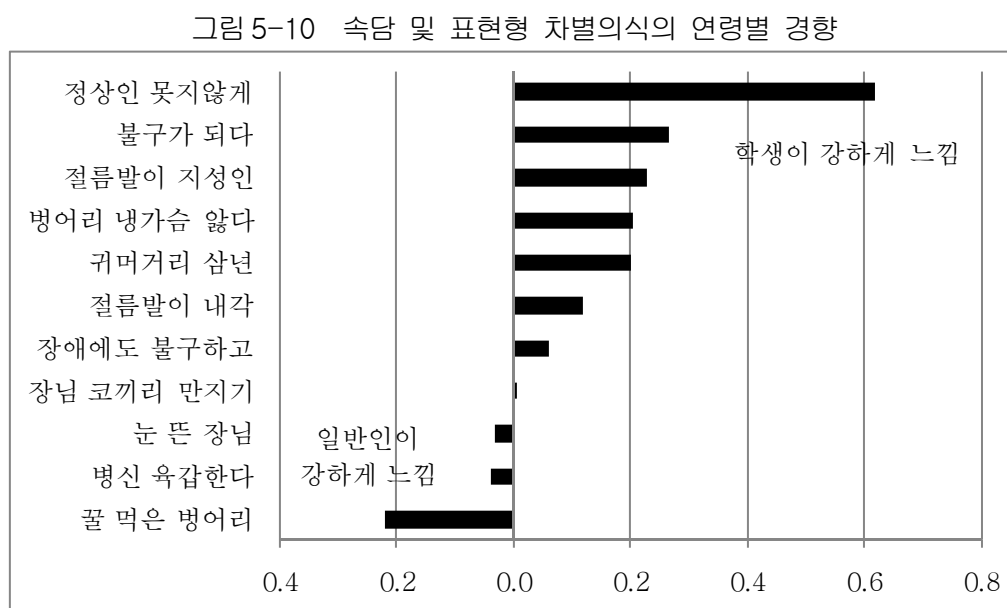


그림 5-10 에서 ‘정상인 못지 않게’에 대한 차별의식에 관하여, 학생이 일반인에 비해서 0.62 나 더 느끼며 일반인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정상인 못지않게’라는 표현에서 장애인에 대한 큰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인이 학생들 보다 차별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항목은 ‘눈 뜬 장님’, ‘병신 욱잡한다’, ‘꿀 먹은 병어리’인데, 이 표현들은 속담처럼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5.3.3 차별의식의 남녀별 경향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의 경향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그림 5-1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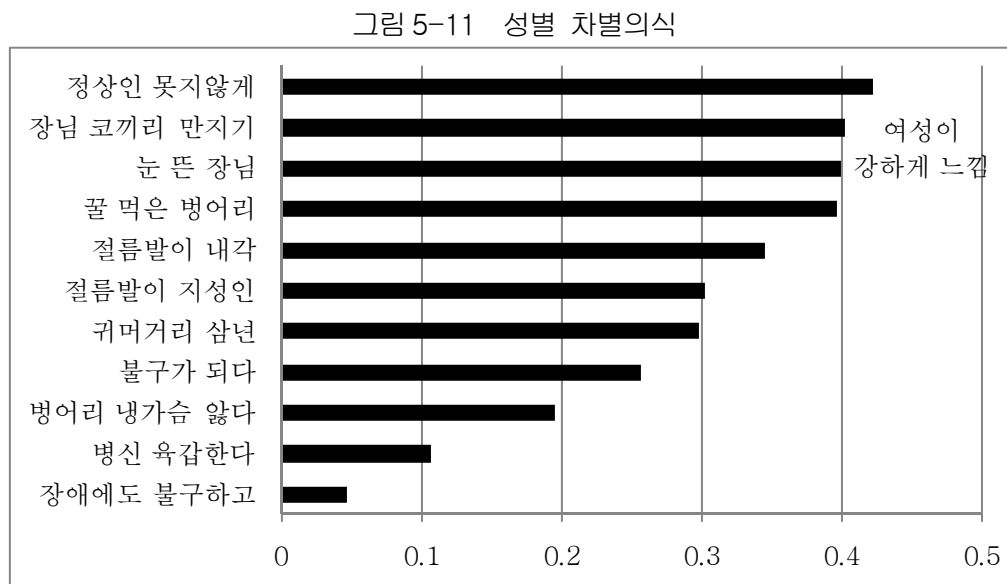


그림 5-11 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체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이는 적지만 차별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약자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는 동질성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여성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 5.3.4 도와 준 경험 유무에 따른 차별의식의 경향

다음은 조사항목 [C-10 귀하는 역이나 바깥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①‘자주 있다’, ②‘가끔 있다’고 대답한 그룹과 ③‘거의 없다’, ④‘전혀 없다’고 대답한 그룹의 차별의식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12 도움경험여부와 차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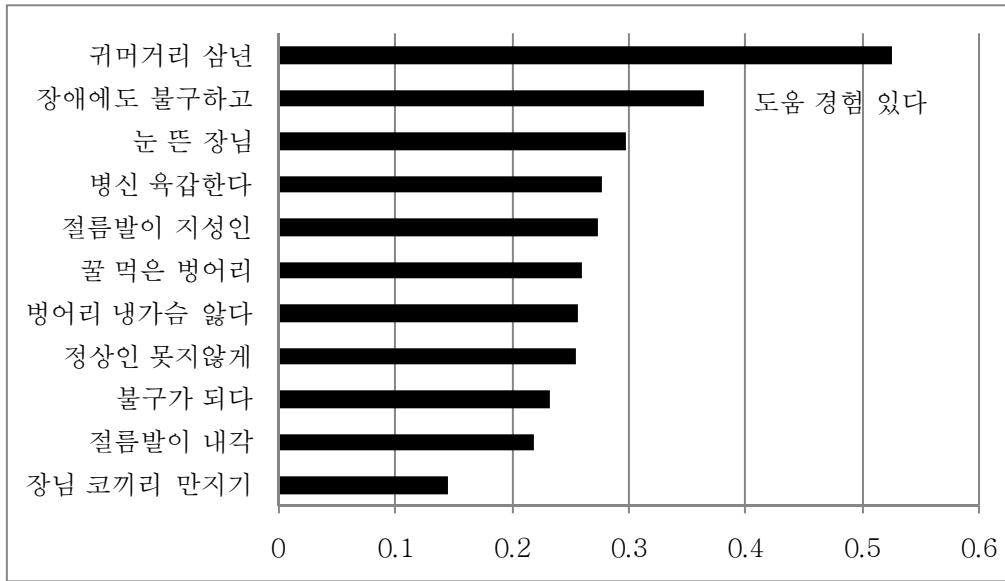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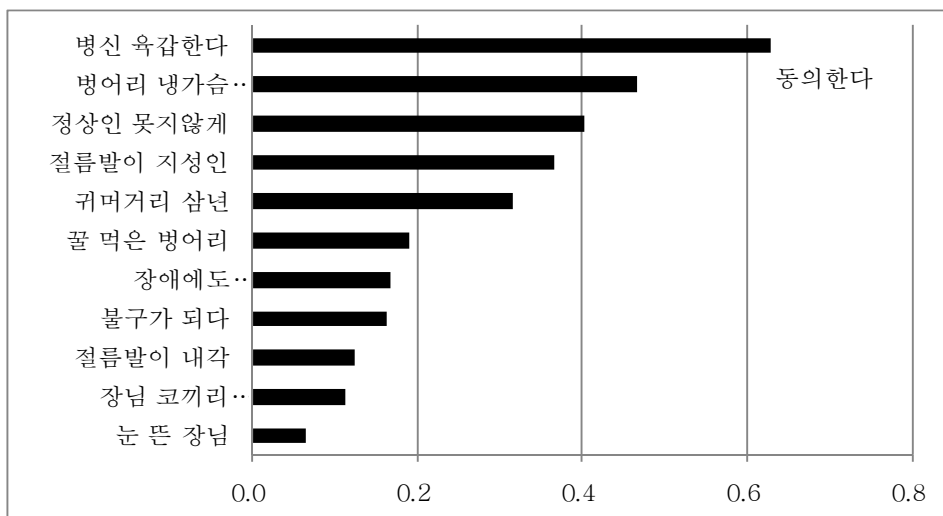


그림 5-12 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3.5 의식개선 의견에 따른 차별의식 경향성

조사항목 [C-16 차별적인 언어를 순화한다고 해도,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문제이다. 표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의 의견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한 그룹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의 차별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5-13 과 같다.

그림 5-13 의식개선 동의여부와 차별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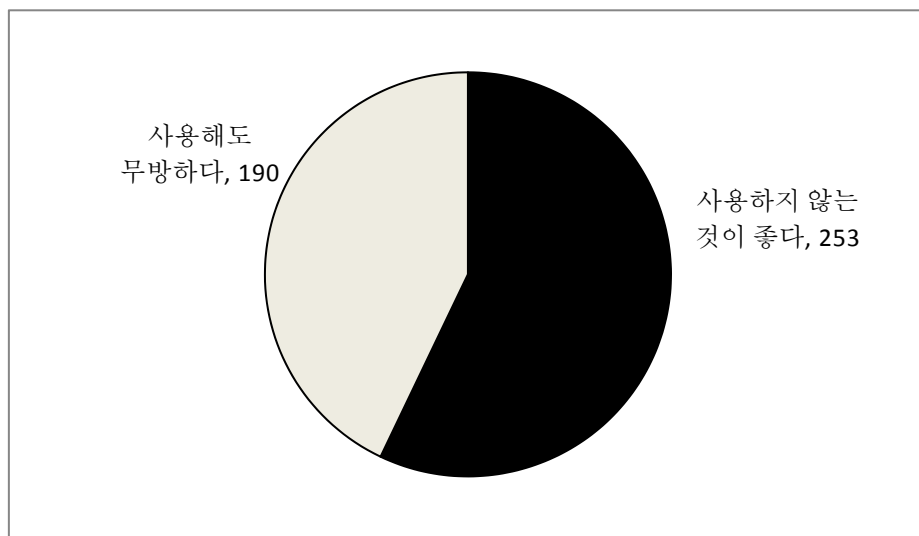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50 명 중에서 ‘동의한다’고 대답한 그룹이 337 명,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이 13 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의 개선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의식은,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동의한다’ 그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그룹보다 전체적으로 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3.6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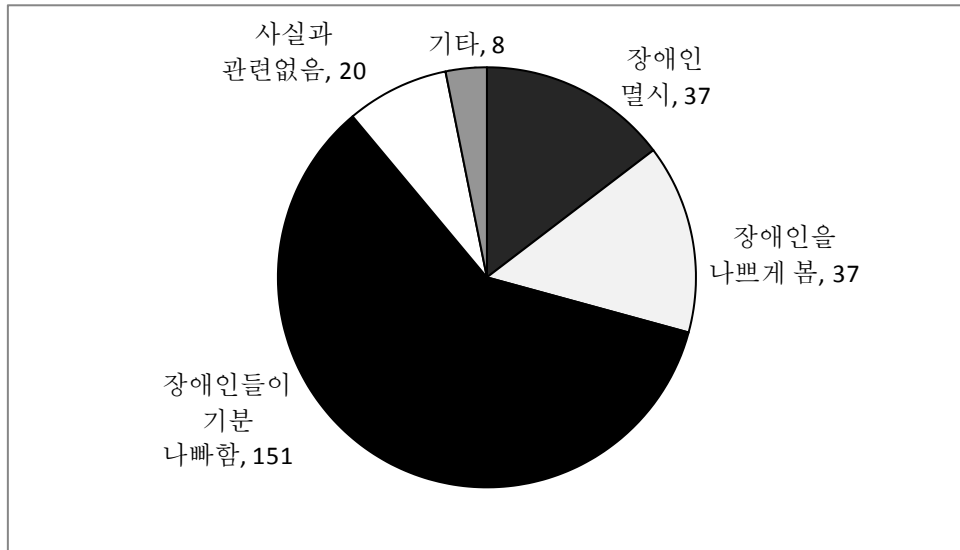
본 설문지조사의 마지막 항목으로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해서 응답자의 전체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을 했다. ①‘써서는 안되거나 쓸 때 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②‘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중에서 선택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예시문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였다(복수응답가능). 응답자들의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그림 5-14 와 같다

그림 5-14 속담 및 표현형 사용에 대한 평가



①‘사용해서는 안되거나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의 응답자가 253 명, ②‘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의 응답이 193 명이었다. 속담 및 표현형의 예문들이 차별적이라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라고 한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 외로 ②‘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①‘사용해서는 안되거나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좀 더 세부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15 와 같다.

그림 5-15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의 세부항목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 장애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하고 있다. 장애인을 멸시하거나, 장애인을 나쁘게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이러한 표현들이 장애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응답이다. 즉, 마스크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②‘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세부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5-16 ‘사용해도 무방하다’의 세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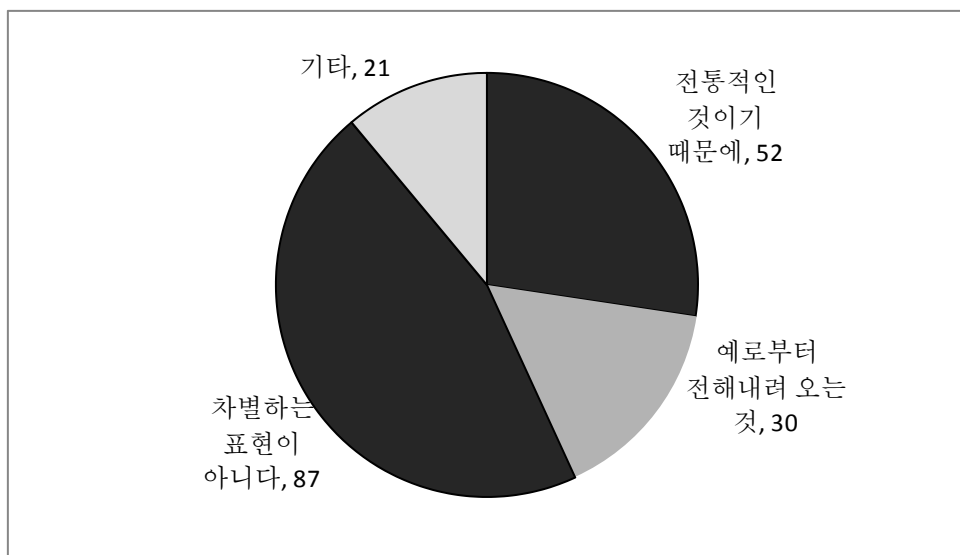


그림 5-16 은 ②‘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세부적인 이유를 분석한 것으로 속담 및 표현형의 표현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아니더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그림 5-16 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사용한 속담 및 표현형과 같은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타 의견란에 자신들의 의견을 기입한 대답들을 분류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기타 의견란의 대답을 분류하면 표 5-4 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 5-4 기타 의견 분류

| 분 류       | 의견 예시문                                                                            |
|-----------|-----------------------------------------------------------------------------------|
| 관용적 사용    | 관용구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br>문학적 표현이거나 상황을 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br>말을 순화할 경우 본래의 뜻이 희석되기 때문 |
| 차별적 아님    | 장애인을 차별하는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니므로<br>장애인을 차별하기 보다는 문맥상의 느낌을 전달하는 의도                        |
| 의미전달이 어려움 | 짧은 말에 여러 의미를 담아야 하는데 길게 풀어 쓴다는 것은<br>의미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                              |

표 5-4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나, 장애인 차별어를 순화한 표현들을 사용하면 의미전달이 안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보다는 정상인들의 생각을 더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적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장애인 차별표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과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하는 언어적 폭력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5.3.7 정리

지금까지 속담 및 표현형에 대한 차별의식 경향성을 연령별, 남녀별, 장애인 지인의 존재여부(C-2), 도와 준 경험여부(C-10), 언어적 배려 필요여부(C-15), 의식개선 필요여부(C-16)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다.

[속담 및 표현형에 사용되는 장애인 관련 표현들이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리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것처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 장애인 지인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속담 및 표현형의 표현들을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그다지 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지인이 없어도 조사항목의 표현들을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다. 또한 장애인을 도와 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속담 및 표현형의 표현들에 대해 더욱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사항목의 표현들을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느끼고 그러한 표현들은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식개선도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사항목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의식의 개선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의 응답자들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조사항목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이 응답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제 6 장 차별어에 대한 상황별 평가 의식

본 장에서는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독립적 단어형, 문맥 속 단어형, 속담 및 표현형 각각의 의식적 평가 또는 장면 및 문맥에 따라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황별 평가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독립적 단어형을 단어형으로, 문맥 속 단어형을 문맥형으로 속담 및 표현형을 속담형으로 줄여 쓰기로 한다.

### 6.1 상황별 평가 의식

#### 6.1.1 평가 방법

상황별 평가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은 사용하였다.

- (1)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의 평가를 5 단계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한다. 각 조사 유형 및 조사 내용은 표 6-1 과 같으며, 세 가지 유형은 평가 방법 및 평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단어형의 경우, ①~④의 선택문항의 질문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문맥형과 속담형은 ①~⑤의 정도의 차이를 묻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
- (2) 이를 통합하여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 모두 차별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를 1로 하고, 매우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를 5로 하여 전체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즉 평가의 수치가 클수록 차별적이며, 단어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1 조사 유형 및 조사 내용

|     |                                                                                                                                                                                                                                                                                                                                                                                                                    |
|-----|--------------------------------------------------------------------------------------------------------------------------------------------------------------------------------------------------------------------------------------------------------------------------------------------------------------------------------------------------------------------------------------------------------------------|
| 단어형 | <p><b>D-(8a) &lt;병어리&gt;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b></p> <p>① 매우 차별적이다      ② 조금 차별적이다<br/>③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④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p>                                                                                                                                                                                                                                                                                   |
| 문맥형 | <p><b>E-8 &lt;병어리&gt;가 쓰인 예</b></p> <p>이런 언론을 보면서 화도 안 나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가. 말 잘하는 정치가를 다 어디로 가셨는가. 기자회견 의원들은 <b>병어리</b>...됐냐. 조중동과 싸우는 척만 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알아준다. (브레이크뉴스, 2008년 6월 12일)</p> <p><b>(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p> <p>① ————— ② ————— ③ ————— ④ ————— ⑤</p> <p>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gt; 일리가 있다 —————&gt; 전적으로 동의한다</p> <p>◎ 잘 모르겠다</p>                                |
| 속담형 | <p><b>E-23 &lt;병어리 낱개슬을 잃다&gt;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p> <p>국세청이 <b>병어리 낱개슬을 잃고 있다</b>. 조직의 가장 큰 관심인 승진 인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단행된 관세청의 승진 인사가 부러울 뿐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양해를 얻어 예외적으로 국과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승진 인사가 너무 지연됐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08년 7월 25일, 9면)</p> <p>① ————— ② ————— ③ ————— ④ ————— ⑤</p> <p>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gt; 일리가 있다 —————&gt; 전적으로 동의한다</p> <p>◎ 잘 모르겠다</p> |

(3) 상황별 비교 분석 대상 항목의 범위는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세 어휘는 차별어 20 개 단어 중 문맥형, 속담형 중 복수로 제시하였다.

표 6-2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의 조사 유형

|      |     |                |                |
|------|-----|----------------|----------------|
| 병어리  | 단어형 | 문맥형(1), 문맥형(2) | 속담형(1), 속담형(2) |
| 장님   | 단어형 | 문맥형            | 속담형(1), 속담형(2) |
| 절름발이 | 단어형 | 문맥형            | 속담형(1), 속담형(2) |

#### 6.1.2 상황별 평가의 전체적인 경향

우선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의 조사 항목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평균값은 3에 가까운 2.97로 3은 설문지에 장애인 차별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라는 응답에 가까우므로,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1에서는 평가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평균값의 오른쪽에 놓일수록 평균값보다 크며 차별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6-1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의 상황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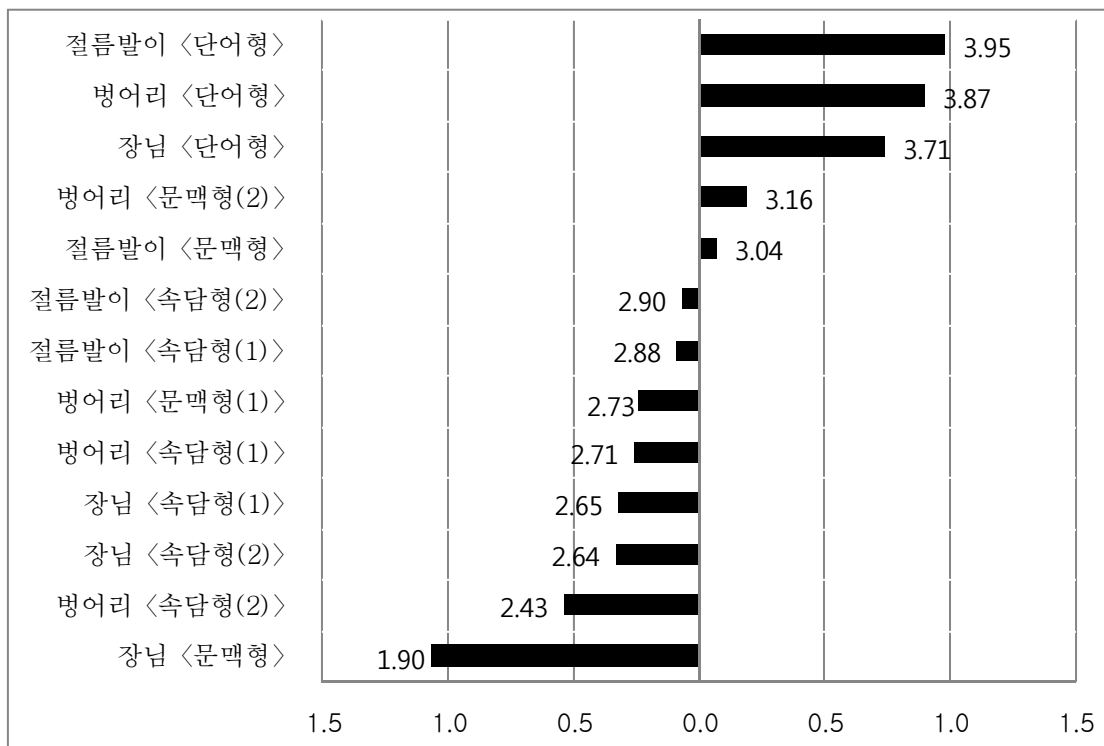


그림 6-1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a)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 중 단어형에서 차별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단어형 중에서도 ‘장님 < 병어리 < 절름발이’ 순으로 차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b) 단어형 외에 문맥형과 속담형에는 차별 평가에서 일정한 규칙이 없이 분산되어 있다.

(a)의 결과는 장애인 차별어의 독립적 단어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강한 차별을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단어형의 차별도는 4 단계로 제시한 것을 분석상 5 단계로 환산한 값이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서 문맥형과 속담형이 5 단계 선택이었던 점과는 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님, 병어리, 절름발이는 모두 고유 한국어로, 각각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장님과 병어리에 비해 절름발이의 차별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다. 절름발이의 경우 다리를 저는 모습을 흉내 낸 말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어감이 강하여 더욱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의 문맥형과 속담형의 경우 차별어의 어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의식 외에도 언급되는 문맥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이하 제시문에 따른 문맥형과 속담형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6.2 제시문에 따른 문맥형과 속담형의 평가

### 6.2.1 ‘병어리’에 대한 평가

병어리에 대한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의 평가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4는 신문 기사에 쓰인 문맥형, 속담형의 제시문이다.

표 6-3 병어리에 대한 평가 정도

| 속담형(2) | 속담형(1) | 문맥형(1) | 문맥형(2) | 단어형  |
|--------|--------|--------|--------|------|
| 2.43   | 2.71   | 2.73   | 3.16   | 3.87 |

표 6-4 병어리의 제시문

|        |                                                                                                                                                                       |
|--------|-----------------------------------------------------------------------------------------------------------------------------------------------------------------------|
| 문맥형(1) | 이런 언론을 보면서 화도 안 나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가. 말 잘하는 정치가들 다 어디로 가셨는가. 기자출신 의원들은 <u>병어리</u> 됐다. 조중동과 싸우는 척만 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알아준다. (브레이크뉴스, 2008년 6월 12일)                        |
| 문맥형(2) | ... 누군가를 놀려대고 있었다. " <u>병어리</u> 래요, <u>병어리</u> 래요. 말도 못하는 <u>병어리</u> 래요." 아이들은 잘게 부순 연탄재를 아이 엄마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땅에 쪼그려 앉아 어린 딸을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국민일보, 2008년 6월 12일) |



|        |                                                                                                                                                                                                                                        |
|--------|----------------------------------------------------------------------------------------------------------------------------------------------------------------------------------------------------------------------------------------|
|        | 월 21 일, 22 면)                                                                                                                                                                                                                          |
| 속담형(1) | 국세청이 <u>병어리 냉가슴을 앓고</u> 있다. 조직의 가장 큰 관심인 승진 인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단행된 관세청의 승진 인사가 부러울 뿐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양해를 얻어 예외적으로 국·과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 동안 승진 인사가 너무 지연됐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08 년 7 월 25 일, 9 면)                                |
| 속담형(2) | 잘 알다시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항의해 왔다. 또 이런 견해에 동조했던 한승조 고려대 명예 교수는 언론의 못매를 맞아 명예 교수 자리를 사퇴했다. 그런데 똑 같은 말을 해온 안 교수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u>꿀 먹은 병어리</u> 다. (경향신문, 2008 년 3 월 26 일, 31 면) |

표 6-3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a) 문맥형(1)에 비해 문맥형(2)의 차별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문맥형(1)은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장애인 차별어를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맥형(2)의 제시문은 장애인을 직접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차별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면 직접 비하적으로 사용된 것인가 하는 문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b) 속담형(1)은 속담형(2)보다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강하다. 속담형(1)과 속담형(2)는 모두 비장애인에게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이다. 속담형(1)의 ‘병어리 냉가슴 앓다’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속담형(2)는 말해야 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속담형(1) 쪽이 더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꿀 먹은 병어리’가 상대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표현에 대한 허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6.2.2 ‘장님’에 대한 평가

장님에 대한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의 평가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6-5 와 같다. 표 6-6 은 신문 기사에 쓰인 문맥형, 속담형의 제시문이다.

| 표 6-5 병어리에 대한 평가 정도 |        |        |      |
|---------------------|--------|--------|------|
| 문맥형                 | 속담형(2) | 속담형(1) | 단어형  |
| 1.90                | 2.64   | 2.65   | 3.71 |

표 6-6 장님의 제시문

|        |                                                                                                                                                                                         |
|--------|-----------------------------------------------------------------------------------------------------------------------------------------------------------------------------------------|
| 문맥형    | 딸의 부축을 받고 올라온 <u>장님</u> 노인이 '나그네 설움'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찌나 감동적이었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u>장님</u> 노인이 살아온 생애가 온통 이런 설움이었구나, 그 설움을 이 노래 속에 녹여놓았구나 하는 마음에 객석도 감동했습니다. (경향신문, 2008 년 6 월 19 일, SA 면) |
| 속담형(1) | 어떤 장소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몰라 그들의 습관대로 처리하기 일쑤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각종 안내책자를 구비해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 언어가 낯설은 그들에게는 ' <u>눈 뜬 장님</u> '과 같다. (서울신문, 2008 년 3 월 27 일, 15 면)                                      |
| 속담형(2) | 외교 안보 위기는 인재(人災)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정보 수집과 보고 체계, 정보 분석 및 상황 판단에 이르는 위기대응 과정은 ' <u>장님 코끼리 만지기</u> '식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일신문, 2008 년 7 월 18 일, 23 면)                              |

표 6-5 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 (a) 장님은 단어형 평가에서 장애인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다른 단어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문맥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맥형의 제시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쓰였다. 이에 비해 비장애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결점을 비꼬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속담형(1), 속담형(2) 쪽이 더 차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문맥형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장님>의 사용 허용도는 실제 생활상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6.2.3 '절름발이'에 대한 평가

절름발이에 대한 단어형, 문맥형, 속담형의 평가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6-7 과 같다. 표 6-8 은 신문 기사에 쓰인 문맥형, 속담형의 제시문이다.

표 6-7 절름발이에 대한 평가 정도

|        |        |      |      |
|--------|--------|------|------|
| 속담형(1) | 속담형(2) | 문맥형  | 단어형  |
| 2.71   | 2.90   | 3.04 | 3.95 |

표 6-8 절름발이의 제시문

|     |                                                                                                                                                                         |
|-----|-------------------------------------------------------------------------------------------------------------------------------------------------------------------------|
| 문맥형 | ... 이나바 마유미의 단편에서 <u>절름발이</u> 중학생 이토 다쿠로는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다. 그러곤 엄마와 선생님, 자기를 괴롭힌 가나이, 마쓰오카, 모치즈키, 야마다, 그리고 친구 미야모토에게 편지를 남긴다. ... (서울신문, 2006 년 11 월 15 일 31 면) |
|-----|-------------------------------------------------------------------------------------------------------------------------------------------------------------------------|

|        |                                                                                                                                                                                                                   |
|--------|-------------------------------------------------------------------------------------------------------------------------------------------------------------------------------------------------------------------|
| 속담형(1) | 이 당선인측은 협상 결렬시 <u>절름발이</u>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출범부터 과행을 하면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만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2008 년 2 월 15 일, 4 면) |
| 속담형(2) | ...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 <u>절름발이 지성인</u> ’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서 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예를 든다. “1979 년 어느 일간지에 의학 칼럼을 주 1 회씩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매달려도 글 한편 쓰는 ... (문화일보, 2008 년 3 월 11 일, 30 면)                                   |

표 6-7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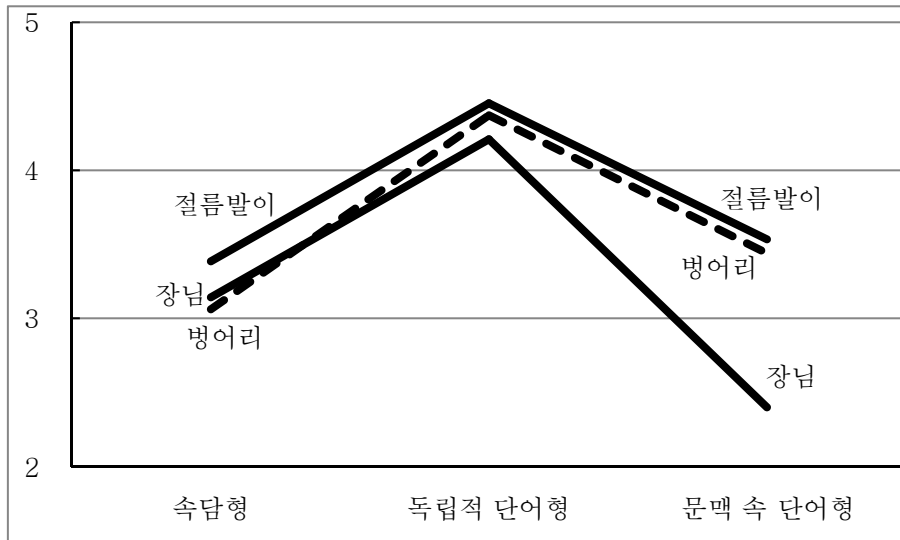
- (a) 절름발이는 단어형에서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가장 강했던 단어이다. 즉 불완전하게 걷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맥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비난의 뜻이 담겨있는 표현인 속담형(1)과 속담형(2) 보다도 문맥형의 경우가 더 차별적이라고 평가된 것은 ‘절름발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강하기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 6.3 상황별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어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1) 독립된 장애인 차별적 단어형에 대해 갖는 고정된 이미지가 강하게 지배한다. 특히 독립적 단어형에 대한 평가는 고정된 선입견이 좌우하며 여기에 따라 문맥형과 속담형의 평가도 영향을 받는다. 즉 ‘장님’과 ‘절름발이’의 사전적인 의미가 쓰인 문맥형 상황에서도 단어가 가진 고정된 이미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6-2 에서 보듯이 단어형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가 좌우의 속담형과 문맥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상황별 평가 정도



- (2) 더욱이 차별어 단어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일상생활 및 언론매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문맥형과 속담형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어에 대해서는 ‘차별적 의식’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속담형은 비장애인에게 비난의 목적으로 쓰이는 풍자적 표현이지만 관습적,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의식은 더욱 둔화될 수 있다. 여기에 언론 매체를 통한 장애인 차별어의 비유적인 표현까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은 경계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 제3부 장애인 차별어의 대안표현

### 제 7 장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표현

독립적 단어형 20 항목에 대하여 대안 표현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7.1 대안 표현의 유형

독립적 단어형에서는 제각기 4~5개의 대안 표현을 제시하고 차별어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 1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안 표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4~5개의 대안 표현은 선행 연구 및 장애인 인터뷰조사 등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 (i) 차별어 유형 : 차별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 (ii) 현행 장애용어 유형 :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현행 장애용어를 제시한 유형
- (iii) 구 장애용어 유형 : 현행 장애용어 이전의 구 장애용어를 제시한 유형
- (iv) 설명적 표현 유형 : ~가 불편한 사람, ~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의 설명적 표현 유형
- (v) 예외 : ‘정상인’은 장애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경우 장애인 차별적으로 간주되며, ‘일반인’은 (i)~(iv)의 유형에 속하지 않으므로 예외로 처리함.

다만 설명적 표현 유형은 20개 항목 차별어 단어형에 따라 한 개를 제시한 경우와 두 개를 제시한 경우 각기 다를 수 있다. 또한 대안 표현 유형 이외에도 ‘기타’ 항목을 두어 구체적으로 직접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의견이지만 유형 이외의 대안 표현도 수집하였다.

#### 7.2 전체적인 경향

독립적 단어형의 전체적인 경향은 단어별과 대안 표현의 유형별로 대조하여 비교, 분석하며, 이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7.2.1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 표현 선호도

단어형 차별어의 각 20개 항목에 대해, 대안 표현 유형별로 선호도를 대조시켜 표7-1에 제시하였다. 다만 합계에서 100% 이하인 경우 ‘기타’ 또는 무응답의 비율이 누락되었음을 의미하며, 편의상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또한 설명적 표현이 2개 제시된 단어형 문항에

는 2개 중 많은 비율을 먼저 제시하고 괄호 안에 비율을 기입하였다. 구 장애용어 유형을 제시한 차별어 항목은 모두 4개 항목이며, 이 4개 항목에도 각각 선택한 비율을 표시하였다.

표7-1 단어별 대안 표현의 선택 비율

|       | 차별어    | 현행 장애용어 | 구 장애용어 | 설명적 표현         | 예외    | 합계     |
|-------|--------|---------|--------|----------------|-------|--------|
| 장애우   | 44.9 % | 18.7 %  |        | 26.5 % (9.0%)  |       | 99.1%  |
| 언청이   | 15.2 % | 32.1 %  |        | 28.6 % (22.7%) |       | 98.5%  |
| 장애자   | 12.0 % | 34.8 %  |        | 27.2 % (18.4%) |       | 92.4%  |
| 농아인   | 20.2 % | 39.5 %  |        | 28.1 % (12.3%) |       | 100.0% |
| 외눈박이  | 7.4 %  | 47.6 %  |        | 43.5 %         |       | 98.5%  |
| 맹인    | 22.7 % | 49.3 %  |        | 19.0 % (8.7%)  |       | 99.7%  |
| 귀머거리  | 7.3 %  | 50.4 %  |        | 24.8 % (17.2%) |       | 99.7%  |
| 병어리   | 12.9 % | 52.6 %  |        | 32.1 %         |       | 97.6%  |
| 장님    | 11.9 % | 54.7 %  |        | 21.2 % (11.6%) |       | 99.4%  |
| 무뇌아   | 11.1 % | 28.4 %  | 25.2 % | 33.1 %         |       | 97.9%  |
| 정신박약자 | 8.4 %  | 27.0 %  | 28.8 % | 33.1 %         |       | 97.4%  |
| 저능아   | 4.1 %  | 35.7 %  | 21.6 % | 38.0 %         |       | 99.4%  |
| 난쟁이   | 9.1 %  | 12.9 %  | 35.8 % | 38.1 %         |       | 95.9%  |
| 병신    | 4.0 %  | 31.2 %  |        | 39.6 % (23.1%) |       | 98.0%  |
| 절름발이  | 8.7 %  | 29.7 %  |        | 48.1 % (12.8%) |       | 99.4%  |
| 사팔뜨기  | 14.3 % | 32.9 %  |        | 48.7 %         |       | 95.9%  |
| 애꾸눈   | 4.1 %  | 44.6 %  |        | 49.6 %         |       | 98.3%  |
| 불구자   | 7.9 %  | 29.6 %  |        | 50.1 % (12.0%) |       | 99.7%  |
| 얕은뱅이  | 6.1 %  | 32.5 %  |        | 60.5 %         |       | 99.1%  |
| 정상인   | 21.2 % | 21.2 %  |        |                | 52.0% | 94.5%  |

표7-1에 따르면 차별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장애우’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농아인, 맹인 등에서도 약 20%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우는 1987년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생겨난 말로, 이후 끊임없이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어 왔다. 즉 장애인을 노소에 관계없이 객관화하고 범주화한다는 비판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명, 공공기관, 방송매체에 의해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장애우는 차별어라는 인식 자체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용어의 비율이 높은 차별어 항목은 언청이, 장애자, 농아인, 외눈박이, 맹인,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애꾸눈 순으로 높아진다. 구 장애용어 유형 중에서는 난쟁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구 장애용어보다 설명적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 장애용어가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현행 장애용어가 이러한 장애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명적 표현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장애인 차별어 항목은 무뇌아, 정신박약자, 저능아, 난쟁이, 병신, 절름발이, 사팔뜨기, 애꾸눈, 불구자, 정상인, 앓은뱅이 순으로 높아진다. 언청이와 병신의 경우, 설명적 표현의 괄호 속의 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20%를 넘는 비율을 보이지만 대부분 둘 중 하나의 표현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이상에서 20개 항목 차별어는 차별어의 성격에 따라 현행 장애용어를 선호하는 경우와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7.2.2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 표현

표7-1의 차별어 단어별 대안 표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안 표현을 중심으로, 그 대안 표현과, 대안 표현의 유형, 유형별 개수를 정리하여, 표7-2에 제시하였다.

표7-2 단어별 대안 표현

| 차별어   | 대안 표현            | 대안 표현의 유형 | 유형별 개수 |
|-------|------------------|-----------|--------|
| 장애우   | 장애우              | 차별어       | 1      |
| 언청이   | 언어장애인            | 현행 장애용어   | 8      |
| 장애자   | 장애인              |           |        |
| 농아인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        |
| 외눈박이  | 시각장애인            |           |        |
| 맹인    | 시각장애인            |           |        |
|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        |
| 병어리   | 언어장애인            |           |        |
| 장님    | 시각장애인            |           |        |
| 무뇌아   |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 설명적 표현    | 10     |
| 정신박약자 |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           |        |
| 저능아   |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           |        |
| 난쟁이   | 성장 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 |           |        |
| 병신    | 몸이 불편한 사람        |           |        |
| 절름발이  | 다리가 불편한 사람       |           |        |
| 사팔뜨기  | 눈이 불편한 사람        |           |        |
| 애꾸눈   |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     |           |        |
| 불구자   | 몸이 불편한 사람        |           |        |
| 정상인   | 일반인              |           |        |
| 앓은뱅이  | 다리가 불편한 사람       |           |        |
| 정상인   | 일반인              | 예외        | 1      |

표7-2에 따르면 단어형 차별어에 대한 대안 표현으로 설명적 표현이 10개 항목으로 가장 많고 현행 장애용어가 8항목을 차지한다. 현행 장애용어 중 선호도가 높은 항목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1) 장애 유형의 인지도가 높다.
- (2) 장애용어가 알기 쉽다.
- (3) 현행 장애용어가 비교적 오랫동안 쓰였다.

한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적장애인은 2008년 3월 이전 용어인 정신지체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으로 바뀌었다. 이 지적장애인에는 무뇌아, 정신박약자, 저능아가 포함되며,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지도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병신, 절름발이, 불구자, 앓은뱅이가 포함되지만, 현행 장애용어(지체장애인)의 선호도는 31.2%, 29.7%, 29.6%, 32.5%(표7-1)인 데 비해, 설명적 표현의 (전체) 비율은 62.7%, 60.9%, 62.1%, 60.5%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선호도를 보인다. 즉, 현행 장애용어 중 지체장애인은 대안 표현으로서의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낮다. 또한 설명적 표현 중에서는 ‘~가 있는 사람’ 또는 ‘~을 가진 사람’ 보다는 ‘~가 불편한 사람’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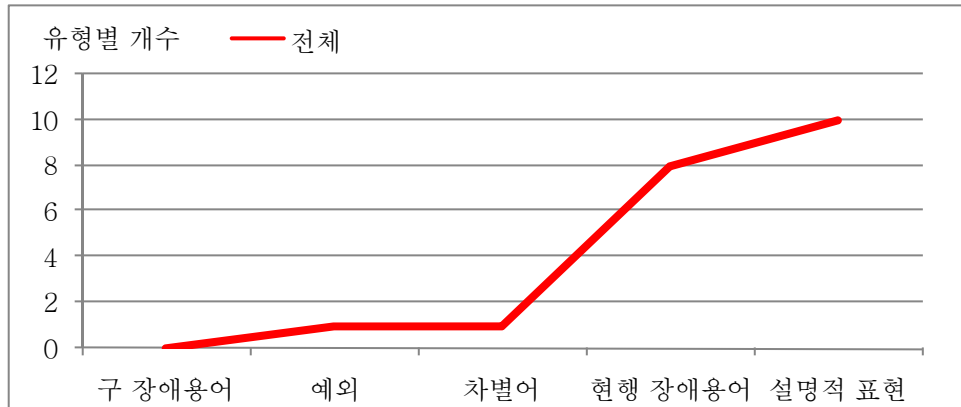
한편 사팔뜨기, 애꾸눈은 현행 장애용어의 시각장애인에 포함되나, 장님, 맹인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이 각각 32.9%, 44.6%로 설명적 표현 유형의 48.7%, 49.6%에 가깝다. 즉 시각장애인이 현행 장애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애 내용에 비해 장애용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안 표현으로서 쉽게 결부되지 못하는 현상이 보인다.

‘정상인’의 경우는 대안 표현으로 정상인이 21.2%, 비장애인이 21.2%인 데 비해 일반인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상인’은 특수한 경우로서 장애인과 대립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만이 차별어로 볼 수 있는 단어이므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인’이 선호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의 그림 7-1과 같이 현행 장애용어보다 설명적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장애용어 중 지체장애인의 ‘지체(뒤떨어짐)’가 가지는 어감적인 문제점과 지적장애인이 최근에 개정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7-1 전체 단어형 차별어 대안 표현 경향



### 7.3 대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여기에서 조사대상자를 대학생과 일반인의 그룹별로 대안 표현의 특징 및 개별적 대안 표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양 그룹간의 의식 비교를 고찰하고자 한다.

#### 7.3.1 대학생과 일반인의 대안 표현의 특징

조사대상자의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인원 구성으로 있다.

조사대상자 { 대학생(247 명) → 전체 조사대상자 (358 명)  
 일반인(111 명)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대안 표현의 유형별로 보면(그림 7-2), 대학생은 현행 장애용어를, 일반인은 설명적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어를 대안 표현의 유형별로 분류, 정리하여 표 7-3에 제시하였다.

그림 7-2 그룹별 대안 표현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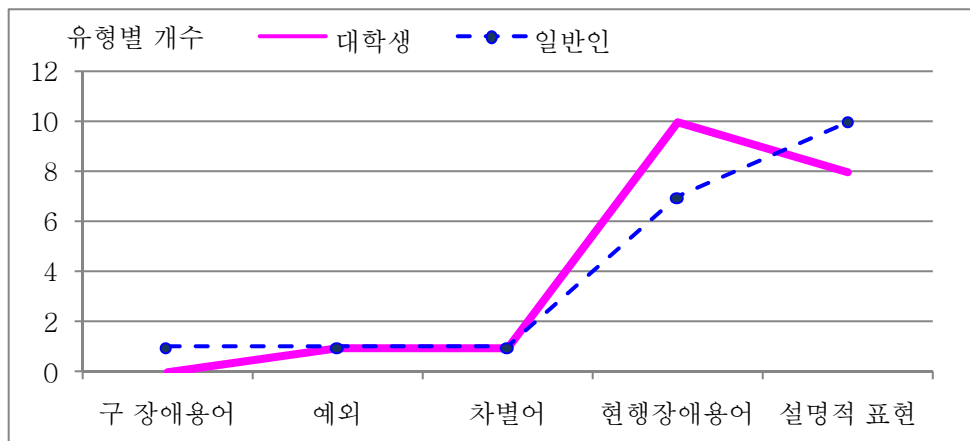


표7-3 그룹별 대안 표현의 내용

| 대안 표현 유형 | 대학생                                                                               | 일반인                                                                      |
|----------|-----------------------------------------------------------------------------------|--------------------------------------------------------------------------|
| 차별어      | 장애우                                                                               | 장애우                                                                      |
| 현행 장애용어  | 장애자,<br>언청이, 병어리,<br><u>외눈박이</u> , 농아인, 맹인, 귀머거리,<br>장님, <u>애꾸눈</u><br><u>저능아</u> | 장애자,<br>병어리, 언청이,<br>농아인, 맹인, 귀머거리, 장님                                   |
| 구 장애용어   |                                                                                   | <u>정신박약자</u>                                                             |
| 설명적 표현   | 사팔뜨기,<br>무뇌아, <u>정신박약자</u><br>난쟁이, 절름발이, 앓은뱅이<br>불구자, 병신                          | <u>외눈박이</u> , 사팔뜨기, <u>애꾸눈</u><br>무뇌아, 저능아<br>난쟁이, 절름발이, 앓은뱅이<br>불구자, 병신 |
| 예외       | 정상인                                                                               | 정상인                                                                      |

표7-3에 따르면 대학생과 일반인의 대안 표현은 20개 차별어 단어형 중에서 저능아, 애꾸눈, 난쟁이, 외눈박이, 정신박약자 등 4개 단어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 중 시각장애자에 포함되는 애꾸눈, 지적장애자에 포함되는 정신박약자와 이에 덧붙여 지체장애자에 포함되는 난쟁이를 중심으로 이하 개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7.3.2 개별적 대안 표현의 비교

애꾸눈(그림 7-3), 난쟁이(그림 7-4), 정신박약자(그림 7-5)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일반인의 선호도를 비교하면, 각 차별어가 지닌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먼저 ‘애꾸눈’의 대안표현으로 학생들은 설명적 표현(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보다 현행 장애용어(시각장애인)를 더 선호하는 데에 비해 일반인은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비율(59.0%)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애꾸눈이라는 표현이 ‘한쪽 눈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설명적 표현에 비해 현행 장애용어는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어 일반인은 설명적 표현을, 대학생들은 현행 장애용어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난쟁이’의 대안표현으로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설명적 표현(성장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구 장애용어(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행 장애용어(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며, 대학生の 경우는 현행 장애용어의 비율과 차별어의 비율이 같다. 즉 난쟁이에 대한 대안 표현은 난쟁이가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의미상의 회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 이러한 의식은 구 장애용어인 왜소증 장애인이 딱딱한 어감의 용어인 데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엇볼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지체’가 가지는 어감이 대안 표현으로 정착하는 데에 난점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정신박약자’의 경우를 보면, 대안표현으로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현행 장애용어(지적장애인), 구 장애용어(정신지체장애인), 설명적 표현(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의 비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비율(33.3%)이 더 높고, 일반인은 구 장애용어를 선호하는 비율(37.6%)이 높았다.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새로운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대학생은 설명적 표현으로 일반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대안 표현에 같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7-3 ‘애꾸눈’의 대안 표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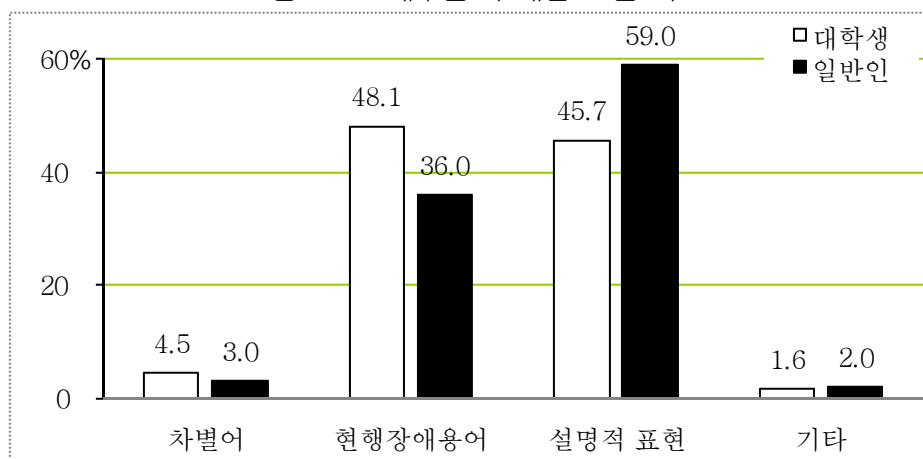


그림 7-4 ‘난쟁이’의 대안표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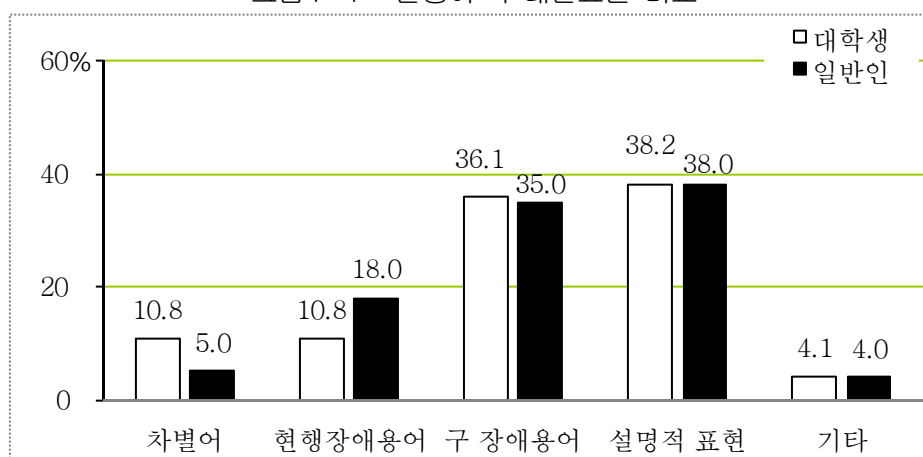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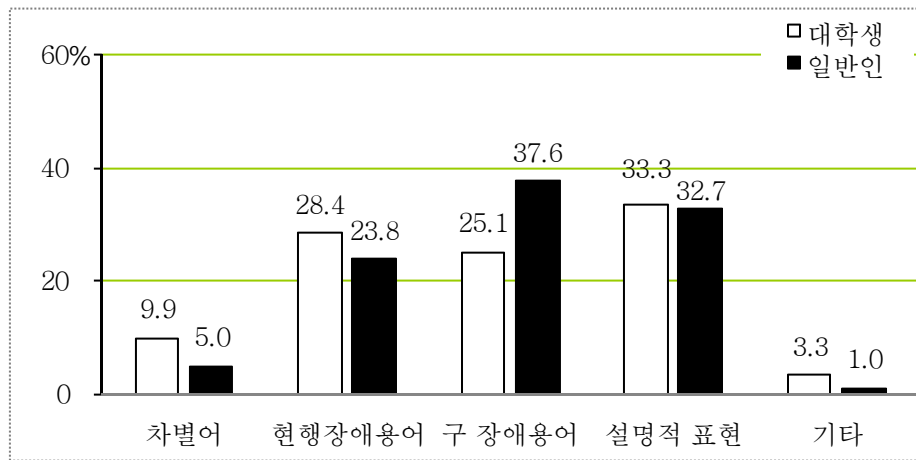


그림 7-5 ‘정신박약자’의 대안표현 비교



#### 7.4 독립적 단어형 대안 표현의 특징

지금까지 독립적 단어형별 대안 표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현행 장애용어는 차별어에 같음하여 선호도가 높은 데에 비해,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대안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라는 장애 용어는 장애 유형의 인지도가 높고 알기 쉬우며, 현행 장애용어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장애인은 2008 년 3 월에 개정된 용어이므로 아직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체장애인은 설명적 표현(~ 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체(뒤떨어짐)’가 가지는 어감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애꾸눈, 난쟁이, 외눈박이, 사팔뜨기 등은 장애내용을 통합한 형태인 현행 장애용어가 의미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안 표현으로서 효과는 미약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명적 표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그룹별로는 대학생보다 일반인이, 차별어 단어별로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이 같은 경향이 강했다.

## 제 8 장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여기에서는 장애인 차별어가 쓰여진 언론매체의 기사문을 추출하여 그에 갈음하는 적절한 대안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문맥 속 단어형은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와는 달리 차별어가 어떠한 기능으로 사회적으로 유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 8.1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유형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은 통일적으로 1~5까지의 유형화된 대안 표현을 제시하였다.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에 대한 대안 표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 차별어 : 차별어를 그대로 사용한 표현
- (ii) 현행 장애용어 :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의 현행 장애용어를 제시한 표현
- (iii) 설명적 표현 : ~가 불편한 사람, ~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늦는 사람 등의 표현
- (iv) 문맥적 적합어 : 차별어를 사용을 피하고 문맥에 적합한 표현
- (v) 기타 : 제시한 대안 표현 외에 구체적으로 직접 기입한 표현

문항에 따라서는 설명적 표현이 두 개 사용된 경우도 있고, 문맥적 적합어가 제시되지 않은 항목도 21 항목 중 4 항목이 있다.

### 8.2 전체적인 경향

언론매체를 통해 공공연히 보도되는 차별어 중에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해 비난의 목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이는 예를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하는 조짐까지 보인다. 이에 대해 실제로 유통되는 차별어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안 표현의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 8.2.1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선호도

표8-1에서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어는 모두 21개 항목이며, 각 항목별로 제시된 5개의 대안 표현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해 준 표현을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는 독립적 단어형 항목과 마찬가지로 차별어 20개 항목이지만, 병어리의 경우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21개 항목이다. 병어리 항목은 병어리(1)과 병어리(2)로 표기한다. 또한 이하 괄호 속에 조사표에 함께 제시한 예문의 일부를 병기하여, 문맥 속 차별어의 쓰임을 보였다.

먼저, 표8-1에 따르면 차별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한 항목은 장애우(서명식도 열렸다. 장애우들이 반겨 마땅한 일이다)가 가장 높으며, 이 이외에도 애꾸눈, 귀머거리, 난쟁이, 병어리 등 20%를 웃도는 항목이 눈에 띈다. 이는 앞의 독립적 단어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차별어가 문맥상에서 허용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장애용어는 맹인(3남1녀의 아버지이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장애자(장애자에게도 일할 권리를 주는), 농아인(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이라니)이 30%를 넘는다. 기사문의 문맥은 모두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병신, 언청이, 정신박약자, 귀머거리, 장님 등이 장애인을 지칭하는 대안 표현으로 현행 장애용어를 선호하였다. 즉, 장애인 차별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설명적 표현의 선호도가 높은 단어는, 장애자, 애꾸눈(마치 애꾸눈을 연상케 하는), 언청이(말 더듬이와 언청이가), 정상인(정상인의 걸음걸이로 10분이 넘게), 불구자(불구자 친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절름발이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예문들은 장애인 차별적으로 쓰인 내용이지만 문맥적 대안 표현으로 현행 장애용어보다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맥 적합어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차별어 문항은 장님(장님 노인이 살아온 생애가), 병어리(1)(기자출신 의원들은 병어리 됐나), 저능아(꼭 저능아처럼 행동한다), 병어리(2)(병어리래요, 말을 못하는 병어리래요), 앓은뱅이(앓은뱅이 구의원은 필요 없다), 사팔뜨기(그 단체는 사팔뜨기 증상을 앓고 있고), 무뇌아(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무뇌아로 모는), 외눈박이(‘외눈박이’ 시각으로) 이다. 여기에 쓰인 예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쓰임과 비유적인 쓰임이 함께 보인다. 즉 문맥적 적합어 대안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장님(앞을 못 보는 노인이), 병어리(1)(기자출신 의원들은 말 문을 닫아 버렸나), 저능아(꼭 철부지처럼 행동한다), 병어리(2)(말을 못한다고), 앓은뱅이(게으른 구의원은 필요 없다), 사팔뜨기(그 단체는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뇌아(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생각 없는 사람으로 모는), 외눈박이(편협된 시각으로)가 된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차별어 사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8-1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선택 비율

|                  | 차별어   | 현행 장애용어 | 설명적 표현           | 문맥 적합어 | 기타   | 합계   |
|------------------|-------|---------|------------------|--------|------|------|
| 장애우              | 42.4% | 20.6%   | 24.4%<br>(12.0%) | -      | 0.6% | 100% |
| 맹인               | 19.0% | 53.3%   | 12.5%            | 14.7%  | 0.6% | 100% |
| 장애자              | 11.7% | 33.4%   | 30.9%<br>(19.7%) | -      | 4.3% | 100% |
| 농아인              | 17.1% | 30.8%   | 23.6%            | 28.2%  | 0.3% | 100% |
| 애꾸눈              | 22.9% | 14.1%   | 30.0%            | 24.4%  | 8.5% | 100% |
| 병신               | 10.2% | 21.8%   | 34.2%            | 33.6%  | 0.3% | 100% |
| 언청이              | 17.3% | 26.1%   | 36.4%            | 18.5%  | 1.7% | 100% |
| 정상인 <sup>2</sup> | 16.3% | 17.1%   | 50.0%            | 14.3%  | 2.3% | 100% |
| 불구자              | 12.1% | 18.9%   | 53.7%<br>(14.4%) | -      | 0.8% | 100% |
| 절름발이             | 15.8% | 11.9%   | 55.4%<br>(16.1%) | -      | 0.8% | 100% |
| 정신박약자            | 14.5% | 27.5%   | 23.7%            | 30.6%  | 3.8% | 100% |
| 귀머거리             | 28.4% | 21.2%   | 8.9%             | 38.7%  | 2.9% | 100% |
| 난쟁이              | 21.2% | 11.0%   | 21.4%            | 43.5%  | 2.9% | 100% |
| 장님               | 18.5% | 23.9%   | 7.4%             | 50.0%  | 0.3% | 100% |
| 병어리(1)           | 19.9% | 17.7%   | 10.0%            | 51.3%  | 1.1% | 100% |
| 저능아              | 10.5% | 17.4%   | 15.4%            | 52.7%  | 4.0% | 100% |
| 병어리(2)           | 26.8% | 10.3%   | 6.8%             | 54.4%  | 1.7% | 100% |
| 얕은뱅이             | 14.7% | 10.3%   | 12.4%            | 59.8%  | 2.9% | 100% |
| 사팔뜨기             | 15.5% | 9.5%    | 12.0%            | 60.7%  | 2.3% | 100% |
| 무뇌아              | 12.2% | 14.5%   | 11.6%            | 60.8%  | 0.9% | 100% |
| 외눈박이             | 14.1% | 8.5%    | 5.6%             | 70.1%  | 1.8% | 100% |

### 8.2.2 문맥 속 단어형의 대안 표현

다음의 표8-2에는 표8-1의 각 차별어 항목에 대한 대안 표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안 표현을 중심으로 대안 표현, 대안 표현의 유형, 유형별 개수를 정리, 제시하였다. 먼저 유형별 개수를 보면 문맥적 적합어가 11 문항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어와 회피하는 것이 보다 사회적으로 원활한 언어 소통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독립적 단어별 대안 표현과 마찬가지로 장애우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의식

<sup>2</sup> 정상인의 대안 표현은 모두 ①정상인(그대로 좋음) ②비장애인 ③일반인 ④어른 ⑤기타( )로 되어 있어, 설명적 표현 형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편의상 설명적 표현에 포함시켰다.

이 강하여 장애인 차별어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문맥 속에 쓰인 차별어는 문맥적 흐름의 영향에도 좌우되지만 차별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반영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문맥 속 대안 표현에서는, 현행 장애용어<설명적 표현>문맥적 적합어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8-1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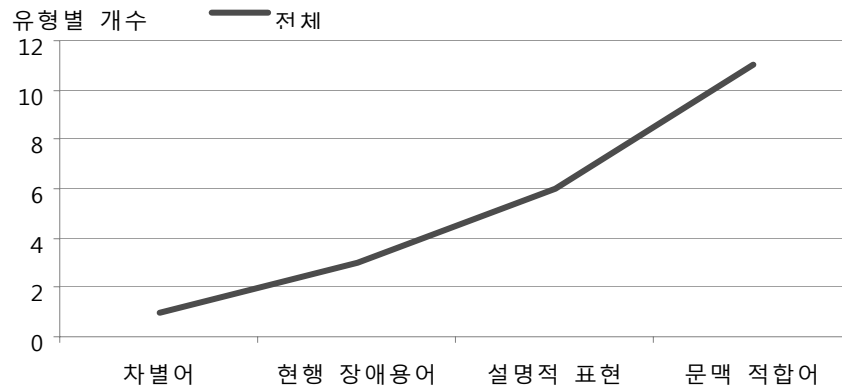
이는 문맥 속에 쓰인 장애인 차별어는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에 비해 비판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8-2 단어별 대안 표현

| 차별어    | 대안 표현            | 대안 표현의 유형 | 유형별 개수 |
|--------|------------------|-----------|--------|
| 장애우    | 장애우              | 차별어       | 1      |
| 맹인     | 시각장애인            | 현행 장애용어   | 3      |
| 장애자    | 장애인              |           |        |
| 농아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
| 애꾸눈    |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     | 설명적 표현    | 6      |
| 병신     | 몸이 불편한 사람        |           |        |
| 언청이    |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      |           |        |
| 정상인    | (일반인)            |           |        |
| 불구자    | 몸이 불편한 사람        |           |        |
| 절름발이   | 다리가 불편한          |           |        |
| 정신박약자  | 사람               | 문맥 적합어    | 11     |
| 귀머거리   | 현대인의 귀를 아프게 만든다  |           |        |
| 난쟁이    | 서민(을)            |           |        |
| 장님     | 앞을 못 보는          |           |        |
| 병어리(1) | 말 문을 닫아버렸나       |           |        |
| 저능아    | 철부지              |           |        |
| 병어리(2) | 말을 못한대요          |           |        |
| 얕은뱅이   | 게으른              |           |        |
| 사팔뜨기   |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           |        |
| 무뇌아    | 생각 없는 사람         |           |        |
| 외눈박이   | 편협된              |           |        |



그림8-1 문맥 속 단어별 대안 표현



### 8.3 대학생과 일반인의 의식 비교

여기에서는 총 조사대상자 358명 중 대학생(247명)과 일반인(111명)으로 나누어 문맥 속 대안 표현에 나타나는 의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림 8-2를 보면 설명적 표현과 문맥적 적합어의 사이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의 그래프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즉 대안 표현으로 대학생은 문맥적 적합어를 선호하는 데에 비해 일반인은 독립적 단어형과 마찬가지로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어 항목은 표 8-3에 대안 표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장애자, 병신, 정신박약자의 3개 항목에 집중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그림8-2 그룹별 대안 표현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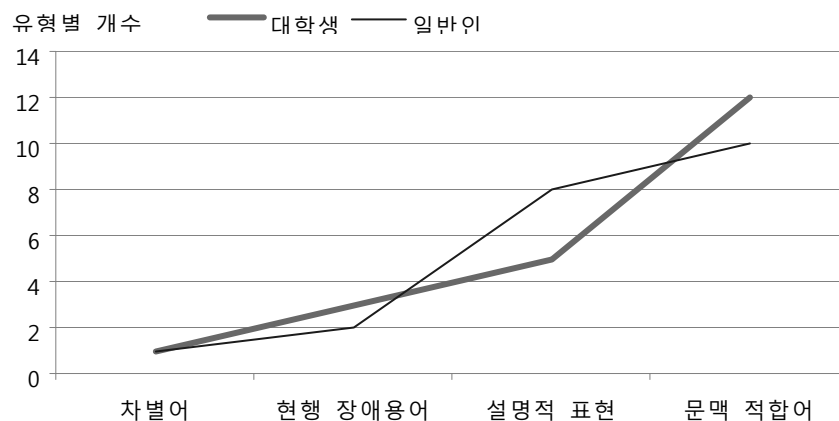


표8-3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의 연령별 선호 경향

| 대학생     |                                                                                  | 일반인                                                                  |
|---------|----------------------------------------------------------------------------------|----------------------------------------------------------------------|
| 차별어     | 장애우                                                                              | 장애우                                                                  |
| 현행 장애용어 | 장애자<br>농아인, 맹인                                                                   | 농아인, 맹인                                                              |
| 설명적 표현  | 애꾸눈, 언청이<br>불구자, 절름발이<br>정상인                                                     | 애꾸눈, 언청이,<br>불구자, 절름발이<br>병신, 장애자, 정상인<br>정신박약자                      |
| 문맥적 적합어 | 귀머거리,<br>병어리(1), 병어리(2),<br>장님, 사팔뜨기, 외눈박이<br>병신, 앓은뱅이, 난쟁이,<br>정신박약자, 저능아, 무뇌아, | 귀머거리,<br>병어리(1), 병어리(2),<br>장님, 사팔뜨기, 외눈박이<br>앓은뱅이, 난쟁이,<br>저능아, 무뇌아 |

#### 8.4 단어형 대안표현의 연령별 분석

여기에서는 병신, 정신박약자, 장애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그룹별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병신은 ‘“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병신이 아니다” 라며 재활기구들을 옛장수에게 팔아 넘기겠다 (이하 생략)’의 문맥 속에 쓰인 예이며, 이에 대한 대안 표현은 다음과 같다.

- 차별어 유형 : 병신(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병신이 아니다)
- 현행 장애용어 : 지체장애인(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지체장애인이 아니다)
- 설명적 표현 : 몸이 불편한 사람(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 문맥적 적합어 : 힘든 상태(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힘든 상태가 아니다)

그림8-3에서 대학생은 차별어<현행 장애용어<설명적 표현<문맥적 적합어의 순으로 문맥적 적합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일반인은 설명적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

접 장애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이지만, 대학생은 이를 회피하는 문맥적 적합어를 선호하고 일반인은 이를 완화시켜 표현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신박약자의 경우, 제시된 기사문은 ‘체력이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안 표현은 다음과 같다.

- 차별어 유형 : 정신박약자(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
- 현행 장애용어 : 지적장애인(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지적장애자에게 술을 주는 것)
- 설명적 표현 :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리고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에게 술을 주는 것)
- 문맥적 적합어 : 사람(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사람에게 술을 주는 것)

문맥 속의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림 8-4에 따르면 현행 장애용어와 설명적 표현, 문맥적 적합어 모두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미성년과 대비된 의미로 현행 장애용어(지적장애인)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맥적으로 ‘지각이 흐린’을 고려하여 문맥적 적합어(사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일반인들은 현행 장애용어보다는 설명적 표현, 설명적 표현보다는 문맥적 적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편으로 차별어(정신박약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문맥 속에서 차별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식도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애자 항목은 1989년 이후 장애인으로 순화되어 상당히 정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기사문에서는 ‘장애자에게도 일할 권리를 주는’이라는 문맥이다. 그림 8-5에 따르면 대학생은 현행 장애용어(장애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일반인의 경우 문맥적 적합어(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을 볼 때 대학생과 일반인 사이에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 차이는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경우, 장애인에 관한 용어를 회피하지 않고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려 하지만, 일반인은 가능한 온화한 표현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줄이려고 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8-3 '병신'의 대안 표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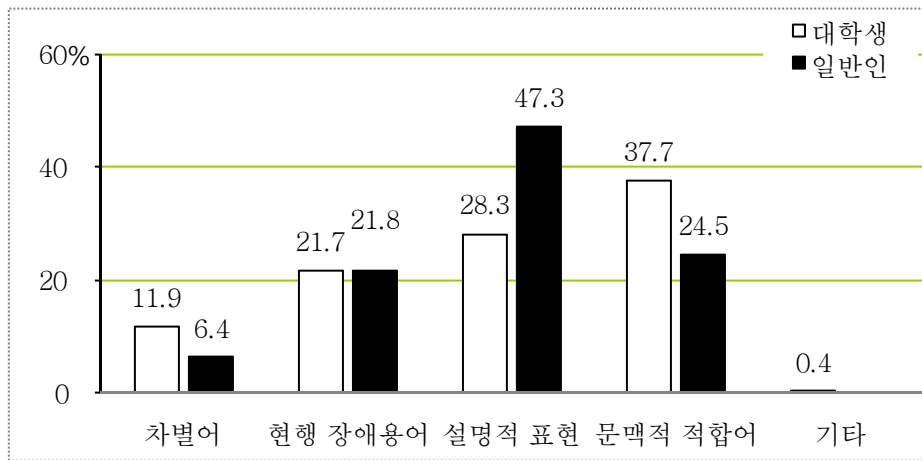


그림 8-4 '정신박약자'의 대안 표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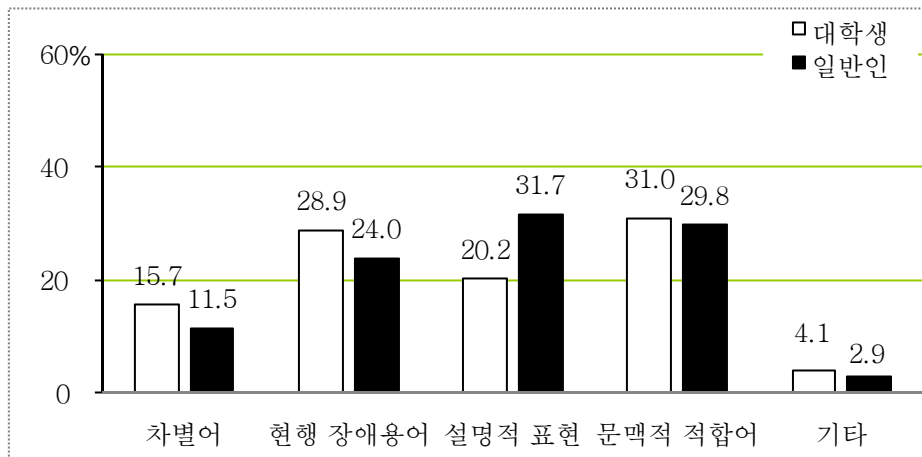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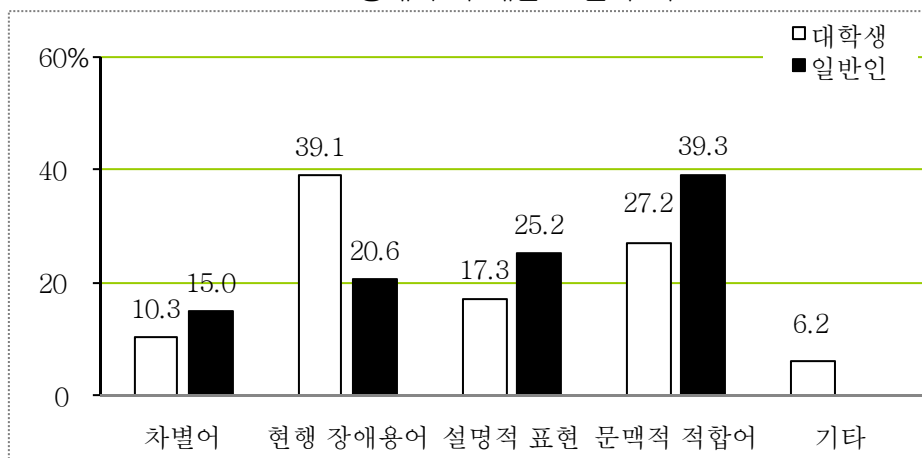


표 8-5 '장애자'의 대안 표현의 비교



### 8.5 문맥 속 단어형 대안 표현의 특징

이상으로 문맥 속 단어형에는 기사문 내용상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와 그 외의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대안 표현의 유형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는 독립형 단어의 대안 표현과 마찬가지로 현행 장애용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문맥적 적합어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언론매체가 장애인 차별어를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의 남용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 제 9 장 장애인 차별어의 특징과 앞으로의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차별어를 다각도에서 다루어, 현대인들의 차별어에 대한 차별 의식을 파악하고 그 대안 표현을 제시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 차별어를 각각 독립적 단어형, 문맥 속 단어형,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로 나누어 의식 평가 조사 및 대안 표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 및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20 개 항목) 및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21 개 항목)

귀머거리, 난쟁이, 농아인, 맹인, 무녀아, 병어리, 병신, 불구자, 사팔뜨기, 앓은뱅이, 애꾸눈, 언청이, 외눈박이, 장님, 장애우, 장애자, 저능아, 절름발이, 정상인, 정신박약자, (병어리)

### 2.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11 개 항목)

병신 육갑 떴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못지않게,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병어리 냉가슴 앓다, 꿀먹은 병어리,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불구가 되다, 절름발이 내각, 절름발이 지성인

### 3. 조사 내용

|                    |   |                     |
|--------------------|---|---------------------|
| (i)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    | } | 의식 평가 조사 — 대안 표현 조사 |
| (ii)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  |   |                     |
| (iii)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 |   |                     |

독립적 단어형은 차별어 20 개에 대한 의식 평가 및 대안 표현 조사이며, 이 단어형이 사용된 신문 기사를 제시한 유형을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라 하였다. 조사에서는 예시문에 대한 의식 평가 및 대안 표현을 조사하였다. 속담 및 표현형은 위의 11 개 항목에 대하여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와 마찬가지로 사용례를 제시하고 의식 평가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 9.1 장애인 차별어의 특징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차별어의 의식 평가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차별의 정도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안 표현의 분석에서는 대안 표현의 유형별(차별어, 현행 장애용어, 설명적 표현, 문맥 적합어)로 선호도를 산출하고 검토,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차별어에 관한 다음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1)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의 평가에서 차별성이 높은 그룹(병신, 저능아, 애꾸눈, 무녀아, 앓은뱅이, 불구자), 차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룹(난쟁이, 귀머거리, 절름발이, 외눈박이, 사팔뜨기, 병어리, 언청이, 정신박약자),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장님, 장

애자, 농아인, 정상인, 맹인, 장애우)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차별성이 높은 그룹은 대체로 욕설에 쓰일 수 있는 비속어적인 어휘들이 많고 인간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며,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단어들은 그 대부분이 비속어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차별어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맥속 단어형과 속담 및 표현형 차별어의 평가는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의 평가에 비하여 차별어적 평가가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맥 또는 속담 속에 쓰이더라도 독립적 단어형이 가진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았다.

(3) 독립적 단어형 차별어의 대안 표현은 현행 장애용어와 설명적 표현으로 거의 양분되어 나타났다. 그 중 현행 장애용어를 선호하는 경우(장애자, 언청이, 농아인, 외눈박이, 맹인,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는 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현행 장애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정착된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설명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우(무너아, 정신박약자, 저능아, 난쟁이, 병신, 절름발이, 불구자)는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에 포함되는 장애 내용으로 이들 용어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꾸눈’ ‘사팔뜨기’ 등은 시각장애인에 포함되나 ‘맹인’ ‘장님’과는 장애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장애용어가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원인이 있겠다.

(4) 문맥 속 단어형 차별어의 대안 표현은 기사문 내용이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와 그 외의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따라, 대안 표현의 유형도 달라지는 경향이 보였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단어형의 대안어와 마찬가지로 현행 장애용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보였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은 장애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문맥적 적합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능한한 장애인 차별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일반적인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언론매체의 장애인 차별어를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의 남용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 9.2 대안 표현의 개선 방향

현행 장애인용어는 그 범위를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차별어에만 국한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 등에 대한 순화기능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대안 표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문맥적 적합어가 차별어의 대안 표현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차별어 개선 방향은 문맥 속 차별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맥에서 사용하는 차별어의 경우에는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미온적인 분위기가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표현에 대한 순화 범위를 넓혀 비유적인 표현에서도 삼가도록 하는 순화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문맥 속 대안 표현에서 차별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은 독립적 단어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순화교육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인용문헌】

- 강석주(2008),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2002), 주요 중앙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 경향 분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성(2000), 장애인 용어 변천,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 이익섭(1990), 한국장애자 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장애인 복지 지역지도자자료집,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005), 인터넷 매체 속의 장애인 이미지, 언론모니터보고서
-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1997), 장애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2005), 인터넷 매체 속의 장애인 이미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05 언론모니터
- 조태린(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국립국어원
- 한국장애인(2001),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서울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遠藤織枝 (2003) 『視覚障害者と差別語』 明石書店
- 高木正幸(1990) 『差別用語の基礎知識- 障害者の差別用語を中心に』
- 田中克彦(2001) 『差別語からはいる言語学入門』 明石書店
- 東京・障害者問題を考える集い編 (1994) 『「常識」の壁に向かってー障害を担う21人の発言』 新教出版社
- 西尾秀和(2001) 『差別表現の検証- マスメディアの現場から』
- 生瀬克己(1986) 『障害者と差別語-健常者への問いかけ』
- 曹洞宗宗務廳編(1994) 『差別語を考えるガイドブック』 開放出版社
- 田中克彦(2001) 『差別語からはいる言語学入門』
- Allport, Gordon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 Addison Welsey

- Safilios-Rothschild, C. (1976) *The Sociology of Physical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Pittsburgh: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Thoreson,R.W. & Kerr, B.A.(1978) “The Stigmatizing Aspects of Severe Disability:  
Strategies for Change”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9(2)
- Wright, B.A (1960) *Physical Disability: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Harper  
Row)

### 【인터넷 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명칭 새로 만들기’ 운동(<http://www.mw.go.kr/>)
- 인터넷 장애인 신문(에이블 뉴스: <http://ablenews.co.kr/>)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http://www.cowalk.or.kr/>)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http://www.wefirst.or.kr/>)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조홍중 교수 홈페이지(<http://www.chohongjoong.com>)
- 한국농아인협회(<http://www.kdeaf.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http://www.kodaf.or.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http://www.freeget.net/>)

## 부 록

|                                  |     |
|----------------------------------|-----|
| 부록 1. 신문 기사에 쓰인 장애인 차별어 용례 ..... | 87  |
| 부록 2. 설문지조사표 .....               | 109 |
| 부록 3. 설문자료 샘플 .....              | 120 |

## 부록1. 신문 기사에 쓰인 장애인 차별어 용례

### 1. 문맥 속 단어형

#### (1) 외눈박이

##### 일 '독도 영유권' 명기/한국 학계에서 본 일본 정부

- 일제침탈 역사 눈감고 일, 영토문제로만 접근 -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가? 일본이 독도를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외눈박이’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얻은 답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이 15 일 오전 서울 중구 의주로 바비엡 2 회의실에서 연 ‘일본 역사 교과서 재조명’ 학술 토론회에서, 홍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를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야기된 역사 문제라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오직 영토 주권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독도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일본 학생들은 영유권 다툼의 대상으로만 독도를 생각할 뿐, 이를 일제 침탈 등 역사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지는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2008 년 7 월 16 일, 04 면에서 일부 발췌)

#### (2) 정신박약자

##### '무격식 속 절제' 한국적 酒道

- 와인처럼 절차 없지만 엄격한 법도 -

고상한 음주문화 역시 우리 술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술을 가장 고귀한 음식물로 인정한 우리 민족은 술 자체를 숭상할 뿐 아니라 술에 관련된 그릇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하게 제작했다. 술 마시는 예절을 소학에서 가르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술 마시는 예의범절을 익히게 했고 술자리에는 항상 노래와 춤, 시조가 빠지지 않아 운치를 돋우고 고결한 풍류를 즐겼다.

한편, 우리 조상들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결례를 범하는 것을 매우 경계

했으며 반드시 상대의 주량에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했다. 그런 이유로 조상들은 성인례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술을 권했는데 이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체력이 강건한 사람만이 술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임을 뜻한다. 체력이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 같은 전통은 술을 단지 발효음료가 아닌 대단히 고귀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타인으로부터 술을 대접받는 것은 곧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여기며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30일, KP 면에서 일부 발췌)

### (3) 애꾸눈

#### weekend-스타일 / 비대칭 컷 - 돌아온 애꾸눈

- 단순하고 멋스럽게 -

“머리 꼬락서니 하고는...” 살벌한 밥상 분위기. 신문을 보던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은 아들의 모습을 훑는다.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아들의 머리. 한쪽 눈을 덮은 아들의 헤어스타일이 못마땅한 듯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을 흘긴다. 맞은편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을 세고 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나의 희망’이라 입력했다. 이를 본 아들은 활짝 웃으며 출근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대립 각을 세우는 아버지와 신세대 아들. 여느 집안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 풍경은 한 이동통신사 광고의 한 장면이다.

이 광고에서 아버지가 못마땅해 한 아들의 헤어스타일은 바로 ‘비대칭 컷.’ 한쪽은 짧고 다른 한쪽은 눈을 덮을 정도로 긴 앞머리가 특징이다. 아버지는 모르는 최신 유행의 세계, 마치 애꾸눈을 연상케 하는 이 ‘꼬락서니’는 이미 대세가 됐다.

(중략)

○90년대 ‘김건모 머리’ 이어받은 헤어스타일의 미니멀리즘

비대칭 컷으로 대표되는 애꾸눈 스타일의 기원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 년대에 한쪽 머리를 완전히 넘기고 한쪽은 날카롭게 내린 것을 시작으로 1990 년대에는 일명 ‘김건모 머리’라며 앞머리를 볼에 붙여 내린 스타일이 유행했다. 비대칭 컷은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치장을 최소화하자’는 미

니멀리즘 분위기를 담고 있다.

(동아일보, 2007년 12월 28일, 62면에서 일부 발췌)

#### (4) 난쟁이

##### <아빠가 건네주는 동화책> 난쟁이 가족은 아직도 힘들단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 세 희 | 이성과힘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다. 그 때는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건너가는 시기였지. 아빠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도시로 떼밀려 와 공장에 다녔단다. 돈 없고 힘 없고 뒷배 지켜 주는 사람도 없는 난쟁이를 조상으로 둔 덕분이었어. 보리밥처럼 엉성한 가족을 둔 거지. 까만 된장만큼 비쩍 마른 얼굴을 한 누나, 시든 고추처럼 축 늘어진 남동생, 줄인 감자처럼 타 들어간 어머니, 앓은뱅이, 꺾추, 떠돌이 약장수들이 우리 친척이었어요. 난쟁이 식구들은 악착같이 일했단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일거리가 정해져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귀찮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을 밀며 천신만고 끝에 달동네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니? 그러나 난쟁이 가족들에게 행복은 짧고 슬픔은 긴 인생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철거 계고장이 날아든 거야. 뉴타운 개발이라면 쉽게 이해하겠지.

문제는,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오늘날에도 난쟁이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 공약을 건 747 정책(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부자 나라)은 채 반년도 못가, 7% 물가상승, 4% 부자들을 위한 나라, 7%대의 대통령 지지율로 바뀌었지.

(경향신문, 2008년 7월 5일, 21면에서 일부 발췌)

(5) 저능아

[메아리] '공중그네'까지 탈 수 있다면

지난 1 년 서울대생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 봤다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심각하고 진지한 독서 싫어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일본 코믹소설 <공중그네>.

(중략)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름이 이라부인 한 괴짜 똥보 정신과의사의 환자치료기이다. 줄거리를 나열하면 읽을 사람 김빠질 테고, 읽은 사람 지루할 테니 생략하고,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왜 재미있는가만 간단히 말해보자. 우선 캐릭터들이 별나다. 정신과의사라는 게 지적 분위기와는 답을 쌓았으며, 의학용어는 쓸 줄 모른다. 환자 앞에서 꼭 저능아처럼 행동한다. 환자 역시 뽀족한 물건에 공포를 느끼는 야쿠자, 공중그네를 자꾸 놓쳐 떨어지는 서커스 단원, 공을 못 잡는 신인 왕 후보 야구선수 등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업에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한국일보, 2008 년 6 월 25 일, 35 면에서 일부 발췌)

(6) 앓은뱅이

[구의회 의장 릴레이 인터뷰] 김상현 강서구의회 의장“준공업 지역 해제에 전력”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상현(55) 강서구의회 의장은 의정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4 선 구의원으로서 구 현안을 꿰뚫고 있는 김 의장은 22 일 “앓은뱅이 구의원은 필요없다”면서 “열심히 뛰고 보고 느끼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업 지역 관련 규정 완화에 따른 후속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준공업지역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했다. 이는 강서구 가양·염창동 준공업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 발전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도다.

김 의장은 “우리 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염창·가양동의 준공업 지역은 축소·해제돼야 한다.”면서 “염창·가양동 준공업 지역을 새로 만드는 마곡지구 준공업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위 조사결과에 따

라 기존 준공업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중략)

김 의장은 “구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450 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혀 있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 ‘발전하는 강서,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08 년 7 월 23 일, 11 면에서 일부 발췌)

#### (7) 사팔뜨기

##### 현장에서 / 中 외교부 대변인의 ‘막말’

중국 정부의 얼굴격인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유명 국제인권단체를 지목해 “백내장에 걸린 사팔뜨기” 등의 막말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 일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장. 한 외국인 기자가 “최근 한 국제적인 인권단체에 따르면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들을 구속 또는 가택연금하고 농민공(農民工)에 대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기자가 말한 인권단체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민간 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 워치(HRW)’였다.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친강(秦剛) 대변인의 공격성 답변이 튀어나왔다. 친 대변인은 “그 단체가 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분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친 대변인은 “그 단체는 자칭 휴먼라이츠 워치라고 하는데 그 시력에 문제가 있다”며 제일성을 터트렸다.

친 대변인은 이어 “그 단체는 사팔뜨기 증상을 앓고 있고 백내장에 걸려 있다”고 극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극심한 약시현상을 앓고 있기도 하다”고도 했다.

친 대변인은 “그 같은 눈병을 앓고 있는 단체가 보고 결론 내린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친 대변인은 그래도 분이 다 안 풀렸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분명하다”며 “우리(중국 정부)는 그 단체가 안경이나 끼고 다닐 것을 희망한다”고 말을 맺었다.

(문화일보, 2008 년 3 월 13 일, 28 면에서 일부 발췌)

(8) 병어리 ①

조중동과 싸워라 그래야 국민이 알아준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10 일 밤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외치고 있다.

(중략)

이제 진짜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자. 조중동이 그토록 무서운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가. 1년 전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길길이 뛰던 조중동이 지금은 한마디도 안하고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게 신문인가.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들을 좌파세력의 선동이니 한총련이니 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 왜곡 편파 과장 허위보도를 하는 조중동이 지금 입에 재갈을 물었다. 이런 언론을 보면서 화도 안 나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가. 말 잘하는 정치가들 다 어디로 가셨는가. 기자출신 의원들은 병어리 됐다. 조중동과 싸우는 척만 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알아준다. 조중동 앞에서 고개 떨구고 있는 한 희망을 접어라. 그저 지구당 위원장 자리나 가지고 파벌 싸움이나 하면 되겠지.

(중략)

지금 이 땅의 언론을 시궁창으로 처박을 인물들이 매일 언론사 사장으로 거명되는데 민주당은 정말 모르고 있다. 그들이 사장이 되면 당할까 겁이 나서 병어리냐. 아니면 조중동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가. 하기야 조중동 기자와 술 한 잔 마시고 골프 한번 치면 일 년 열 두 달 자랑하고 다니는 털 떨어진 야당정치인과 고위 당직자들을 안다.

(브레이크뉴스, 2008 년 6 월 12 일에서 일부 발췌)

(9) 불구자

‘수필같은 비평’ 세권… 신선한 바람

◇신예 평론가 정여울씨는 비평집 ‘내 서재에 꽂은 작은 안테나’에서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평론을 선보였다.

5 부로 나뉜 ‘네안데르탈인의 귀환’에서는 황순원의 ‘소리 그림자’, 김주영의 ‘홍어’, 성석제의 ‘홀림’ 등의 작품을 현미경적 시선으로 살핀다. ‘소리 그림자’는 어



린 시절 함께 놀다 사고로 불구가 된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죄책감에 휩싸인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애써 은폐한다. 표면적으로는 흥미로운 비극으로만 읽히지만, ‘잠자리의 눈’을 지닌 비평가는 작품을 다각도로 관찰한다. 정 교수는 불구자 친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행운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보고, 불행은 세상 탓으로 돌리는” 현대인의 이기심을 발견한다. 사고를 피했던 ‘나’는 자신을 부당한 행운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정 교수는 현대인의 자기 기만을 지적하며 동시에 상처 치유를 모색한다. 그밖에 김주영 작품에 나타난 대하역사 소설 문법의 위반, 성석제 소설에서 웃음이 갖는 의미 등을 섬세하게 분석했다. ‘네안테르탈인의 귀향’에서는 김수영 황동규 오규원 고은 등의 시 세계를 살핀다.

(세계일보, 2008년 3월 15일, 13면에서 일부 발췌)

#### (10) 장애우

##### [사설]최선의 장애우 복지는 무상교육 지원

다시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가 27 회째다. 정부는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4 일엔 청와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서명식도 열었다.

장애우들이 반겨 마땅한 일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도 그들은 거리로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6 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엇그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으며, 청와대 서명식에선 참석한 장애인 단체 대표가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몇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 일까, 혹은 요구가 지나친 걸까. 아니다. 장애우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눈여겨 본 사람들이라면, 그 ‘투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된다.

(중략)

장애우에게 최선의 복지는 자립 터전 마련이다. 적절한 일자리와 적절한 소득의 보장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적 지원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양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시혜적 조치에만 매달릴 뿐, 교육에는 소홀했다. 재가 장애인의 15.8%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경우는 45.2%에 이른다. 절반 정도가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했다. 대부분 편견과 차별, 불편한 여건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 고등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다.

(한겨레, 2007 년 4 월 20 일, 31 면에서 일부 발췌)

(11) 장애인

**[살며 사랑하며] 박경숙 / 두 처녀 이야기**

지난주엔 두 처녀의 생일이 지나갔다. 7 월에 스물 두 번 째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와 조이. 미국 이름을 가진 한국 아가씨들이다.

먼저 화요일이 생일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갔다. 엘리자베스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립병원이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특수기관에서 성장해왔다.

(중략)

생일 케이크를 잊었던 나는 인근 마켓으로 달려가 노오란 레몬 케이크 위에 분홍글씨로 '해피 버스데이 엘리자베스'를 주문한다. 그리고 스물 두 개의 초를 사며 물처럼 흘러간 세월을 더듬어 본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계산대 옆 유니폼 차림의 한 종업원이 눈에 띈다. **한눈에 보아도 다운증후군의 처녀다. 계산된 물건들을 비닐 백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를 주는 미국의 제도를 다시 인식한다.**

엘리자베스와 헤어지는 시간은 늘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성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할당량이 있기에 조금은 냉정히 돌아선다. 그녀를 만나고 올 때면 마음이 겸허해진다. 나도 모르게 삶에 대한 욕심이 한계선을 넘었을 때, 슬픈 일침을 가하며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녀가 고맙기도 하다.

(국민일보, 2008 년 7 월 17 일, 19 면에서 일부 발췌)

(12) 맹인

**[현장]촛불 든 맹인가족 “경찰 진압, 왜 그렇게까지...”**

경찰이 색소와 체류액을 섞어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진압을 하겠다고 밝힌 27 일 촛불집회 현장에 **맹인** 가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식씨(44)는 3 남 1 녀의 아버지이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그의 아내도 시각장애인이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광장 한 켠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아이들과 촛불을 들고

있는 그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곁에 있던 큰 아들 김 제일균(12)도 “촛불집회가 좀 시끄럽지만 미친 소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형편이지만 우리도 가끔 쇠고기를 먹는다. 바람은 간단하다. 정상적이고 좋은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적은 하나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경향신문, 2008 년 6 월 27 일에서 일부 발췌)

### (13) 절름발이

#### [씨줄날줄] 자살예고

“선생님.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일본 여류문학상 수상작가 이나바 마유미의 단편에서 절름발이 중학생 이토 다쿠로는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다. 그러곤 엄마와 선생님, 자기를 괴롭힌 가나이, 마쓰오카, 모치즈키, 야마다, 그리고 친구 미야모토에게 편지를 남긴다. 이지메가 너무 고통스러워 떠나지만 그런 자신을 절대 잊지는 말아달라고, 엄마와 선생님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이토가 그 뒤 생을 어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0 년이 지난 지금 제 2, 제 3의 이토가 남긴 편지와 잇단 ‘이지메 자살’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7 일 문부성에 자살을 예고하는 이지메 피해학생의 편지가 날아들고 닷새 뒤 사회각계의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중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교내 이지메 실태를 숨겼던 한 초등학교 교장도 목숨을 끊었다. 자살예고와 모방 자살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신문] 2006-11-15 31 면)

(14) 언청이

심형래씨 ‘여성비하’ 강연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 여성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식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1 일 알려졌다.

지난 30 일 김포공항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초청 연사로 나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나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음담패설이 섞인 강연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심 감독은 “남자의 나이와 정력의 상관관계를 성냥불과 장작불, 화롯불 등 불로 표현하겠다”며 진한 성적인 농담을 표현했다. 심 감독은 또 “남자가 좋아하는 직업의 여자가 있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걸, 간호사, 골프장 캐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들”이라며 직업의 특성을 성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며 성적 농담을 이어갔다. 심 감독은 “말 더듬이와 언청이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붙은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흉내를 내기도 했다.

(한겨레, 2008 년 5 월 2 일, 9 면에서 일부 발췌)

(15) 정상인

[사설] 인천공항철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인천공항철도(AREX)가 착공 6년 만에 1 단계 공사를 마치고 지난 23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40.3 km 구간이지만 수도권 전철과 환승이 가능해 인천국제공항 접근이 한결 수월해졌다. 국내 첫 민자 철도로 총 1조 8080 억원이 투입된 인천공항철도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선진화된 최첨단 열차임에 틀림없다. 도시철도보다 2 배 이상 빠르며 열차 화재에 대비해 국제 수준의 난연제품을 사용했고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유감이다.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을 위해 여객터미널 3 층까지 이동하는 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서너 차례 이용해야 한다. 정상인의 걸음걸이로 10 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 자동발매기로 표를 팔아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자동발매기가 바닥에서 140 cm 높이에 설치돼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표를 살 수 없고, 터치스크린 방식에 음성 안내 시스템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표를 살 수 있다. 세계 유수의 공항들이 보다 많은 이용객을 모으기 위해 편의성 증대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신문, 2007 년 3 월 26 일자, 27 면에서 일부 발췌)

#### (16) 무뇌아

##### "불량언론 소비자 손에 되출될 것" '언론소비자' 카페회원들 오프라인서 성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수언론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이던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검찰·보수언론의 잇단 강경 대응에 대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며 "조·중·동이 바른 언론으로 돌아올 때까지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27 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수입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무뇌아로 모는 보수언론을 보면서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며 "우리는 언론소비자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 월부터 인터넷에 보수언론 광고주 목록을 올리고 광고게재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경향신문, 2008 년 6 월 28 일, 9 면에서 일부 발췌)

#### (17) 농아인

##### 농아인 초보 예술가들의 도자기 전시회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다. 제대로 만들었다. 어떤 자기엔 훌륭한 그림 문양까지 들어가 있다. 모두 4 개월에 걸쳐 총 20 회를 연습한 예술 초보자들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대단하다. 게다가 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이라

나.

“수화통역사가 있더라도 처음엔 조금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술이란 게 말로도 표현하기가 까다롭고 미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꾸 만나다보니 맘과 눈빛이 통하더라고요. 오히려 농아인(한국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이라 일반인보다 더 집중을 잘하던 걸요. 그리고 청각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감각(손 감각)이 뛰어나서 비장애인들보다 작품을 더 훌륭하게 만들더라고요.”

(중략)

“태어나서 처음 시도한 일인데요. 만만하게 봤다가 혼났어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물레를 돌릴 때는 힘에 부쳐서 어려웠지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기회가 되면 계속 배우고 싶어요. 우리 농아인들의 이런 뛰어난 손재주를 정책적으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도예교실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길경희 농아인의 소감이다. 수화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였지만, 한 눈에 봐도 신나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려 청자처럼 도자기를 만들어낸 여성 농아인 길경희씨는 양 도예가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셈이다.

(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15일, A000079121 면에서 일부 발췌)

#### (18) 귀머거리

##### [문화 칼럼] 새벽창 두드리는 범종소리

나는 현대 문명에 의한 자연의 훼손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사라져가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훼손은 사진이나 도면 등 시각적인 도식에 의해 사람이 심각성을 지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로 파악하는 반면에 사라져버린 소리는 건축가의 도면이나 지리학자가 그린 등고선 지도처럼 뚜렷하게 남을 수가 없다. 가난하고 욕심 없이 살았던 옛사람이 뒤뜰에 배추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짚으로 이엉을 댄 오두막에 들어앉아 옛날 노래를 부르며,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리는 어떤 도면으로도 그릴 수 없다.

현대 도시는 인간이 만든 기계문명에 의한 각종 소음공해로 골치를 앓는다.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위적인 소리는 현대인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공장 소음, 자동

차의 경적, 크게 틀어놓은 길거리 상가의 최신 가요까지 소음공해는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진실을 차단한다. 이런 사회에서 소리를 가려들을 수 있는 능력, 즉 투청력의 회복은 절실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 온 뒤 거리의 보도블록 사이에서 풀이 솟아나오듯, 인간 문명이 남긴 시멘트에 의해 잠금되어버린 자연의 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2008 년 7 월 12 일, 23 면에서 일부 발췌)

(19) 장님

주말섹션 / 그 후 뉴스속으로

- "발가벗고 목욕탕서 나누는 대화, 그게 소통이야" -

- '전국노래자랑' 21 년 송해에게 듣는다 -

(중략)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금기를 깬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강화도에서 한 출연자가 자기 장인이 3 대가 대장간에서 일을 해온 이 시대 마지막 대장장이인데 마을 사람들이 장인이 만든 삽과 호미를 다 쓰면서도 마을의 젊은 애들까지 70 대인 장인을 하대한다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어르신 직업을 '농기구 공장장'으로 이름 지어드렸어요. 아마도 제가 100 번은 더 농기구 공장장이라고 연호를 받아냈을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사위가 동네사람들이 장인을 대하는 게 달라졌다고 고맙다는 전화를 했어요. 7, 8 년 전 새해 천하장사 씨름대회 때 63 세의 시각장애인이 참가를 원했어요. 새해 벽두라 제작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껴들지 하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깬 마음으로 일부러 출연시켰죠.

딸의 부축을 받고 올라온 장님 노인이 '나그네 설움'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찌나 감동적이었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장님 노인이 살아온 생애가 온통 이런 설움이었구나, 그 설움을 이 노래 속에 녹여놓았구나 하는 마음에 객석도 감동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뿐만 아니라 잘못된 속설에 갇혀서, 그렇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는 자괴감과 안쓰러움, 그런 반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후부터 장애인들이 스스로없이 출연하게 되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 팔이 없는 장애인이 출연해 몸 성한 사람들보다 더 신명나게 노래합니다. 한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나와서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시어머니는 춤을

줬는데 시어머니를 춤추게 한 못된 며느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고부가 손잡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진행자의 몫이고 보람입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19일, SA 면에서 일부 발췌)

(20) 병신

**[역경의 열매] 유현목 새생명병원선교회 대표 (1)**

\*병원 약 없어 예방접종 못해 소아마비 장애로 평생 고생

(중략)

둘이 채 지나지 않을 무렵, 부모님은 두 살 위의 형과 나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위해 한 의원에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던가. 아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더 어울릴까.

어쨌거나 그날 따라, 병원에 약이 떨어졌다. 한 사람분의 예방주사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담당 의사가 제안을 했다.

"형이 먼저 접종합시다. 동생은 나중에 맞도록 합시다."

의사의 말에 따라 형이 먼저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았다. 좀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때 만일 형이 아닌 내가 먼저 주사를 맞았더라면... '형도 괜찮고 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시달리기도 한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바로 그 날 밤부터 나는 원인 모를 심한 고열과 싸워야 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나 생각했다고 한다. 아무리 감기 약을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았다. 여러 날 고통을 당한 후 가까스로 열이 가라앉았다. 위험한 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난 우측 다리의 발육이 부실해지기 시작했다.

둘이 지나도 걷지 못했다. 일어서려면 기우뚱거렸다. 걸으려 애를 써봤지만 좌측 발로만 힘이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를 둘러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단결과는 우측다리 소아마비. 오! 주여. 내가 소아마비라니...

(중략)

부모님은 장애 아들을 둔 것을 무척 마음 아파하셨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우측 다리 변형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했던 재활기구마저 사용하는 것조차 꺼려하셨다.

"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할 만큼 병신이 아니다"라며 재활기구들을 엇장수에게 팔아 넘기셨다. 그런 부모님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변형된 우측 다리를 다시 수술해야만 했다.



(21) 병어리 ②

[토요 편지] 달맞이꽃

어릴 적, 우리 동네에 말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돌산 아래 무허가 판잣집에 사는 그녀를 아이들은 병어리라고 놀렸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집 밖 출입을 하지 않았고 늘 집에서만 지냈다. 하루는 형과 함께 만두집에 갔다. 우리는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만두집 아저씨가 커다란 무쇠 찜통 뚜껑을 들어올렸다. 입을 꼭 다물고 누런 천 위에 놓인 만두들이 하얀 김을 피워냈다. 침이 꿀꺽 넘어갔다. "자, 만두 나왔다." 아저씨는 접시 위에 만두를 담아 우리 테이블로 가져왔다.

그때 만두집 출입문이 드르륵 열렸다. 병어리 여자였다. 다른 날과는 달리 그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병어리 여자는 만두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꼬깃꼬깃한 돈을 보이면서 손가락 세 개를 들어보였다. "세 개 달라고요?" 그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세 개는 안 파는데..." 주인 아저씨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만두 한 접시 그냥 드릴게." 머쓱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잠시 후 그녀가 앉은 테이블 위로 만두 한 접시가 놓였다. "아가야, 몇 살이니?" "일곱 살이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많이 먹어." 아이는 맛있게 만두를 먹었다. 만두를 먹는 아이 엄마의 얼굴이 쓸쓸해 보였다. 만두를 먹은 후 그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만두집을 나갔다. 형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왔다. 골목길을 경동경동 뛰며 아이들은 누군가를 놀려대고 있었다. "병어리래요, 병어리래요. 말도 못하는 병어리래요." 아이들은 잘게 부순 연탄재를 아이 엄마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땅에 쪼그려 앉아 어린 딸을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와 등 뒤로 연탄가루가 하얗게 부서져내렸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놀란 딸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저며 왔다.

(국민일보, 2008 년 06 월 21 일, 22 면에서 일부 발췌)

## 2. 속담 및 표현형

### (22) 병신 육갑한다

#### [이규원 객원전문기자의 대한민국 통맥풍수]

<17>음양 오행과 육십 갑자

어릴 적 어른들끼리 말다툼하면서 ‘병신 육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나서기만 한다’는 조롱이었다. 육갑은 육십갑자의 준말이다.

육십갑자의 역사는 오래다. 중국 상(商·기원전 1766~1123) 나라 시대 역대 왕의 이름에서 태갑(太甲), 옥정(沃丁), 천을(天乙) 등 천간지지가 등장하는 걸 보면 얼핏 따져도 3000 년이 넘는 세월이다. 이 육갑은 나경의 좌향을 표시하는 4 층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육십갑자의 천간·지지가 오행에 배정된 내용은 열거한 바와 같지만 오행도 다시 음·양으로 갈린다. 양 목은 갑과 인, 음 목은 을과 묘, 양 화는 병과 오, 음 화는 정과 사, 양 토는 무와 진·술, 음 토는 기와 축·미, 양 금은 경과 신, 음 금은 신과 유, 양 수는 임과 자, 음 수는 계와 해에 속한다. 복잡한 듯하나 일정한 순환법칙을 따르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일보, 2007 년 2 월 16 일, 45 면에서 일부 발췌)

### (23) 병어리 냉가슴을 앓다

#### 국세청, 승진인사 지연 ‘속앓이’

국세청이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조직의 가장 큰 관심인 승진 인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단행된 관세청의 승진 인사가 부러울 뿐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양해를 얻어 예외적으로 국·과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승진 인사가 너무 지연됐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의 승진 인사가 늦어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새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 등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꿀 먹은 병어리처럼 인사보류가 해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직급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다소 억울해한다.

(서울신문, 2008 년 7 월 25 일, 9 면에서 일부 발췌)

(24)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병어리 3년

### 가을 들녘에 스치는 '며느리배꼽'

마음까지 서늘해지는 가을이다. 청명한 하늘 아래 억새가 한들거리는 길을 걷다보면 보랏빛으로 익어 가는 작은 열매를 볼 수 있다.

바로 며느리배꼽의 탐스런 열매다. 며느리배꼽은 배꼽 모양의 둥근턱잎과 올라 붙은 잎자루가 배꼽같이 보인다고 하여 배꼽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열매는 눈에 잘 띄지만 꽃은 여간해선 보기 힘든 게 바로 며느리배꼽이다. 열매가 익기 전에 잠시 피는 등 마는 듯한 연녹색의 꽃은 작기도 하지만 열매가 벌어진 듯한 꽃이 열매와 헛갈리기 때문이다.

(중략)

엄연한 가족의 구성원이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며느리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병어리 3년의 세월... 고부간의 갈등을 빚던 야생화들은 하나같이 슬픈 전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나는 길손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려 함인가.

며느리자가 붙은 꽃을 볼 때마다 애처로운 생각이 들곤 한다. 며느리배꼽의 삼각형 잎은 썩어보면 약간의 새콤한 맛이 우러난다.

(오마이뉴스, 2007 년 10 월 1 일, A000072782 면에서 일부 발췌)

(25) 눈 뜬 장님

### 종로, 쓰레기 배출요령 3개 국어로 제작·배부

종로구는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요령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3개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작,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생겨난 다문화 가정과 학업을 위해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익숙하지 못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몰라 그들의 습관대로 처리하기 일쑤

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각종 안내책자를 구비해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 언어가 낮설은 그들에게는 ‘눈 뜬 장님’과 같다.

(서울신문, 2008 년 3 월 27 일, 15 면에서 일부 발췌)

(26) 절름발이 내각

李·孫 핫라인 물밑서 점점 찾기 주력

◇이-손 핫라인 통해 실마리 찾기=공식 채널 대신 이명박 당선인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일임을 받은 핫라인이 실질적인 협상에 나섰다. 손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두 사람이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실질적인 접촉 라인을 아예 지정했다”면서 “각당 원내 상황도 고려하고 대표에게 직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전했다.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각각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도 별도 채널을 통해 움직였다.

이 당선인 측은 협상 결렬시 절름발이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출범부터 파행을 하면 국민들 보기에다 그렇지 않느냐”며 “협상이 결렬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만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 대표 역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이 총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다. 협상 라인에 서 있는 인사들은 “할 말이 없다”며 협상 과정을 철저히 극비에 부쳤다.

(국민일보, 2008 년 2 월 15 일, 4 면에서 일부 발췌)

(27) 정상인 못지않게

"장애인 어려움 장애인이 잘 알죠"/ 강북 장애인자립센터 운영하는 '장애인 5인방'

“동병상련이랄까요. 장애인의 어려움은 장애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제한된 추스르기도 벅찬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자립생활센터를 마련해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수유리에 있는 10 평 남짓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뇌성마비장애인인 고준형, 김은순, 박동렬씨와 지체장애인인 신창식, 정종남씨는 아침 9 시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인들 못지않게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문을 연지 3개월밖에 안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책과 기획을 담당하는 박동렬(29)씨는 지난달 23일 개강한 이 센터의 첫 사업인 '1기 자립생활학교' 10주 과정을 맞아 강사 초빙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지역 교회 후원으로 꾸려가는 이 학교는 장애인이 사회복지의 수혜자에서 주체로서 지역에서 당당히 살아갈 자립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일보, 2007 년 4 월 20 일, 21 면에서 일부 발췌)

#### (28) 장애에도 불구하고

##### 도대체 왜 그렇게 달리냐고 묻는다면?

[서평] <삼 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

눈 뜰 수 있다면 먼저 아내의 얼굴을 보겠다

시집 <삼 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송경태 지음, 청동거울 펴냄)은 세계 4 대 극한 마라톤(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남극)에 도전하는 한 시각장애인 울트라 마라토너의 도전과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 대 나이에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1 급 시각장애인이 된 저자가 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어가는 삶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담은 시집이다.

(중략)

'삼 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저자. 1 급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라톤과 생의 달리를 결코 멈추지 않는 시인의 의지와 도전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게으른' 독자에게 크나큰 동기를 준다.

(오마이뉴스, 2008 년 6 월 20 일에서 일부 발췌)

(29) 불구가 되다

[칼럼] '순수'와 '정치적인 것'의 사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논해야 한다면 논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 안에서 찬반을, 서로 다른 대안을 말할 수는 있으나, 누구에게도 의제 자체를 제한할 권한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이유다. 감성의 언어로 정치의제를 제한하는 이미지 조작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협소하게 만들고 불구가 되게 한다. 왜, 어떤 근거로 정치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 설득하지 않은 채 이미지 조작으로 일관하는 정치적으로 게으른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고 협상된 해결의 대안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8일에서 일부 발췌)

(30) 꿀 먹은 벙어리

특별기고 /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반민족성'

서울대 이영훈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대안 교과서'를 출간했다.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다시 한번 불가피해졌다.

(중략)

주지하듯 현재 한나라당의 부설 공식 기구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심 인물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 교수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는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다. 필자는 그들이 제창해 온 '식민지 근대화론'이 매우 사대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중략)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일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잘 알다시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장하

는 일본 교과서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항의해 왔다. 또 이런 견해에 동조했던 한승조 고려대 명예 교수는 언론의 못매를 맞아 명예 교수 자리를 사퇴했다. 그런데 똑 같은 말을 해온 안 교수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꿀 먹은 병어리다.

(경향신문, 2008 년 3 월 26 일, 31 면에서 일부 발췌)

(31)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경형 칼럼]위기대응, 뭘 고쳐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지금 ‘제 3 차 오일 쇼크’의 경제 위기에 이어 외교·안보 위기에 봉착했다.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정국이 두달 이상 지속돼 국정 공백을 가져왔다. 지난주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 금주엔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나섰다.

(중략)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부재(不在)다. 정보 부재, 시스템 부재, 대전략 부재다.

정보 부재는 정보 수집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다. 수집 역량이 모자라거나 수집 수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스템 부재는 수집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종합된 정보를 분석,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위기는 인재(人災)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정보 수집과 보고 체계, 정보 분석 및 상황 판단에 이르는 위기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일신문, 2008 년 7 월 18 일, 23 면에서 일부 발췌)

(32) 절름발이 지성인

**“일찍 출근해 50 분 홀로 책 읽어”**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서정돈(65) 성균관대 총장은 대학 업무로 눈코 뜰 새가 없는 가운데에도 1 주일에 2~3 권의 책은 꼭 읽어야 하는 독서광이다. 지난 99 년부터 독서모임인 ‘과

학독서 아카데미'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 과학계의 쟁쟁한 지식인들과 매달 과학기술이나 사회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난 뒤 토론을 하면서 몸에 밴 습성이다.

(중략)

서 총장은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고 이를 통해 지적이고, 정서적인 자양분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말과 글로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질퍽발이 지성인’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서 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예를 든다.

“1979 년 어느 일간지에 의학 칼럼을 주 1 회씩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매달려도 글 한편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해 생각을 가다듬고, 또 이를 글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이 늘어나 ‘고통’이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일보, 2008년 3월 3일, 30면에서 일부 발췌)



## 부록 2. 설문지조사표

### 조사에 대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표현>에 관한 것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의 질문 내용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차별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 만큼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은 절대 없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조사대표자 : 중앙대학교 교수 임영철

연 락 처 : 중앙대학교 교수 이길용

메일 : ih\_kilyong@cau.ac.kr 전화 : 02-820-5119

#### A 개인에 관한 질문 \*\*\*\*\* 이하 번호 위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A-1 (1)남자 (2)여자

A-2 연세(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A-3 언론이나 방송 등 공공언어에서 장애인 차별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알고 있다                      (2)모른다                      (3)기타

#### B 매스컴에 관한 질문 \*\*\*\*\* 이하 해당 번호 한 가지만 골라 번호 위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

B-1 신문에서 주로 보시는 지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정치 · 경제   | 2 사회                         |
| 3 스포츠       | 4 문화 · 방송 · 연예               |
| 5 거의 보지 않는다 | 6 기타(                      ) |

B-2 텔레비전에서 주로 보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뉴스 · 시사 관련                 | 2 다큐멘터리        |
| 3 스포츠                        | 4 연예 · 오락 · 노래 |
| 5 드라마                        | 6 거의 보지 않는다    |
| 7 기타(                      ) |                |

B-3 라디오에서 주로 들으시는 방송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뉴스 · 시사 관련 | 2 음악 전문 방송(FM, 클래식 등)        |
| 3 스포츠        | 4 청취자 사연+음악                  |
| 5 거의 듣지 않는다  | 6 기타(                      ) |

B-4 인터넷에서 주로 접속하시는 사이트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뉴스 · 시사   | 2 문화 · 방송 · 영화 · 연예          |
| 3 블로그 · 카페  | 4 아고라 등 게시판                  |
| 5 거의 하지 않는다 | 6 기타(                      ) |

B-5 주로 보시는 신문 내용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      | 2   | 3  | 4    | 5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배려한다 | 상당히 배려한다 |

B-6 주로 보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      | 2   | 3  | 4    | 5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배려한다 | 상당히 배려한다 |

B-7 주로 들으시는 라디오 방송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      | 2   | 3  | 4    | 5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배려한다 | 상당히 배려한다 |

B-8 주로 접속하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1      | 2   | 3  | 4    | 5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 | 배려한다 | 상당히 배려한다 |

\* \* \* 장애인은 2쪽으로, 비장애인(일반인)은 3쪽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C 장애에 관한 질문 항목(장애인용)** : 장애인 분들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비장애인(일반인)은 다음 쪽으로 가 주십시오.

-----\*\*\*\*\* 이하 번호 위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C-1** 다음 중 장애 분류를 선택해 주십시오.

\*\* (장애가 한 가지 이상인 경우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1 시각장애     | 2 언어장애  |
| 3 청각장애     | 4 지체장애  |
| 5 정신지체(장애) | 6 기타( ) |

**C-2** 다음 중 장애 등급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1 1 급 | 2 2 급   | 3 3 급 | 4 4 급 |
| 5 5 급 | 6 기타( ) |       |       |

**C-3** 장애로 불편을 겪게 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               |                 |
|---------------|-----------------|
| 1 선천적         | 2 유아기(초등학생 이전)  |
| 3 아동기(초등학생 때) | 4 청소년기(중고등학생 때) |
| 5 20 대        | 6 30 대          |
| 7 40 대        | 8 50 대          |

**C-4** 장애로 불편을 겪게 되신 원인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         |
|-------|---------|
| 1 선천적 | 2 질병    |
| 3 사고  | 4 기타( ) |

**C-5** 바깥 출입을 하시는 데 신체적으로 불편하십니까?

- |                   |
|-------------------|
| 1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
| 2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
| 3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
| 4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

**C-6** 바깥 출입을 하시는 데 심리적으로 불편하십니까?

- |                   |
|-------------------|
| 1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
| 2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
| 3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
| 4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

**C-7** 역이나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1 자주 있다 | 2 가끔 있다 |
| 3 거의 없다 | 4 전혀 없다 |

\*\*\* 3 4 를 답하신 분은 C-11 로 갑니다.

\*\*\*위에서 1 2 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C-8**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             |                |
|-------------|----------------|
| 1 역무원 등 관계자 | 2 장애인 관련 단체 사람 |
| 3 장애인       | 4 기타()         |

**C-9**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              |              |
|--------------|--------------|
| 1 기분이 좋다·고맙다 | 2 오히려 귀찮다    |
| 3 언짢다        | 4 별다른 느낌이 없다 |

**C-10**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을 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              |              |
|--------------|--------------|
| 1 기분이 좋다·고맙다 | 2 오히려 귀찮다    |
| 3 언짢다        | 4 별다른 느낌이 없다 |

**C-11** 역이나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
| 1 자주 있다 | 2 가끔 있다 |
| 3 거의 없다 | 4 전혀 없다 |

\*\*\* 3 4 를 답하신 분은 C-13 로 갑니다.

\*\*\*위에서 1 2 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C-12** 도움을 청했을 때 대체로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             |              |
|-------------|--------------|
| 1 기꺼이 도와주었다 | 2 마지못해 도와주었다 |
| 3 도움을 거절하였다 | 4 모른 척하였다    |

**C-13** 귀하는 비장애인(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호의적이다 | 2 조금 호의적이다 |
| 3 조금 배타적이다 | 4 매우 배타적이다 |

**C-14** 평소에 장애가 없는 사람(일반인)으로부터 언어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
| 1 있다 (**C-15로 갑니다.) | 2 없다 (**C-16으로 갑니다.) |
|---------------------|----------------------|

**C-15** 그때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습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2 조금 그렇다    |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C-16**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동의한다     | 2 조금 동의한다     |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C-17** 다음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적인 언어를 순화한다고 해도,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문제이다. 표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 |               |               |
|---------------|---------------|
| 1 매우 동의한다     | 2 조금 동의한다     |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C 장애인과의 접촉에 관한 질문 항목(비장애인용)** : 여기에서는 비장애인(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소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은 다음 쪽으로 가 주십시오.

C-1 귀하는 '장애인' 하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을 떠올리십니까?

- 1 ( )
- 2 ( )
- 3 ( )

-----\*\*\*\*\* 이하 번호 위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C-2 주위에 알고 지내는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 1 있다(\*\*C-3으로 갑니다)
- 2 없다(\*\*C-7로 갑니다)

C-3 그 분(들)과는 어느 정도 자주 만나십니까?

\*\*\*\* (알고 지내시는 분이 여럿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매우 자주(거의 매일)
- 2 가끔(주 1회 정도)
- 3 아주 가끔(월 1회 정도)
- 4 거의 없다
- 5 전혀 없다
- 6 이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다

C-4 그 분(들)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알고 지내시는 분이 여럿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가족
- 2 친척
- 3 친한 친구나 동료
- 4 그냥 아는 정도
- 5 기타( )

C-5 그 분(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 (알고 지내시는 분이 여럿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시각장애
- 2 언어장애
- 3 청각장애
- 4 지체장애
- 5 지적장애
- 6 기타( )

C-6 그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장애인과 관련된 언어표현에 배려를 하시는 편입니까?

- 1 매우 배려한다
- 2 조금 배려한다
- 3 별로 배려하지 않는다
- 4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C-7 역이나 바깥에서 장애인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1 자주 있다
- 2 가끔 있다
- 3 거의 없다
- 4 전혀 없다

\*\*\* 3, 4를 답하신 분은 C-10로 갑니다.

\*\*\*위에서 1, 2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C-8 그 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셨습니까?

- 1 시각장애
- 2 언어장애
- 3 청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신지체 장애
- 6 기타( )

C-9 도움을 청하는 그 장애인을 도와 주셨습니까?

- 1 기꺼이 도와주었다
- 2 마지못해 도와주었다
- 3 도움을 거절하였다
- 4 모른 척하였다

C-10 귀하는 역이나 바깥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자주 있다
- 2 가끔 있다
- 3 거의 없다
- 4 전혀 없다

\*\*\* 3, 4를 답하신 분은 C-13로 갑니다.

\*\*\*위에서 1, 2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C-11 그 장애인은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였습니까?

- 1 시각장애
- 2 언어장애
- 3 청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신지체 장애
- 6 기타( )

C-12 그 장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1 매우 호의적이다
- 2 조금 호의적이다
- 3 조금 배타적이다
- 4 매우 배타적이다

C-13 귀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호의적이다
- 2 조금 호의적이다
- 3 조금 배타적이다
- 4 매우 배타적이다

C-14 귀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언어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배려한다
- 2 조금 배려한다
- 3 별로 배려하지 않는다
- 4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C-15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동의한다
- 2 조금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C-16 다음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적인 언어를 순화한다고 해도,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문제이다. 표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 1 매우 동의한다
- 2 조금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D** <차별어 표현 **◆단어영**>에 대한 평가 항목 : 여기서부터는 차별어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후 **D** **E** **F** 항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일반인) 모두 답해 주십시오.

D-(1a) <외눈박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1b) <외눈박이>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외눈박이(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 4 기타( )

D-(2a) <정신박약자>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2b) <정신박약자>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정신박약자(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정신신체장애인 4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5 기타( )

D-(3a) <애꾸눈>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3b) <애꾸눈>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애꾸눈(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 4 기타( )

D-(4a) <난쟁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4b) <난쟁이>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난쟁이(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왜소증 장애인 4 성장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  
5 기타( )

D-(5a) <저능아>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5b) <저능아>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저능아(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정신신체장애인 4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5 기타( )

D-(6a) <얇은뺨>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6b) <얇은뺨>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얇은뺨(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다리가 불편한 사람 4 기타( )

D-(7a) <사팔뜨기>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7b) <사팔뜨기>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사팔뜨기(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눈이 불편한 사람 4 기타( )

D-(8a) <멍어리>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8b) <멍어리>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멍어리(그대로 좋음) 2 언어장애인  
3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기타( )

D-(9a) <불구자>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9b) <불구자>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불구자(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0a) <장애우>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10b) <장애우>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1 장애우(그대로 좋음) 2 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1a) <장애자>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1b) <장애자>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장애자(그대로 좋음)      2 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2a) <맹인>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2b) <맹인>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맹인(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눈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3a) <절름발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3b) <절름발이>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절름발이(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다리가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4a) <언청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4b) <언청이>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언청이(그대로 좋음)      2 언어장애인  
3 발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  
5 기타( )

D-(15a) <정상인>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5b) <정상인>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정상인(그대로 좋음)      2 비장애인  
3 일반인      4 기타( )

D-(16a) <무뇌아>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6b) <무뇌아>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무뇌아(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정신지체장애인      4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5 기타( )

D-(17a) <농아인>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7b) <농아인>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농아인(그대로 좋음)      2 청각 및 언어 장애인  
3 청각 및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듣고 말하기가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8a) <귀머거리>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8b) <귀머거리>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귀머거리(그대로 좋음)      2 청각장애인  
3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귀가 불편한 사람  
5 기타( )

D-(19a) <장님>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19b) <장님>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장님(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눈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D-(20a) <병신>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차별적이다      2 조금 차별적이다  
3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D-(20b) <병신>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골라 주십시오.

- 1 병신(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 E <차별어 표현◆단어영 예문>에 대한 평가 항목

: 앞 항목과 같은 단어입니다만, 최근에 신문 기사에 쓰인 예문들입니다. 각 예문들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E-1 <외눈박이>가 쓰인 예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가? 일본이 독도를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외눈박이**'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2008년 7월 16일, 04면)

(1)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마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1 외눈박이(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편협된 5 기타 ( )

### E-2 <정신박약자>가 쓰인 예

우리 조상들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걸레를 범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으며 반드시 상대의 주량에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했다. 그런 이유로 조상들은 성인례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술을 권했는데 이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체력이 건강한 사람만이 술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임을 뜻한다. 체력이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30일, KP면)

(1)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마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1 정신박약자(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4 사람 5 기타 ( )

### E-3 <애꾸눈>이 쓰인 예

이 광고에서 아버지가 못마땅해 한 아들의 헤어스타일은 바로 '비대칭 컷.' 한쪽은 짧고 다른 한쪽은 눈을 덮을 정도로 긴 앞머리가 특징이다. 아버지는 모르는 최신 유행의 세계, 마치 **애꾸눈**을 연상케 하는 이 '꼬락서니'는 이미 대세가 됐다. (동아일보, 2007년 12월 28일, 62면)

(1)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마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1 애꾸눈(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한쪽 눈이 불편한 사람  
4 신체대 연예인 5 기타 ( )

### E-4 <난쟁이>가 쓰인 예

돈 없고 힘 없고 뒷배 지켜 주는 사람도 없는 **난쟁이**를 조상으로 둔 덕분이었어. 보리밭처럼 엉성한 가족을 둔 거지. 까만 뒤통만 큼 비쩍 마른 얼굴을 한 누나, 시든 고추처럼 축 늘어진 남동생, 줄인 감자처럼 타들어간 어머니, 앓은뱅이, 꿈추, 떠돌이 약장수들이 우리 친척이었어요. (경향신문, 2008년 7월 5일, 21면)

(1)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마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1 난쟁이 (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성장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서민(을) 5 기타 ( )

### E-5 <저능아>가 쓰인 예

정신과의사라는 게 지적 분위기와는 담을 쌓았으며, 의학용어는 쓸 줄 모른다. 환자 앞에서 꼭 **저능아**처럼 행동한다. (한국일보, 2008년 6월 25일, 35면)

(1)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마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1 저능아(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4 침부지 5 기타 ( )

#### E-6 <얇은뱅이>가 쓰인 예

4 선 국회의원로 구 현안을 꿰뚫고 있는 김 의장은 22 일 “**얇은뱅이** 국회의원은 필요없다.”면서 “열심히 뛰고 보고 느끼는 국회의원 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08 년 7 월 23 일, 11 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대표하는 어떤 것인지, 다 구하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파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얇은뱅이(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다리가 불편한 사람  
4 게으른 5 기타 ( )

#### E-7 <사팔뜨기>가 쓰인 예

친 대변인은 이어 “그 단체는 **사팔뜨기** 중상을 앓고 있고 백내장에 걸려 있다”고 극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극심한 약시현상을 앓고 있기도 하다”고도 했다. (문화일보, 2008 년 3 월 13 일, 28 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대표하는 어떤 것인지, 다 구하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파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사팔뜨기(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눈이 불편한 사람  
4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5 기타 ( )

#### E-8 <방어리>가 쓰인 예

이런 언론을 보면서 화도 안 나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말 한마디 못하는가. 말 잘하는 정치가들 다 어디로 가셨는가. 기자출신 의원들은 **방어리** 됐다. 조중동과 싸우는 척만 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알아준다. (브레이크뉴스, 2008 년 6 월 12 일)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대표하는 어떤 것인지, 다 구하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파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방어리(그대로 좋음) 2 언어장애인 3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말 문을 닫아버렸다 5 기타 ( )

#### E-9 <불구자>가 쓰인 예

죄책감에 휩싸인 '나'는 어릴 적 기억을 애써 은폐한다. 표면적으로는 흥미로운 비극으로만 읽히지만, '잠자리의 눈'을 지닌 비평가는 작품을 다각도로 관찰한다. 정 교수는 **불구자** 친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행운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보고, 불행은 세상 탓으로 돌리는” 현대인의 이기심을 발견한다. (세계일보, 2008 년 3 월 15 일, 13 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대표하는 어떤 것인지, 다 구하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파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불구자(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

#### E-10 <장애우>가 쓰인 예

다시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가 27 회째다. 정부는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지난 4 일엔 청와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서명식도 열었다. **장애우**들이 반겨 마땅한 일들이다. (한겨레, 2007 년 4 월 20 일, 31 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대표하는 어떤 것인지, 다 구하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2 3 4 5 ⊙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알파가 있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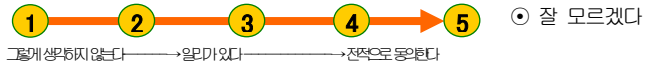
- 1 장애우(그대로 좋음) 2 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



#### E-11 <장애자>가 쓰인 예

한 눈에 보아도 다중증후군의 처녀다. 계산된 물건들을 비닐 백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장애자**에게도 일할 권리를 주는 미국의 제도를 다시 인식한다. (국민일보, 2008년 7월 17일, 19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장애자(그대로 좋음)      2 장애인      3 장애를 가진 사람  
4 몸이 불편한 사람      5 기타( )

#### E-12 <맹인>이 쓰인 예

경찰이 색소와 체류액을 섞어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진압을 하겠다고 밝힌 27일 촛불 집회 현장에 맹인 가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식씨(44)는 3남 1녀의 아버지이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27일)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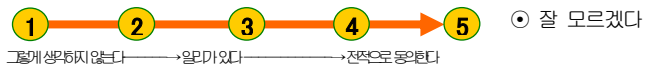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맹인(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눈이 불편한 사람  
4 사람      5 기타( )

#### E-13 <절름발이>가 쓰인 예

... 이나바 마유미의 단편에서 **절름발이** 중학생 이토 다쿠로는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다. 그러곤 엄마와 선생님, 자기를 괴롭힌 가나이, 마쓰오카, 모치즈키, 아바다, 그리고 친구 미야모토에게 편지를 남긴다. ... (서울신문, 2006년 11월 15일 31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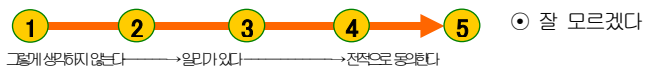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절름발이(그대로 좋음)      2 지체장애인      3 다리에 장애가 있는  
4 다리가 불편한      5 기타( )

#### E-14 <언청이>가 쓰인 예

심 감독은 또 “남자가 좋아하는 직업의 여자가 있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걸, 간호사, 골프장 캐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들”이라며 직업의 특성을 성적인 부분과 연결시키며 성적 농담을 이어갔다. 심 감독은 “말 더듬이와 **언청이**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붙은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흥내를 내기도 했다. (한겨레, 2008년 5월 2일, 9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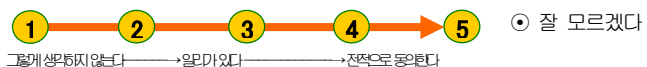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언청이(그대로 좋음)      2 언어장애인      3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  
4 말 셈이      5 기타( )

#### E-15 <정상인>이 쓰인 예

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을 위해 여객터미널 3층까지 이동하는 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서너 차례 이용해야 한다. **정상인**의 걸음걸이로 10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신문, 2007년 3월 26일자, 27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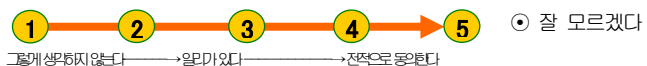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정상인(그대로 좋음)      2 비장애인      3 일반인  
4 어른      5 기타( )

#### E-16 <무노아>가 쓰인 예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27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기 수입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무노아**로 모는 보수언론을 보면서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며 “우리는 언론소비자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28일, 9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회고하는 의면이 있습니다. 구하는 그의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모르겠다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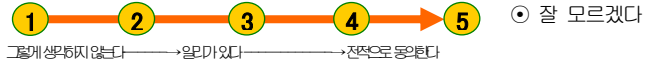
- 1 무노아(그대로 좋음)      2 지적 장애인      3 지적 발달이 늦은 사람  
4 생각 없는 사람      5 기타( )



### E-17 <농아인>이 쓰인 예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다. 제대로 만들었다. 어떤 자기엔 훌륭한 그림 문양까지 들어가 있다. 모두 4 개월에 걸쳐 총 20 회를 연습한 예술 초보자들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대단하다. 게다가 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이라니. (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15일)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P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농아인(그대로 좋음) 2 청각 및 언어 장애인 3 듣고 말하기가 불편한 사람들  
4 사람들 5 기타( )

### E-18 <귀머거리>가 쓰인 예

현대 도시는 인간이 만든 기계문명에 의한 각종 소음공해로 골치를 앓는다.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위적인 소리는 현대인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동아일보, 2008년 7월 12일, 23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P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귀머거리(그대로 좋음) 2 청각장애인 3 귀가 불편한 사람  
4 현대인의 귀를 아프게 만든다 5 기타( )

### E-19 <장님>이 쓰인 예

딸의 부축을 받고 올라온 **장님** 노인이 '나그네 설움'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찌나 감동적이었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장님** 노인이 살아온 생애가 온통 이런 설움이었구나, 그 설움을 이 노래 속에 녹여놓았구나 하는 마음에 객석도 감동했습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19일, SA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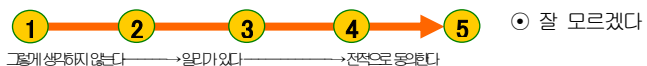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장님(그대로 좋음) 2 시각장애인 3 눈이 불편한 사람  
4 앞을 못보는 5 기타( )

### E-20 <병신>이 쓰인 예

"우리 아들은 보조기구를 하고 다녀야 할 만큼 **병신**이 아니다"라며 재활기구들을 몇 장 수에 팔아 넘기셨다. 그런 부모님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변형된 우측 다리를 다시 수술해야만 했다. (국민일보, 2008년 6월 6일, 33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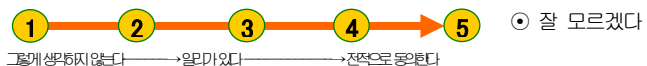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1 병신(그대로 좋음) 2 장애인 3 몸이 불편한 사람  
4 힘든 상태 5 기타( )

### E-21 <방아쇠>가 쓰인 예

... 누군가를 놀려대고 있었다. "**방아쇠**래요, **방아쇠**래요. 말도 못하는 방아쇠래요." 아이들은 잘게 부순 연탄재를 아이 엄마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땅에 쪼그려 앉아 어린 딸을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국민일보, 2008년 6월 21일, 22면)

(1) 이 표현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NP



(2) 이 표현을 대신하여 다른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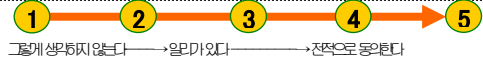
- 1 방아쇠(그대로 좋음) 2 언어장애인 3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  
4 말을 못한대요 5 기타( )

## 〈차별어 표현 ◆속담/표현영 예문〉에 대한 평가 항목

: 앞 항목에서 다른 단어 중 일부가 속담 등에 쓰인 예문입니다. 각각의 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E-22 <병신 욕잡한다>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 어른들끼리 말다툼하면서 '병신 욕잡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나서기만 한다'는 조롱이었다. 욕잡은 욕잡잡자의 준말이다. (세계일보, 2007년 2월 16일, 45면)



○ 잘 모르겠다

### E-23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이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조직의 가장 큰 관심인 승진 인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단행된 관세청의 승진 인사가 부러울 뿐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양해를 얻어 예외적으로 국·과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승진 인사가 너무 지연됐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08년 7월 25일, 9면)



○ 잘 모르겠다

### E-24 <구마리 삼년...>이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연한 가족의 구성원이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떠돌이들, 구마리 3년, 장님 3년, 병어리 3년의 세월... 고부간의 갈등을 빚던 야생화들은 하나같이 슬픈 전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나는 길손의 비자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려 함인가.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1일)



○ 잘 모르겠다

### E-25 <눈 뜬 장님>이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소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몰라 그들의 습관대로 처리하기 일쑤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각종 안내책자를 구비해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 언어가 낯설은 그들에게는 '눈 뜬 장님'과 같다. (서울신문, 2008년 3월 27일, 15면)



○ 잘 모르겠다

### E-26 <절름발이 내막>이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선인측은 협상 결렬시 절름발이 내막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출범부터 파행을 하면 국민들 보기에 도 그럴지 모르나"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만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2008년 2월 15일, 4면)



○ 잘 모르겠다

### E-27 <장상인들 못지않게>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수유리에 있는 10평 남짓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뇌성마비장애인인 고준형, 김은순, 박동렬씨와 지적장애인이신 신창식, 정중남씨는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인들 못지않게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문을 연지 3개월밖에 안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2007년 4월 20일, 21면)



○ 잘 모르겠다

### E-28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고 싶다는 저자. 1급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라톤과 생의 달리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시인의 의지와 도전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게으른' 독자에게 크나큰 동기를 준다. ? 달리기를 사랑한 여인의 마지막 1년의 기록 ? 최근 ...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20일)



○ 잘 모르겠다

E-29 <불구가 되다>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이유다. 감성의 언어로 정치의제를 제한하는 이미지 조작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협소하게 만들고 **불구가 되게 한다**. 왜, 어떤 근거로 정치의제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아년지에 대해 실득하지 않은 채 이미지 조작으로 일관하는 정치적으로 게으른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고 협상된 해결의 대안이 만들어지는 힘들다.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8일)



○ 잘 모르겠다

E-30 <꿀 먹은 병어리>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다시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그 부당성을 항의해 왔다. 또 이런 견해에 동조했던 한승조 고려대 명예 교수는 언론의 못매를 맞아 명예 교수 자리를 사퇴했다. 그런데 똑 같은 말을 해온 안 교수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꿀 먹은 병어리**다. (경향신문, 2008년 3월 26일, 31면)



○ 잘 모르겠다

E-31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 안보 위기는 인재(人災)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정보 수집과 보고 체계, 정보 분석 및 상황 판단에 이르는 위기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일신문, 2008년 7월 18일, 23면)



○ 잘 모르겠다

E-32 <절름발이 자성인>이 쓰인 예 → 다음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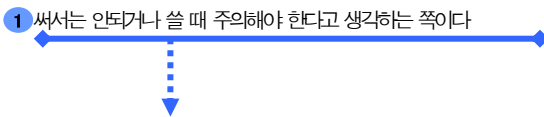
...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절름발이 자성인**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서 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예를 든다. "1979년 어느 일간지에 의학 칼럼을 주 1회씩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매달려도 글 한편 쓰는 ..." (문화일보, 2008년 3월 11일, 3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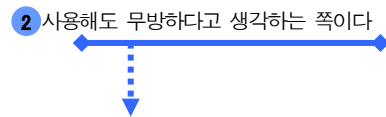
○ 잘 모르겠다

F <속담과 표현형>에 대한 평가 이유 항목

F-1 위의 속담과 표현형에 대한 귀하의 전체적인 판단은 다음 중 어느 쪽이십니까?



\*\* 1 이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 2 라 답하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여러 개를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 1 이러한 속담이나 표현은 장애인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 2 장애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 3 이러한 표현을 들었을 때 장애인들이 안짱을 수 있기 때문에
- 4 이러한 표현은 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 5 기타 ( )

(2)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여러 개를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 1 이러한 속담이나 표현은 전통이나 문화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 2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3 이들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4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설문자료 샘플

|      |     |          |          | A. 개인에 관한 질문 |     |            | B. 매스컴에 관한 질문 |            |           |            |            |      |           |           |
|------|-----|----------|----------|--------------|-----|------------|---------------|------------|-----------|------------|------------|------|-----------|-----------|
| 구분번호 |     | 조사<br>장소 | 조사<br>일시 | A-1          | A-2 | A-3        | B-1           | B-2        | B-3       | B-4        | B-5        | B-6  | B-7       | B-8       |
|      |     |          |          | 성별           | 나이  | 순화노<br>력인지 | 신문지<br>면      | TV프로<br>그램 | 라디오<br>방송 | 인터넷<br>사이트 | 신문지<br>면평가 | TV평가 | 라디오<br>평가 | 인터넷<br>평가 |
| CAS  | 001 | CAU      | 11/26    | F            | 25  | 1          | 2             | 1          | 5         | 2          | 3          | 3    | 3         | 2         |
| CAS  | 002 | CAU      | 11/26    | F            | 21  | 2          | 1             | 5          | 2         | 4          | 3          | 3    | 2         | 3         |
| CAS  | 003 | CAU      | 11/26    | F            | 22  | 2          | 4             | 5          | 4         | 3          | 3          | 3    | 3         | 3         |
| CAS  | 004 | CAU      | 11/26    | M            | 23  | 1          | 1             | 6          | 5         | 4          | 1          | 4    | 2         | 3         |
| CAS  | 005 | CAU      | 11/26    | F            | 21  | 2          | 5             | 6          | 2         | 3          | 2          | 2    | 2         | 3         |
| CAS  | 006 | CAU      | 11/26    | M            | 28  | 1          | 3             | 3          | 1         | 3          | 3          | 3    | 4         | 3         |
| CAS  | 007 | CAU      | 11/26    | F            | 23  | 1          | 2,4           | 2,4        | 2,4       | 3,4        | 4          | 4    | 4         | 3         |
| CAS  | 008 | CAU      | 11/26    | M            | 23  | 2          | 2             | 1          | 2         | 3          | 3          | 4    | 3         | 1         |
| CAS  | 009 | CAU      | 11/26    | F            | 23  | 1          | 1             | 4          | 5         | 3          | 4          | 2    | 3         | 2         |
| CAS  | 010 | CAU      | 11/26    | F            | 19  | 1          | 4             | 1          | 5         | 3          | 3          | 4    | 3         | 3         |
| CAS  | 011 | CAU      | 11/26    | F            | 23  | 1          | 2             | 1,4        | 5         | 3          | 4          | 4    | 4         | 3         |
| CAS  | 012 | CAU      | 11/26    | M            | 24  | 2          | 1             | 6          | 5         | 2          | 3          | 3    | 3         | 3         |
| CAS  | 013 | CAU      | 11/26    | F            | 22  | 1          | 1             | 4          | 2         | 5          | 4          | 4    | 3         | 2         |
| CAS  | 014 | CAU      | 11/26    | F            | 22  | 1          | 4             | 4          | 2         | 3          | 3          | 3    | 3         | 3         |
| CAS  | 015 | CAU      | 11/26    | F            | 22  | 2          | 2             | 4          | 4         | 3          | 2          | 2    | 2         | 2         |
| CAS  | 016 | CAU      | 11/26    | M            | 24  | 2          | 1             | 1          | 5         | 1          | 2          | 4    | 2         | 2         |
| CAS  | 017 | CAU      | 11/26    | F            | 22  | 2          | 1             | 4          | 5         | 1          | 3          | 1    | 3         | 1         |
| CAS  | 018 | CAU      | 11/26    | F            | 22  | 2          | 4             | 4          | 5         | 3          | 3          | 4    | 3         | 3         |
| CAS  | 019 | CAU      | 11/26    | M            | 25  | 2          | 1             | 4          | 5         | 3          | 2          | 3    | 3         | 3         |
| CAS  | 020 | CAU      | 11/26    | F            | 21  | 1          | 2             | 4          | 5         | 3          | 3          | 2    | 4         | 1         |
| CAS  | 021 | CAU      | 11/26    | F            | 26  | 2          | 4             | 2          | 4         | 6(쇼핑)      | 3          | 2    | 3         | 1         |
| CAS  | 022 | CAU      | 11/26    | M            | 24  | 1          | 2             | 4          | 5         | 3          | 4          | 2    | 1         | 1         |
| CAS  | 023 | CAU      | 11/26    | F            | 24  | 1          | 4             | 4          | 2         | 3          | 3          | 2    | 3         | 1         |
| CAS  | 024 | CAU      | 11/26    | F            | 22  | 1          | 1             | 4          | 5         | 2          | 3          | 3    | 3         | 3         |
| CAS  | 025 | CAU      | 11/26    | F            | 22  | 1          | 3             | 4          | 5         | 3          | 3          | 3    | 3         | 3         |
| CAS  | 026 | CAU      | 11/26    | F            | 22  | 1          | 2             | 5          | 4         | 2          | 3          | 3    | 3         | 3         |
| CAS  | 027 | CAU      | 11/26    | F            | 23  | 2          | 2             | 5          | 2         | 2          | 2          | 2    | 3         | 3         |
| CAS  | 028 | CAU      | 11/26    | M            | 25  | 1          | 4             | 6          | 2         | 3          | 3          | 2    | 2         | 2         |
| CAS  | 029 | CAU      | 11/26    | F            | 25  | 1          | 1,2           | 4,5        | 5         | 3          | 2          | 2    | 2         | 2         |
| CAS  | 030 | CAU      | 11/26    | M            | 25  | 1          | 1             | 4          | 5         | 1          | 4          | 4    | 3         | 4         |
| CAS  | 031 | CAU      | 11/26    | M            | 23  | 1          | 3             | 3,4        | 2         | 2          | 3          | 2    | 3         | 4         |
| CAS  | 032 | CAU      | 11/26    | M            | 25  | 1          | 1             | 5          | 4         | 2          | 4          | 4    | 4         | 4         |
| CAS  | 033 | CAU      | 11/26    | F            | 20  | 1          | 1             | 4          | 2         | 2          | 4          | 3    | 4         | 1         |
| CAS  | 034 | CAU      | 11/26    | F            | 24  | 1          | 5             | 1          | 5         | 3          | 1          | 3    | 1         | 1         |
| CAS  | 035 | CAU      | 11/26    | F            | 23  | 2          | 2,3,4         | 3,4,5      | 5         | 1,2,3,4    | 2          | 2    | 2         | 2         |
| CAS  | 036 | CAU      | 11/26    | M            | 20  | 2          | 3             | 6          | 5         | 1          | 1          | 1    | 1         | 1         |

| C. 장애에 관한 질문(비장애인용) |     |                |    |     |           |           |     |      |           |            |                |              |      |
|---------------------|-----|----------------|----|-----|-----------|-----------|-----|------|-----------|------------|----------------|--------------|------|
| 구분번호                |     | C-1 (이미지속 장애인) |    |     | C-2       | C-3       | C-4 | C-5  | C-6       | C-7        | C-8            | C-9          | C-10 |
|                     |     | 1              | 2  | 3   | 장애인<br>지인 | 만남 빈<br>도 | 계기  | 장애종류 | 언어적<br>배려 | 도움요청<br>경험 | 장애종류           | 도움요청<br>수락여부 | 도움여부 |
| CAS                 | 001 | 시각             | 청각 | 지체  | 2         |           |     |      |           | 2          | 4              | 1            | 3    |
| CAS                 | 002 | 시각             | 청각 | 지적  | 2         |           |     |      |           | 3          |                |              | 3    |
| CAS                 | 003 | 지적             | 지체 | 시각  | 2         |           |     |      |           | 1          | 6(여러장<br>에를 가진 | 4            | 2    |
| CAS                 | 004 | 시각             | 청각 | 뇌병변 | 2         |           |     |      |           | 4          |                |              | 3    |
| CAS                 | 005 | 지적             | 시각 | 지체  | 2         |           |     |      |           | 2          | 4              | 4            | 3    |
| CAS                 | 006 | 시각             | 지체 | 청각  | 2         |           |     |      |           | 3          |                |              | 3    |
| CAS                 | 007 | 시각             | 지체 | 지적  | 1         | 3         | 1   | 4    | 1         | 4          |                |              | 4    |
| CAS                 | 008 | 정신             | 지체 | N   | 2         |           |     |      |           | 2          | 4              | 4            | 2    |
| CAS                 | 009 | 지적             | 시각 | 청각  | 2         |           |     |      |           | 3          |                |              | 3    |
| CAS                 | 010 | 지체             | 시각 | 지체  | 2         |           |     |      |           | 4          |                |              | 2    |
| CAS                 | 011 | 뇌병변            | 지체 | 지적  | 2         |           |     |      |           | 4          |                |              | 4    |
| CAS                 | 012 | 지체             | 정신 | N   | 2         |           |     |      |           | 4          |                |              | 3    |
| CAS                 | 013 | 지체             | 청각 | 시각  | 2         |           |     |      |           | 3          |                |              | 3    |
| CAS                 | 014 | 지적             | 지체 | 시각  | 2         |           |     |      |           | 2          | 4              | 1            | 2    |
| CAS                 | 015 | 시각             | 청각 | 지체  | 2         |           |     |      |           | 4          |                |              | 4    |
| CAS                 | 016 | 시각             | 청각 | 지적  | 1         | 3         | 2   | 4    | 1         | N          |                |              | 4    |
| CAS                 | 017 | 지체             | 시각 | 언어  | 1         | 2         | 1   | 4    | 1         | 2          | 4              | 1            | 3    |
| CAS                 | 018 | 지적             | N  | N   | 2         |           |     |      |           | 4          |                |              | 4    |
| CAS                 | 019 | 뇌병변            | 청각 | 시각  | 2         |           |     |      |           | 3          |                |              | 4    |
| CAS                 | 020 | 지체             | N  | N   | 2         |           |     |      |           | 4          |                |              | 4    |
| CAS                 | 021 | 청각             | 지적 | 시각  | 1         | 4         | 1   | 1,3  | 2         | 2          | 1              | 1            | 4    |
| CAS                 | 022 | 언어             | 지적 | 시각  | 2         |           |     |      |           | 2          | 4              | 1            | N    |
| CAS                 | 023 | 지적             | 지체 | 시각  | 1         | 2         | 3   | 4    | 2         | 4          |                |              | 2    |
| CAS                 | 024 | N              | N  | N   | 2         |           |     |      |           | 4          |                |              | 4    |
| CAS                 | 025 | 시각             | 청각 | 지적  | 1         | 4         | 2   | 5    | 2         | 4          |                |              | 4    |
| CAS                 | 026 | 시각             | 청각 | 지적  | 2         |           |     |      |           | 4          |                |              | 3    |
| CAS                 | 027 | N              | N  | N   | 2         |           |     |      |           | 3          |                |              | 3    |
| CAS                 | 028 | 청각             | 시각 | 뇌병변 | 2         |           |     |      |           | 3          |                |              | 3    |
| CAS                 | 029 | 언어             | 시각 | 청각  | 2         |           |     |      |           | 4          | 3              | 2            | 3    |
| CAS                 | 030 | 시각             | 지적 | 청각  | 2         |           |     |      |           | 4          |                |              | 3    |
| CAS                 | 031 | 시각             | 지체 | 언어  | 2         |           |     |      |           | 3          |                |              | 3    |
| CAS                 | 032 | 지체             | 지체 | N   | 1         | 2         | 3   | 4    | 2         | 2          | 4              | 1            | 2    |
| CAS                 | 033 | N              | 지체 | 장애인 | 2         |           |     |      |           | 2          | 4              | 1            | 2    |
| CAS                 | 034 | 시각             | 청각 | 정신  | 2         |           |     |      |           | 4          |                |              | 4    |
| CAS                 | 035 | 지체             | 지체 | 지체  | 2         |           |     |      |           | 4          |                |              | 3    |
| CAS                 | 036 | 시각             | 청각 | 지체  | 1         | 3         | 4   | 4    | 2         | N          |                |              | 2    |

|      |     |             |            |             |                 |               | D. 차별어 표현(단어형)에 대한 평가 |       |               |           |               |       |
|------|-----|-------------|------------|-------------|-----------------|---------------|-----------------------|-------|---------------|-----------|---------------|-------|
| 구분번호 |     | C-11        | C-12       | C-13        | C-14            | C-15          | C-16                  | D-1-a | D-1-b         | D-2-a     | D-2-b         | D-3-a |
|      |     | 장애종류        | 장애인의<br>반응 | 비장애인의<br>태도 | 비장애인의<br>언어적 배려 | 언어적 배<br>려 의견 | 의식개선<br>의견            | 외눈박이  | 대안어           | 정신박약<br>자 | 대안어           | 애꾸눈   |
| CAS  | 001 |             |            | 3           | 3               | 1             | 1                     | 2     | 2             | 1         | 3             | 2     |
| CAS  | 002 |             |            | 3           | 3               | 1             | 1                     | 1     | 2             | 2         | 4             | 1     |
| CAS  | 003 | 6(여러가<br>기) | 2          | 3           | 3               | 1             | 2                     | 1     | 3             | 1         | 5(지적<br>박약자)  | 1     |
| CAS  | 004 |             |            | 3           | 3               | 2             | 1                     | 2     | 3             | 1         | 5(지적<br>장애)   | 1     |
| CAS  | 005 |             |            | 3           | 3               | 1             | 1                     | 1     | 2             | 2         | 3             | 1     |
| CAS  | 006 |             |            | 3           | 3               | 1             | 1                     | 2     | 2             | 2         | 3             | 1     |
| CAS  | 007 |             |            | 3           | 2               | 1             | 1                     | 1     | 3             | 1         | 4             | 1     |
| CAS  | 008 | 4           | 2          | 3           | 3               | 2             | 2                     | 1     | 2             | 1         | 2             | 2     |
| CAS  | 009 |             |            | 3           | 3               | 1             | 1                     | 2     | 2             | 2         | 3             | 2     |
| CAS  | 010 | 4           | 2          | 2           | 3               | 1             | 1                     | 3     | 1             | 2         | 2             | 2     |
| CAS  | 011 |             |            | 3           | 2               | 2             | 1                     | 2     | 3             | 2         | 3             | 2     |
| CAS  | 012 |             |            | 1           | 1               | 1             | 2                     | 1     | 2             | 2         | 3             | 1     |
| CAS  | 013 |             |            | 2           | 3               | 2             | 1                     | 3     | 1             | 3         | 1             | 3     |
| CAS  | 014 | 5           | 3          | N           | 3               | 3             | 1                     | 1     | 2             | 1         | 4             | 1     |
| CAS  | 015 |             |            | 2           | 3               | 1             | 1                     | 2     | 2             | 2         | 2             | 2     |
| CAS  | 016 |             |            | 3           | 2               | 1             | 1                     | 1     | 2             | 1         | 2             | 1     |
| CAS  | 017 |             |            | 3           | 2               | 2             | 1                     | 2     | N             | 1         | 4             | 2     |
| CAS  | 018 |             |            | 3           | 2               | 1             | 1                     | 4     | 1             | 3         | 3             | 1     |
| CAS  | 019 |             |            | 3           | 3               | 1             | 1                     | 3     | 1             | 2         | 2             | 3     |
| CAS  | 020 |             |            | 3           | 3               | 1             | 1                     | 2     | 3             | 1         | 5             | 1     |
| CAS  | 021 |             |            | 2           | 2               | 1             | 1                     | 3     | 1             | 1         | 5(정신<br>기체장애) | 1     |
| CAS  | 022 |             |            | N           | 4               | 3             | 1                     | 1     | 4(하나<br>로 모든) | 1         | 5(순수<br>한 사람) | 1     |
| CAS  | 023 | 4           | 2          | 3           | 2               | 1             | 1                     | 1     | 3             | 1         | 4             | 1     |
| CAS  | 024 |             |            | 3           | 3               | 1             | 1                     | 1     | 3             | 1         | 4             | 1     |
| CAS  | 025 |             |            | 2           | 2               | 1             | 2                     | 2     | 3             | 2         | 2             | 1     |
| CAS  | 026 |             |            | 2           | 3               | 2             | 1                     | 3     | 2             | 3         | 2             | 1     |
| CAS  | 027 |             |            | 3           | 2               | 2             | 2                     | 1     | 2             | 1         | 2             | 1     |
| CAS  | 028 |             |            | N           | 2               | 2             | 3                     | 2     | 2             | 1         | 4             | 1     |
| CAS  | 029 |             |            | 3           | 3               | 2             | 1                     | 1     | 3             | 2         | 3             | 1     |
| CAS  | 030 |             |            | 3           | 3               | 1             | 1                     | 3     | 2             | 3         | 2             | 3     |
| CAS  | 031 |             |            | 4           | 3               | 1             | 1                     | 2     | 3             | 3         | 1             | 1     |
| CAS  | 032 | 4           | 1          | 3           | 2               | 1             | 1                     | 1     | 2             | 2         | 4             | 1     |
| CAS  | 033 |             |            | 3           | 3               | 1             | 1                     | 2     | 2             | 1         | 4             | 1     |
| CAS  | 034 |             |            | 2           | 2               | 1             | 1                     | 2     | 2             | 2         | 3             | 2     |
| CAS  | 035 |             |            | 4           | 3               | 1             | 1                     | 2     | 3             | 1         | 4             | 1     |

| 구분번호 |     | D-3-b       | D-4-a | D-4-b | D-5-a | D-5-b       | D-6-a | D-6-b | D-7-a | D-7-b | D-8-1 | D-8-2       |
|------|-----|-------------|-------|-------|-------|-------------|-------|-------|-------|-------|-------|-------------|
|      |     | 대안어         | 난쟁이   | 대안어   | 저능아   | 대안어         | 얕은뱅이  | 대안어   | 사팔뜨기  | 대안어   | 병어리   | 대안어         |
| CAS  | 001 | 2           | 2     | 1     | 1     | 3           | 2     | 1     | 2     | 3     | 2     | 1           |
| CAS  | 002 | 2           | 2     | 3     | 1     | 2           | 2     | 3     | 1     | 2     | 2     | 2           |
| CAS  | 003 | 3           | 1     | 4     | 1     | 5(지적<br>반대에 | 1     | 3     | 1     | 3     | 1     | 3           |
| CAS  | 004 | 3           | 2     | 4     | 1     | 4           | 2     | 3     | 3     | 1     | 1     | 4(언어<br>장애) |
| CAS  | 005 | 3           | 1     | 3     | 2     | 3           | 2     | 3     | 1     | 3     | 1     | 4(언어<br>장애) |
| CAS  | 006 | 2           | 2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CAS  | 007 | 3           | 1     | 4     | 1     | 4           | 1     | 3     | 1     | 3     | 1     | 3           |
| CAS  | 008 | 2           | 1     | 3     | 1     | 3           | 1     | 2     | 2     | 3     | 2     | 2           |
| CAS  | 009 | 2           | 1     | 4     | 1     | 2           | 2     | 3     | 3     | 2     | 1     | 2           |
| CAS  | 010 | 3           | 1     | 4     | 2     | 3           | 2     | 3     | 2     | 3     | 3     | 1           |
| CAS  | 011 | 3           | 3     | 1     | 2     | 3           | 2     | 2     | 2     | 2     | 2     | 2           |
| CAS  | 012 | 2           | 2     | 3     | 1     | 2           | 2     | 2     | 1     | 2     | 2     | 2           |
| CAS  | 013 | 1           | 3     | 1     | 3     | 1           | 3     | 1     | 3     | 1     | 2     | 2           |
| CAS  | 014 | 2           | 1     | 4     | 1     | 4           | 1     | 3     | 1     | 2     | 1     | 3           |
| CAS  | 015 | 2           | 2     | 2     | 2     | 2           | 1     | 3     | 2     | 2     | 1     | 2           |
| CAS  | 016 | 2           | 1     | 3     | 1     | 3           | 1     | 3     | 1     | 2     | 1     | 2           |
| CAS  | 017 | 3           | 1     | 3     | 1     | 4           | 2     | 3     | 3     | 1     | 2     | 2           |
| CAS  | 018 | 3           | 1     | 3     | 1     | 2           | 1     | 3     | 3     | 1     | 3     | 1           |
| CAS  | 019 | 1           | 3     | 1     | 2     | 2           | 3     | 1     | 3     | 1     | 2     | 2           |
| CAS  | 020 | 3           | 1     | 3     | 1     | 4           | 1     | 4     | 2     | 4     | 1     | 4           |
| CAS  | 021 | 4(시각<br>장애) | 2     | 4     | 1     | 4           | 2     | 3     | 1     | 3     | 2     | 3           |
| CAS  | 022 | 3           | 1     | 4     | 1     | 4           | 1     | 3     | 1     | 3     | 1     | 3           |
| CAS  | 023 | 3           | 1     | 4     | 1     | 4           | 1     | 3     | 1     | 3     | 1     | 3           |
| CAS  | 024 | 3           | 1     | 4     | 1     | 4           | 1     | 3     | 1     | 3     | 1     | 4(말하<br>기 불 |
| CAS  | 025 | 3           | 2     | 4     | 2     | 4           | 2     | 3     | 2     | 3     | 2     | 3           |
| CAS  | 026 | 2           | 1     | 2     | 1     | 2           | 1     | 4     | 3     | 3     | 3     | 2           |
| CAS  | 027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CAS  | 028 | 2           | 1     | 4     | 1     | 4           | 1     | 3     | 2     | 2     | 2     | 2           |
| CAS  | 029 | 3           | 1     | 3     | 1     | 4           | 1     | 3     | 1     | 3     | 1     | 3           |
| CAS  | 030 | 2           | 3     | 2     | 2     | 2           | 4     | 1     | 4     | 1     | 4     | 1           |
| CAS  | 031 | 2           | 1     | 3     | 1     | 3           | 1     | 2     | 2     | 2     | 3     | 1           |
| CAS  | 032 | 2           | 1     | 4     | 1     | 4           | 1     | 2     | 1     | 2     | 1     | 2           |
| CAS  | 033 | 2           | 1     | 4     | 1     | 4           | 1     | 3     | 1     | 3     | 2     | 2           |
| CAS  | 034 | 2           | 2     | 2     | 2     | 2           | 1     | 2     | 2     | 2     | 2     | 2           |
| CAS  | 035 | 3           | 1     | 5     | 1     | 4           | 1     | 3     | 2     | 3     | 1     | 4           |

| 구분번호 |     | D-9-1 | D-9-2  | D-10-1 | D-10-2    | D-11-1 | D-11-2 | D-12-1 | D-12-2 | D-13-1 | D-13-2 | D-14-1 |
|------|-----|-------|--------|--------|-----------|--------|--------|--------|--------|--------|--------|--------|
|      |     | 불구자   | 대안어    | 장애우    | 대안어       | 장애자    | 대안어    | 맹인     | 대안어    | 질름발이   | 대안어    | 언청이    |
| CAS  | 001 | 2     | 3      | 3      | 1         | 3      | 1      | 3      | 1      | 3      | 1      | 2      |
| CAS  | 002 | 2     | 4      | 3      | 3         | 2      | 3      | 2      | 2      | 1      | 2      | 1      |
| CAS  | 003 | 1     | 4      | 3      | 1         | 2      | 5(장애우) | 2      | 3      | 1      | 3      | 1      |
| CAS  | 004 | 1     | 4      | 3      | 1         | 1      | 4      | 1      | 4      | 3      | 4      | 3      |
| CAS  | 005 | 2     | 3      | 3      | 1         | 1      | 2      | 3      | 2      | 2      | 4      | 3      |
| CAS  | 006 | 1     | 2      | 3      | 1         | 2      | 5(장애우) | 2      | 2      | 2      | 2      | 1      |
| CAS  | 007 | 1     | 4      | 2      | 4         | 1      | 4      | 2      | 4      | 2      | 4      | 2      |
| CAS  | 008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09 | 1     | 4      | 4      | 1         | 3      | 2      | 3      | 2      | 2      | 4      | 1      |
| CAS  | 010 | 2     | 4      | 4      | 1         | 2      | 3      | 2      | 2      | 2      | 4      | 3      |
| CAS  | 011 | 3     | 1      | 3      | 1         | 2      | 5(장애우) | 2      | 2      | 2      | 3      | 3      |
| CAS  | 012 | 3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 CAS  | 013 | 2     | 2      | 3      | 1         | 3      | 1      | 3      | 1      | 3      | 1      | 1      |
| CAS  | 014 | 1     | 4      | 2      | 4         | 2      | 4      | 2      | 2      | 1      | 4      | 1      |
| CAS  | 015 | 2     | 2      | 3      | 1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16 | 1     | 2      | 2      | 4         | 2      | 4      | 2      | 2      | 2      | 2      | 2      |
| CAS  | 017 | 1     | 4      | 3      | 1         | 1      | 4      | 3      | 1      | 3      | 3      | 2      |
| CAS  | 018 | 4     | 1      | 4      | 1         | 4      | 2      | 3      | 2      | 1      | 3      | 2      |
| CAS  | 019 | 3     | 1      | 2      | 2         | 3      | 1      | 3      | 1      | 3      | 1      | 3      |
| CAS  | 020 | 1     | 3      | 2      | 1         | 4      | 1      | 4      | 1      | 1      | 4      | 1      |
| CAS  | 021 | 1     | 5(장애우) | 4      | 1         | 1      | 5(장애우) | 2      | 2      | 2      | 4      | 1      |
| CAS  | 022 | 1     | 4      | 2      | 5(표현 방식이) | 1      | 5(사람)  | 1      | 4      | 1      | 4      | 1      |
| CAS  | 023 | 1     | 4      | 2      | 4         | 1      | 4      | 1      | 4      | 1      | 4      | 1      |
| CAS  | 024 | 1     | 4      | 2      | 4         | 1      | 4      | 2      | 4      | 1      | 4      | 1      |
| CAS  | 025 | 2     | 4      | 2      | 3         | 2      | 2      | 2      | 2      | 2      | 4      | 2      |
| CAS  | 026 | 1     | 2      | 4      | 1         | 2      | 5(장애우) | 3      | 2      | 2      | 2      | 2      |
| CAS  | 027 | 1     | 2      | 3      | 4         | 2      | N      | 2      | 2      | 1      | 2      | 1      |
| CAS  | 028 | 1     | 4      | 3      | 4         | 2      | 4      | 4      | 4      | 2      | 4      | 3      |
| CAS  | 029 | 1     | 4      | 2      | 3         | 2      | 3      | 2      | 2      | 1      | 3      | 1      |
| CAS  | 030 | 3     | 2      | 1      | 2         | 4      | 1      | 4      | 1      | 4      | 1      | 4      |
| CAS  | 031 | 2     | 1      | 3      | 1         | 2      | 2      | 4      | 1      | 2      | 2      | 4      |
| CAS  | 032 | 1     | 2      | 2      | 3         | 2      | 3      | 3      | 2      | 2      | 2      | 1      |
| CAS  | 033 | 1     | 4      | 2      | 3         | 2      | 4      | 3      | 1      | 1      | 4      | 1      |
| CAS  | 034 | 2     | 2      | 3      | 1         | 2      | 2      | 3      | 2      | 2      | 2      | 1      |
| CAS  | 035 | 1     | 4      | 2      | 5         | 1      | 5      | 1      | 4      | 1      | 4      | 1      |
| CAS  | 036 | 1     | 4      | 1      | 4         | 2      | 4      | 1      | 4      | 1      | 4      | 1      |



| 구분번호 |     | D-14-2        | D-15-1 | D-15-2        | D-16-1 | D-16-2        | D-17-1 | D-17-2 | D-18-1 | D-18-2 | D-19-1 | D-19-2 |
|------|-----|---------------|--------|---------------|--------|---------------|--------|--------|--------|--------|--------|--------|
|      |     | 대안어           | 정상인    | 대안어           | 무뇌아    | 대안어           | 농아인    | 대안어    | 귀머거리   | 대안어    | 장님     | 대안어    |
| CAS  | 001 | 3             | 2      | 3             | 3      | 3             | 4      | 1      | 2      | 3      | 3      | 1      |
| CAS  | 00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03 | 3             | 2      | 2             | 1      | 5(지적<br>박탈액)  | 2      | 3      | 1      | 3      | 1      | 3      |
| CAS  | 004 | 4             | 1      | 3             | 2      | 4             | 2      | 4      | 2      | 4      | 3      | 4      |
| CAS  | 005 | 1             | 3      | 3             | 3      | 1             | 2      | 2      | 1      | 2      | 2      | 2      |
| CAS  | 006 | 2             | 2      | 3             | 1      | 2             | 1      | 2      | 1      | 2      | 1      | 2      |
| CAS  | 007 | 4             | 1      | 4(건강<br>한 사람) | 1      | 4             | 2      | 4      | 1      | 4      | 1      | 4      |
| CAS  | 008 | 2             | 4      | 1             | 2      | 3             | 2      | 2      | 2      | 2      | 2      | 2      |
| CAS  | 009 | 2             | 3      | 3             | 3      | 2             | 3      | 2      | 2      | 2      | 2      | 2      |
| CAS  | 010 | 1             | 1      | 3             | 2      | 3             | 3      | 1      | 2      | 2      | 3      | 1      |
| CAS  | 011 | 1             | 2      | 2             | 2      | 3             | 3      | 1      | 2      | 2      | 2      | 2      |
| CAS  | 012 | 1             | 2      | 3             | 1      | 1             | 3      | 1      | 2      | 2      | 2      | 2      |
| CAS  | 013 | 1             | 3      | 1             | 3      | 1             | 3      | 1      | 2      | 2      | 2      | 2      |
| CAS  | 014 | 3             | 1      | 2             | 1      | 4             | 1      | 4      | 1      | 4      | 1      | 2      |
| CAS  | 015 | 2             | 1      | 3             | 2      | 3             | 2      | 2      | 1      | 2      | 2      | 2      |
| CAS  | 016 | 2             | 2      | 3             | 1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17 | 3             | 2      | 1             | 1      | 4             | 1      | 4      | 2      | 4      | 2      | 3      |
| CAS  | 018 | 2             | 3      | 1             | 2      | 2             | 3      | 2      | 2      | 2      | 2      | 2      |
| CAS  | 019 | 1             | 3      | 1             | 2      | 2             | 2      | 2      | 3      | 1      | 3      | 1      |
| CAS  | 020 | 2             | 1      | 3             | 3      | 5(장애<br>아동 기) | 2      | 1      | 1      | 2      | 3      | 2      |
| CAS  | 021 | 5(의학<br>분야 사) | N      | N             | 4      | 1             | 3      | 2      | 1      | 2      | 1      | 2      |
| CAS  | 022 | 4             | 1      | 4(사람)         | 1      | 4             | 1      | 4      | 1      | 4      | 1      | 4      |
| CAS  | 023 | 4             | 1      | 4(건강<br>한 사람) | 1      | 4             | 1      | 4      | 1      | 4      | 1      | 4      |
| CAS  | 024 | 4             | 1      | 3             | 1      | 4             | 1      | 4      | 1      | 4      | 1      | 4      |
| CAS  | 025 | 4             | 2      | 2             | 2      | 4             | 2      | 3      | 2      | 3      | 2      | 3      |
| CAS  | 026 | 2             | 2      | 3             | 2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27 | 2             | 3      | 1             | 1      | 2             | 1      | 2      | 1      | 2      | 1      | 2      |
| CAS  | 028 | 4             | 4      | 3             | 2      | 4             | 2      | 4      | 2      | 4      | 2      | 4      |
| CAS  | 029 | 3             | 2      | 3             | 1      | 4             | 2      | 3      | 1      | 3      | 1      | 3      |
| CAS  | 030 | 1             | 4      | 1             | 4      | 1             | 4      | 1      | 4      | 1      | 4      | 1      |
| CAS  | 031 | 1             | 4      | 1             | 2      | 3             | 3      | 1      | 2      | 2      | 1      | 2      |
| CAS  | 032 | 2             | 1      | 3             | 1      | 3             | 2      | 2      | 2      | 2      | 1      | 2      |
| CAS  | 033 | 3             | 1      | 4             | 1      | 4             | 3      | 1      | 1      | 3      | 4      | 1      |
| CAS  | 034 | 2             | 4      | 3             | 1      | 3             | 2      | 2      | 1      | 2      | 1      | 2      |
| CAS  | 035 | 5             | 1      | 4(다수<br>의 비수) | 1      | 5             | 1      | 4      | 1      | 4      | 1      | 4      |

|      |     | E. 차별어 표현(단어형 예문)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 구분번호 |     | D-20-1                   | D-20-2 | E-1-1 | E-1-2 | E-2-1  | E-2-2     | E-3-1  | E-3-2        | E-4-1 | E-4-2       | E-5-1 |
|      |     | 병신                       | 대안어    | 외눈박이  | 대안표현  | 정신박약자  | 대안표현      | 애꾸눈    | 대안표현         | 난쟁이   | 대안표현        | 지능아   |
| CAS  | 001 | 1                        | 3      | 1     | N     | 3      | 2         | 1      | N            | 1     | N           | 1     |
| CAS  | 002 | 1                        | 2      | 2     | 4     | 2      | 1         | 3      | 4            | 3     | 4           | 3     |
| CAS  | 003 | 3                        | 4      | 3     | 4     | 3      | 2         | 4      | 3            | 3     | 4           | 3     |
| CAS  | 004 | 1                        | 4      | 3     | 4     | 3      | 4         | 3      | 3            | 3     | 4           | 3     |
| CAS  | 005 | 1                        | 4      | 1     | 1     | 3      | 4         | 3      | 4            | 3     | 3           | 3     |
| CAS  | 006 | 1                        | 2      | 4     | 4     | 4      | 2         | 5      | 5(한쪽 시각이)    | 5     | 4           | 4     |
| CAS  | 007 | 1                        | 4      | 4     | 4     | 5      | 4         | 4      | 3            | 4     | 4           | 5     |
| CAS  | 008 | 1                        | 2      | 4     | 2     | 4      | 2         | 4      | 2            | 3     | 3           | 5     |
| CAS  | 009 | 1                        | 4      | 2     | 4     | 3      | 2         | 2      | 1            | 3     | 4           | 5     |
| CAS  | 010 | 2                        | 4      | 4     | 4     | 5      | 4         | 3      | 3            | 5     | 4           | 4     |
| CAS  | 011 | 1                        | 4      | 3     | 4     | 잘 모르겠다 | 5(정신지체장애) | 잘 모르겠다 | N            | 3     | 4           | 3     |
| CAS  | 01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CAS  | 013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3     |
| CAS  | 014 | 1                        | 4      | 4     | 4     | 5      | 4         | 4      | 3            | 5     | 4           | 5     |
| CAS  | 015 | 2                        | 2      | 3     | 4     | 3      | 2         | 2      | 4            | 3     | 4           | 2     |
| CAS  | 016 | 2                        | 2      | 3     | 4     | 1      | N         | 2      | 1            | 2     | 1           | 2     |
| CAS  | 017 | 1                        | 4      | 3     | 4     | 3      | 3         | 4      | 2            | 4     | 4           | 4     |
| CAS  | 018 | 1                        | 2      | 1     | 1     | 1      | 1         | 4      | 3            | 4     | 5(왜소증 환자)   | 3     |
| CAS  | 019 | 2                        | 2      | 3     | 4     | 3      | 2         | 2      | 1            | 2     | 1           | 3     |
| CAS  | 020 | 1                        | 4      | 3     | 4     | 3      | 5(심신박약자)  | 4      | 5            | 1     | 1           | 5     |
| CAS  | 021 | 1                        | 2      | 1     | 4     | 5      | 2         | 2      | 1            | 5     | 2           | 4     |
| CAS  | 022 | 1                        | 4      | 5     | 4     | 5      | 4         | 5      | 4            | 5     | 4           | 5     |
| CAS  | 023 | 1                        | 4      | 4     | 4     | 4      | 4         | 4      | 5(시각이 좋지 않음) | 3     | 5(작은 사람)    | 3     |
| CAS  | 024 | 1                        | 4      | 4     | 4     | 3      | 3         | 5      | 3            | 5     | 3           | 5     |
| CAS  | 025 | 2                        | 4      | 3     | 4     | 4      | 3         | 2      | 1            | 3     | 4           | 3     |
| CAS  | 026 | 1                        | 2      | 1     | 1     | 3      | 2         | 2      | 1            | 3     | 1           | 3     |
| CAS  | 027 | 1                        | 2      | 3     | 2     | 3      | 2         | 3      | 2            | 3     | 3           | 3     |
| CAS  | 028 | 2                        | 4      | 3     | 2     | 3      | 2         | 3      | 2            | 4     | 3           | 3     |
| CAS  | 029 | 1                        | 2      | 2     | 4     | 5      | 2         | 2      | 3            | 2     | 4           | 3     |
| CAS  | 030 | 1                        | 2      | 1     | 1     | 3      | 4         | 1      | 1            | 1     | 1           | 5     |
| CAS  | 031 | 1                        | 2      | 5     | 4     | 4      | 2         | 4      | 3            | 3     | 3           | 5     |
| CAS  | 032 | 1                        | 2      | 3     | 4     | 5      | 2         | 5      | 4            | 5     | 3           | 4     |
| CAS  | 033 | 1                        | 4      | 1     | N     | 5      | 4         | 1      | N            | 1     | N           | 5     |
| CAS  | 034 | 1                        | 2      | 1     | 4     | 2      | 2         | 3      | 4            | 3     | 4           | 3     |
| CAS  | 035 | 1                        | 5      | 5     | 5(좁은) | 5      | 4         | 5      | 5(후크선자)      | 5     | 5(키가 작은 사람) | 5     |

| 구분번호 |     | E-5-2 | E-6-1 | E-6-2          | E-7-1 | E-7-2         | E-8-1 | E-8-2        | E-9-1      | E-9-2 | E-10-1     | E-10-2        |
|------|-----|-------|-------|----------------|-------|---------------|-------|--------------|------------|-------|------------|---------------|
|      |     | 대안표현  | 앞은뱅이  | 대안표현           | 사팔뜨기  | 대안표현          | 병어리   | 대안표현         | 불구자        | 대안표현  | 장애우        | 대안표현          |
| CAS  | 001 | N     | 1     | N              | 3     | 4             | 1     | 1            | 3          | 4     | 1          | N             |
| CAS  | 002 | 4     | 3     | 4              | 3     | 4             | 3     | 4            | 3          | 4     | 2          | 3             |
| CAS  | 003 | 4     | 3     | 4              | 3     | 4             | 3     | 4            | 3          | 4     | 2          | 4             |
| CAS  | 004 | 4     | 3     | 4              | 3     | 4             | 3     | 4            | 3          | 4     | 3          | 4             |
| CAS  | 005 | 2     | 2     | 4              | 4     | 4             | 2     | 1            | 4          | 4     | 1          | 1             |
| CAS  | 006 | 4     | 4     | 4              | 5     | 5(잘 모<br>르겠다) | 4     | 4            | 4          | 2     | 2          | 1             |
| CAS  | 007 | 4     | 4     | 4              | 4     | 4             | 4     | 4            | 5          | 4     | 4          | 4             |
| CAS  | 008 | 2     | 3     | 3              | 3     | 2             | 3     | 2            | 5          | 2     | 3          | 3             |
| CAS  | 009 | 4     | 5     | 4              | 1     | 1             | 3     | 4            | 3          | 4     | 1          | 1             |
| CAS  | 010 | 4     | 4     | 4              | 4     | 4             | 4     | 4            | 5          | 4     | 잘 모르겠<br>다 | 1             |
| CAS  | 011 | 2     | 3     | 4              | 3     | 4             | 3     | 4            | 잘 모르겠<br>다 | 1     | 2          | 1             |
| CAS  | 01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CAS  | 013 | 2     | 4     | 4              | 4     | 4             | 4     | 4            | 4          | 4     | 2          | 1             |
| CAS  | 014 | 4     | 4     | 4              | 4     | 4             | 3     | 4            | 4          | 4     | 3          | 4             |
| CAS  | 015 | 1     | 3     | 4              | 2     | 1             | 3     | 4            | 3          | 4     | 1          | 1             |
| CAS  | 016 | 1     | 2     | 4              | 2     | 2             | 2     | 1            | 2          | 2     | 2          | 4             |
| CAS  | 017 | 4     | 4     | 4              | 4     | 4             | 4     | 4            | 4          | 3     | 4          | 4             |
| CAS  | 018 | 4     | 3     | 1              | 2     | 1             | 1     | 1            | 3          | 4     | 1          | 1             |
| CAS  | 019 | 4     | 2     | 1              | 2     | 1             | 2     | 1            | 2          | 1     | 3          | 2             |
| CAS  | 020 | 5     | 3     | 4              | 5     | 5             | 1     | 1            | 2          | 1     | 5          | 2             |
| CAS  | 021 | 4     | 5     | 4              | 5     | 4             | 2     | 4            | 5          | 3     | 2          | 1             |
| CAS  | 022 | 4     | 5     | 4              | 5     | 4             | 5     | 4            | 5          | 4     | 5          | 4             |
| CAS  | 023 | 4     | 3     | 5(게으<br>른)     | 3     | 5(정확한<br>의한정) | 3     | 5(말을<br>모르는) | 4          | 4     | 3          | 4             |
| CAS  | 024 | 3     | 5     | 4              | 5     | 4             | 5     | 4            | 5          | 4     | 5          | 4             |
| CAS  | 025 | 2     | 4     | 4              | 3     | 4             | 4     | 4            | 4          | 4     | 3          | 4             |
| CAS  | 026 | 4     | 2     | 1              | 3     | 4             | 2     | 1            | 3          | 4     | 1          | 1             |
| CAS  | 027 | 2     | 3     | 3              | 3     | 3             | 3     | 3            | 3          | 2     | 2          | 1             |
| CAS  | 028 | 4     | 3     | 2              | 3     | 2             | 3     | 2            | 2          | 1     | 2          | 1             |
| CAS  | 029 | 4     | 3     | 4              | 3     | 4             | 2     | 4            | 2          | 4     | 2          | 4             |
| CAS  | 030 | 4     | 1     | 4              | 1     | 1             | 1     | 1            | 1          | 1     | 5          | 2             |
| CAS  | 031 | 2     | 4     | 2              | 4     | 2             | 4     | 3            | 3          | 1     | 2          | 1             |
| CAS  | 032 | 4     | 4     | 4              | 5     | 4             | 4     | 4            | 4          | 4     | 3          | 3             |
| CAS  | 033 | 2     | 5     | 4              | 5     | 4             | 1     | 4            | 5          | N     | 5          | N             |
| CAS  | 034 | 4     | 3     | 4              | 2     | 4             | 2     | 4            | 1          | 4     | 1          | 1             |
| CAS  | 035 | 5(아기) | 5     | 5(탁상공<br>론을 위) | 5     | 4             | 5     | 4            | 5          | 4     | 5          | 5(새로운<br>다언어) |

| 구분번호 |     | E-11-1     | E-11-2     | E-12-1     | E-12-2 | E-13-1 | E-13-2 | E-14-1 | E-14-2 | E-15-1 | E-15-2       | E-16-1 |
|------|-----|------------|------------|------------|--------|--------|--------|--------|--------|--------|--------------|--------|
|      |     | 장애자        | 대안표현       | 맹인         | 대안표현   | 질름발이   | 대안표현   | 언청이    | 대안표현   | 정상인    | 대안표현         | 무뇌아    |
| CAS  | 001 | 1          | N          | 1          | N      | 1      | N      | 1      | N      | 1      | N            | 1      |
| CAS  | 002 | 3          | 2          | 2          | 2      | 3      | 4      | 3      | 3      | 2      | 1            | 3      |
| CAS  | 003 | 4          | 4          | 3          | 4      | 3      | 4      | 3      | 3      | 3      | 2            | 4      |
| CAS  | 004 | 3          | 4          | 3          | 3      | 3      | 4      | 3      | 3      | 3      | 4            | 3      |
| CAS  | 005 | 2          | 2          | 3          | 2      | 2      | 1      | 3      | 1      | 4      | 2            | 2      |
| CAS  | 006 | 4          | 5(장애<br>음) | 5          | 2      | 4      | 3      | 5      | 3      | 4      | 3            | 5      |
| CAS  | 007 | N          | 4          | 3          | 3      | 4      | 4      | 4      | 4      | 4      | 4            | 4      |
| CAS  | 008 | 2          | 2          | 3          | 2      | 3      | 2      | 3      | 2      | 1      | 1            | 5      |
| CAS  | 009 | 3          | 2          | 3          | 2      | 3      | 4      | 5      | 3      | 3      | 4            | 4      |
| CAS  | 010 | 4          | 3          | 잘 모르겠<br>다 | 1      | 4      | 3      | 4      | 4      | 5      | 4            | 5      |
| CAS  | 011 | 3          | 5(장애<br>음) | 3          | 2      | 3      | 3      | 2      | 1      | 3      | 2            | 3      |
| CAS  | 012 | 1          | 1          | 1          | 2      | 2      | 3      | 3      | 2      | 3      | 3            | 1      |
| CAS  | 013 | 2          | 1          | 2          | 1      | 4      | 4      | 2      | 1      | 2      | 1            | 4      |
| CAS  | 014 | 4          | 4          | 3          | 4      | 4      | 4      | 4      | 3      | 4      | 2            | 4      |
| CAS  | 015 | 3          | 3          | 3          | 2      | 3      | 4      | 1      | 1      | 3      | 1            | 3      |
| CAS  | 016 | 2          | 4          | 2          | 2      | 1      | 1      | 2      | 4      | 2      | 3            | 3      |
| CAS  | 017 | 4          | 4          | 4          | 2      | 4      | 4      | 4      | 3      | 3      | 4            | 4      |
| CAS  | 018 | 1          | 2          | 2          | 2      | 3      | 4      | 4      | 2      | 2      | 1            | 4      |
| CAS  | 019 | 1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CAS  | 020 | 1          | 1          | 1          | 1      | 1      | 1      | 4      | 2      | 5      | 3            | 1      |
| CAS  | 021 | 5          | 2          | 4          | 2      | 4      | 4      | 5      | 4      | 5      | 5(성인)        | 1      |
| CAS  | 022 | 5          | 4          | 5          | 4      | 5      | 4      | 5      | 4      | 4      | 4            | 5      |
| CAS  | 023 | 4          | 4          | 4          | 3      | 4      | 4      | 4      | 4      | 5      | 5(건강한<br>사람) | 4      |
| CAS  | 024 | 4          | 3          | 3          | 2      | 4      | 3      | 5      | 3      | 5      | 4            | 5      |
| CAS  | 025 | 3          | 3          | 3          | 2      | 3      | 3      | 3      | 3      | 4      | 2            | 4      |
| CAS  | 026 | 잘 모르겠<br>다 | N          | 3          | 2      | 3      | 4      | 3      | 2      | 3      | 2            | 3      |
| CAS  | 027 | 3          | 3          | 3          | 2      | 3      | 2      | 3      | 2      | 3      | 3            | 3      |
| CAS  | 028 | 2          | 2          | 3          | 2      | 3      | 4      | 3      | 2      | 3      | 2            | 3      |
| CAS  | 029 | 2          | 2          | 3          | 2      | 2      | 3      | 2      | 3      | 3      | 3            | 2      |
| CAS  | 030 | 1          | 1          | 1          | 2      | 1      | 1      | 1      | 1      | 2      | 3            | 1      |
| CAS  | 031 | 4          | 2          | 1          | 1      | 3      | 3      | 4      | 2      | 2      | 1            | 4      |
| CAS  | 032 | 4          | 3          | 3          | 2      | 3      | 3      | 5      | 2      | 3      | 4            | 5      |
| CAS  | 033 | 5          | 3          | 5          | 2      | 5      | 4      | 5      | 3      | 1      | N            | 1      |
| CAS  | 034 | 3          | 3          | 2          | 2      | 2      | 2      | 3      | 2      | 1      | 3            | 3      |
| CAS  | 035 | 5          | 5          | 5          | 4      | 5      | 4      | 5      | 5      | 5      | 5(보통)        | 5      |
| CAS  | 036 | 3          | 4          | 3          | 3      | 3      | 4      | 4      | 4      | 2      | 3            | 2      |

| 구분번호 |     | E-16-2 | E-17-1     | E-17-2 | E-18-1 | E-18-2         | E-19-1 | E-19-2       | E-20-1 | E-20-2       | E-21-1 | E-21-2       |
|------|-----|--------|------------|--------|--------|----------------|--------|--------------|--------|--------------|--------|--------------|
|      |     | 대안표현   | 농아인        | 대안표현   | 귀머거리   | 대안표현           | 장님     | 대안표현         | 병신     | 대안표현         | 병어리    | 대안표현         |
| CAS  | 001 | N      | 1          | N      | 1      | N              | 1      | N            | 1      | N            | 1      | N            |
| CAS  | 002 | 2      | 3          | 2      | 3      | 2              | 2      | 4            | 4      | 4            | 3      | 4            |
| CAS  | 003 | 4      | 3          | 4      | 3      | 4              | 3      | 4            | 4      | 4            | 3      | 3            |
| CAS  | 004 | 4      | 3          | 4      | 3      | 4              | 3      | 4            | 3      | 4            | 3      | 4            |
| CAS  | 005 | 4      | 4          | 3      | 2      | 1              | 3      | 4            | 4      | 2            | 3      | 4            |
| CAS  | 006 | 4      | 5          | 2      | 4      | 5(잘 모<br>르겠다)  | 4      | 4            | 5      | 4            | 5      | 2            |
| CAS  | 007 | 4      | 4          | 4      | 4      | 4              | 4      | 4            | 3      | 4            | 5      | 4            |
| CAS  | 008 | 2      | 3          | 2      | 3      | 2              | 3      | 2            | 5      | 2            | 3      | 2            |
| CAS  | 009 | 4      | 5          | 4      | 2      | 4              | 3      | 4            | 5      | 4            | 3      | 4            |
| CAS  | 010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CAS  | 011 | 4      | 3          | 2      | 3      | 4              | 3      | 2            | 5      | 4            | 3      | 2            |
| CAS  | 012 | 1      | 잘 모르겠<br>다 | N      | 3      | 2              | 3      | 2            | 1      | 1            | 1      | 1            |
| CAS  | 013 | 4      | 2          | 1      | 4      | 4              | 2      | 1            | 4      | 2            | 2      | 1            |
| CAS  | 014 | 4      | 4          | 4      | 4      | 4              | 4      | 4            | 5      | 4            | 5      | 4            |
| CAS  | 015 | 4      | 3          | 2      | 3      | 1              | 3      | 4            | 3      | 3            | 3      | 2            |
| CAS  | 016 | 4      | 3          | 4      | 2      | 1              | 2      | 1            | 2      | 1            | 2      | 1            |
| CAS  | 017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CAS  | 018 | 2      | 3          | 2      | 3      | 2              | 3      | 2            | 5      | 2            | 2      | 1            |
| CAS  | 019 | 1      | 3          | 2      | 2      | 1              | 2      | 1            | 3      | 2            | 2      | 1            |
| CAS  | 020 | 1      | 4          | 3      | 3      | 5              | 1      | 1            | 5      | 3            | 5      | 4            |
| CAS  | 021 | 4      | 3          | 2      | 4      | 1              | 5      | 4            | 5      | 2            | 5      | 4            |
| CAS  | 022 | 4      | 5          | 4      | 5      | 4              | 5      | 4            | 5      | 4            | 3      | 5            |
| CAS  | 023 | 4      | 4          | 3      | 4      | 4              | 4      | 4            | 5      | 4            | 4      | 4            |
| CAS  | 024 | 4      | 5          | 4      | 5      | 4              | 5      | 4            | 5      | 3            | 5      | 4            |
| CAS  | 025 | 4      | 4          | 3      | 2      | 1              | 3      | 2            | 3      | 3            | 3      | 4            |
| CAS  | 026 | 2      | 3          | 2      | 2      | 1              | 3      | 4            | 3      | 2            | 3      | 2            |
| CAS  | 027 | 2      | 3          | 2      | 3      | 2              | 3      | 2            | 3      | 2            | 3      | 2            |
| CAS  | 028 | 2      | 3          | 2      | 2      | 2              | 3      | 2            | 3      | 3            | 3      | 2            |
| CAS  | 029 | 4      | 2          | 3      | 2      | 4              | 3      | 4            | 2      | 4            | 2      | 4            |
| CAS  | 030 | 4      | 1          | 1      | 1      | 1              | 1      | 1            | 4      | 4            | 3      | 1            |
| CAS  | 031 | 2      | 3          | 1      | 4      | 2              | 4      | 2            | 5      | 2            | 4      | 2            |
| CAS  | 032 | 4      | 3          | 2      | 3      | 4              | 3      | 4            | 3      | 3            | 3      | 4            |
| CAS  | 033 | N      | 5          | 2      | 1      | N              | 1      | N            | 1      | N            | 1      | N            |
| CAS  | 034 | 4      | 2          | 4      | 2      | 1              | 2      | 4            | 3      | 4            | 3      | 4            |
| CAS  | 035 | 4      | 5          | 4      | 5      | 5(피곤하<br>게 하다) | 5      | 5(앞을<br>보는데) | 5      | 5(~할 만<br>크) | 5      | 5(말을<br>무한 스 |

|      |     | E. 속담/표현형 예문 |                |             |            |            |              |              |            |              |                |
|------|-----|--------------|----------------|-------------|------------|------------|--------------|--------------|------------|--------------|----------------|
| 구분번호 |     | E-22         | E-23           | E-24        | E-25       | E-26       | E-27         | E-28         | E-29       | E-30         | E-31           |
|      |     | 병신 육갑<br>한다  | 병어리 냉<br>가슴 앓다 | 귀머거리<br>삼 년 | 눈 뜬 장님     | 절름발이<br>내각 | 정상인 못<br>지않게 | 장애에도<br>불구하고 | 불구가 되<br>다 | 꿀 먹은 병<br>어리 | 장님 코끼<br>리 만지기 |
| CAS  | 001 |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CAS  | 002 | 3            | 2              | 3           | 3          | 4          | 3            | 2            | 3          | 3            | 3              |
| CAS  | 003 | 5            | 5              | 5           | 5          | 5          | 3            | 2            | 3          | 4            | 4              |
| CAS  | 004 | 잘 모르겠<br>다   | 3              | 3           | 잘 모르겠<br>다 | 잘 모르겠<br>다 | 3            | 3            | 3          | 잘 모르겠<br>다   | 잘 모르겠<br>다     |
| CAS  | 005 | 2            | 1              | 3           | 2          | 1          | 5            | 2            | 3          | 1            | 2              |
| CAS  | 006 | 5            | 3              | 3           | 4          | 4          | 4            | 3            | 4          | 3            | 3              |
| CAS  | 007 | 4            | 3              | 4           | 4          | 4          | 4            | 3            | 4          | 3            | 3              |
| CAS  | 008 | 4            | 4              | 4           | 3          | 3          | 4            | 4            | 4          | 1            | 2              |
| CAS  | 009 | 3            | 2              | 2           | 2          | 2          | 3            | 4            | 4          | 2            | 2              |
| CAS  | 010 | 4            | 4              | 3           | 4          | 잘 모르겠<br>다 | 5            | 1            | 5          | 3            | 잘 모르겠<br>다     |
| CAS  | 011 | 4            | 3              | 3           | 2          | 2          | 3            | 2            | 2          | 2            | 2              |
| CAS  | 012 | 2            | 잘 모르겠<br>다     | 잘 모르겠<br>다  | 1          | 3          | 4            | 3            | 1          | 1            | 잘 모르겠<br>다     |
| CAS  | 013 | N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14 | 5            | 3              | 4           | 4          | 4          | 5            | 4            | 3          | 4            | 3              |
| CAS  | 015 | 4            | 4              | 4           | 4          | 3          | 4            | 3            | 3          | 4            | 4              |
| CAS  | 016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CAS  | 017 | 5            | 4              | 3           | 4          | 4          | 4            | 4            | 5          | 5            | 4              |
| CAS  | 018 | 잘 모르겠<br>다   | 4              | 3           | 3          | 4          | 4            | 2            | 1          | 3            | 4              |
| CAS  | 019 | 2            | 2              | 2           | 2          | 3          | 2            | 2            | 2          | 2            | 2              |
| CAS  | 020 | 4            | 1              | 1           | 1          | 2          | 5            | 2            | 잘 모르겠<br>다 | 1            | 1              |
| CAS  | 021 | 1            | 1              | 2           | 2          | 1          | 5            | 1            | 5          | 1            | 3              |
| CAS  | 022 | 5            | 5              | 5           | 5          | 5          | 4            | 4            | 4          | 4            | 5              |
| CAS  | 023 | 3            | 3              | 3           | 3          | 3          | 5            | 4            | 4          | 3            | 3              |
| CAS  | 024 | 5            | 3              | 4           | 4          | 4          | 4            | 3            | 3          | 3            | 4              |
| CAS  | 025 | 4            | 3              | 2           | 2          | 3          | 4            | 3            | 3          | 3            | 3              |
| CAS  | 026 | 3            | 2              | 2           | 2          | 2          | 3            | 2            | 2          | 2            | 2              |
| CAS  | 027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CAS  | 028 | 3            | 잘 모르겠<br>다     | 잘 모르겠<br>다  | 1          | 2          | 2            | 2            | 2          | 2            | 2              |
| CAS  | 029 | 4            | 4              | 3           | 3          | 4          | 2            | 2            | 2          | 2            | 3              |
| CAS  | 030 | 1            | 1              | 1           | 1          | 1          | 3            | 1            | 1          | 1            | 1              |
| CAS  | 031 | 3            | 2              | 4           | 1          | 3          | 1            | 1            | 1          | 4            | 5              |
| CAS  | 032 | 5            | 4              | 5           | 4          | 5          | 4            | 3            | 3          | 3            | 4              |
| CAS  | 033 | 1            | 1              | 1           | 1          | 1          | 5            | 1            | 1          | 1            | 1              |
| CAS  | 034 | 3            | 1              | 1           | 1          | 1          | 2            | 1            | 1          | 1            | 2              |
| CAS  | 03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     |             | F. 속담/표현형에 대한 평가 이유 |   |   |   |             |       |   |   |                                                  |
|------|-----|-------------|---------------------|---|---|---|-------------|-------|---|---|--------------------------------------------------|
| 구분번호 |     | E-32        | F-1-1               |   |   |   |             | F-1-2 |   |   |                                                  |
|      |     | 절름발이<br>지성인 | 1                   | 2 | 3 | 4 | 5           | 1     | 2 | 3 | 4                                                |
| CAS  | 001 | 1           |                     |   |   |   |             | 1     |   | 1 |                                                  |
| CAS  | 002 | 3           |                     |   |   |   |             |       |   | 1 |                                                  |
| CAS  | 003 | 4           |                     |   |   |   | 1(그러<br>하   |       |   |   |                                                  |
| CAS  | 004 | 3           |                     |   | 1 |   |             |       |   |   |                                                  |
| CAS  | 005 | 3           |                     |   |   |   |             |       |   | 1 |                                                  |
| CAS  | 006 | 4           |                     |   | 1 |   |             |       |   |   |                                                  |
| CAS  | 007 | 3           |                     |   | 1 | 1 | 1(충분<br>하   |       |   |   |                                                  |
| CAS  | 008 | 4           |                     |   |   |   |             | 1     |   |   |                                                  |
| CAS  | 009 | 2           |                     |   |   |   |             |       |   |   | 1(말을 순화할 경우 본래의 뜻이 희석되어<br>변하기때문)                |
| CAS  | 010 | 5           |                     |   | 1 |   |             |       |   |   |                                                  |
| CAS  | 011 | 2           |                     |   |   |   |             |       |   | 1 |                                                  |
| CAS  | 012 | 1           |                     |   |   |   |             | 1     | 1 | 1 |                                                  |
| CAS  | 013 | 2           |                     |   |   |   |             |       |   | 1 |                                                  |
| CAS  | 014 | 3           |                     |   | 1 |   |             |       |   |   |                                                  |
| CAS  | 015 | 3           | 1                   |   | 1 |   |             |       |   |   |                                                  |
| CAS  | 016 | 2           |                     |   |   |   |             |       | 1 |   | 1(관용구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
| CAS  | 017 | 4           |                     |   |   |   |             |       |   | 1 |                                                  |
| CAS  | 018 | 4           |                     |   |   |   |             |       |   |   | 1(이미 굳어진 관용어로 쓰이고 있고 다른<br>말로 대체하기 힘들거니와 새겨하기예)  |
| CAS  | 019 | 2           |                     |   |   |   |             |       |   | 1 |                                                  |
| CAS  | 020 | 잘 모르겠<br>다  |                     |   |   |   |             |       |   |   | 1(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br>진 것이 아니므로)             |
| CAS  | 021 | 3           |                     |   |   |   |             |       |   | 1 |                                                  |
| CAS  | 022 | 5           |                     |   |   |   | 1(이런<br>속담예 |       |   |   |                                                  |
| CAS  | 023 | 3           |                     |   | 1 |   |             |       |   |   |                                                  |
| CAS  | 024 | 3           |                     |   |   |   | 1(일반<br>적으  |       |   |   |                                                  |
| CAS  | 025 | 3           |                     |   | 1 |   |             |       |   |   |                                                  |
| CAS  | 026 | 2           |                     |   |   |   |             |       |   | 1 |                                                  |
| CAS  | 027 | 3           | 1                   |   | 1 |   |             |       |   |   |                                                  |
| CAS  | 028 | 2           |                     |   | 1 |   |             |       | 1 |   |                                                  |
| CAS  | 029 | 3           |                     |   | 1 |   |             |       |   |   |                                                  |
| CAS  | 030 | 4           |                     |   |   |   |             |       | 1 | 1 |                                                  |
| CAS  | 031 | 3           |                     |   |   |   |             |       | 1 |   |                                                  |
| CAS  | 032 | 4           |                     | 1 | 1 |   | 1(사용<br>하   |       |   |   |                                                  |
| CAS  | 033 | 1           |                     |   |   |   |             |       |   | 1 |                                                  |
| CAS  | 034 | 1           |                     |   |   |   |             |       |   |   | 1(문학적 표현이거나 상황을 나타내기에<br>쉽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
| CAS  | 035 | 5           | 1                   | 1 | 1 | 1 | 1(우리<br>는   |       |   |   |                                                  |





◆ 연구책임자 : 임 영 철 (학술박사)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 주요저서

在日・在米韓国人及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 くろしお出版, 1993, 単著

箸とチョッカラク -ことばと文化の日韓比較-, 大修館書店, 2004, 共著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2005, 共著

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 おうふう, 2006, 編著

対人行動の日韓対照研究, ひつじ書房, 2008, 共著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태학사, 2008, 単著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

발 행 인 이 상 규

발 행 처 국 립 국 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 동 827

전 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8 년 11 월 20 일

발 행 일 2008 년 11 월 29 일

인 쇄 (주)조은글터

